

WINTER

# WONIKIN

WONIK GROUP MAGAZINE  
2019 VOL. 57

하나되는°  
원의

지난 사계절,  
싱그러운 사람들을  
만나 소통했고

뜨거운 열정으로  
목표를 마주했으며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깊숙이 물들이고

차가운 바람에 맞서  
뚝뚝 뭉치기도 했죠.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찬란히 빛나고 있네요.



원익 사보 2019년 겨울호  
원익인 통권 제 57호

발행일 2019년 1월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의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원익그룹 사보기자단

원익홀딩스 소병오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원익머트리얼즈 조수영 원익큐엔씨 이민희  
원익테라세미콘 최예란 원익 이기복  
원익큐브 정은하 씨엠에스랩 박지현  
위닉스 안희태 원익로보틱스 정희정 원익엘앤디 최세현  
하늘물빛정원 이찬우 원익투자파트너스 운용인

원익그룹 사보담당자

이호철 / 서재원 / 안예인



14

92

8

126

82

116

38

- 4 **NEW YEAR'S LETTER**  
열정적인 노력으로 변화와 도전을
- 6 **대표이사 신년사**  
함께 소통하는 미래
- 8 **SPECIAL THEME**  
3대를 이어온 대장장이의 독심
- 14 **BETTER TECH 1**  
돋보기 보듯 자세히 본다 - 반도체 공정
- 20 **공감라운지**  
우리는 매일 협상을 합니다  
Book\_ 협상의 신 & 원익아이피에스 최형섭 전무
- 24 **BETTER TECH 2**  
Bar 스마트폰10년 역사 끝나나? 폴더블 스마트폰 등장

**하나 대범하게**

- 30 **BOSS VS LEADER**  
신뢰를 만들고 배려를 익히는 곳, 리더의 자리  
원익큐브 서종욱 팀장
- 38 **A WEEK 52H**  
가족의 무대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하모니  
원익아이피에스 유진혁 과장
- 42 **WONIK HERO**  
투철한 혁신 의지로 한계를 깨트리다  
원익아이피에스 최광업 부장
- 46 **밥한번먹어요**  
원익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나눈 정갈한 이야기  
원익홀딩스 임우석 상무 & 씨엠에스랩 장승일 과장  
원익아이피에스 김영준 부장, 김진욱 사원
- 52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 강신욱 과장 & 김재혁 사원
- 54 **멘토링**  
환상의 콤비, 우리는 민 브라더스  
원익아이피에스 멘토 천경민 대리 & 멘티 고동민 사원
- 60 **그웨잇팀**  
작은 조각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이 되다  
원익큐엔씨 세정사업본부
- 66 **명작예찬**  
아지랑이와 같은 향기, 남춘모



CONTENTS



**들 소소하게**

- 70 **원익은 지금 ❶**  
2019년, 하나 되어 나아 갈 원익의 해
- 76 **원익은 지금 ❷ 원익홀딩스**  
밀고 당기고 심호흡, 건강하게 일합시다
- 82 **원익은 지금 ❸ 원익큐엔씨**  
미국 퀴츠 및 실리곤 업체 모멘티브社 인수
- 84 **원익은 지금 ❹ 원익테라세미콘**  
색다른 체험, 컬러풀한 소통
- 92 **원익은 지금 ❺ 씨엠에스랩**  
아모르파티(Amor Fati)
- 96 **원익은 지금 ❻ 원익머트리얼즈**  
하나 된 원익을 꿈꾸며 선순환의 씨앗을 심다
- 100 **원익은 지금 ❼**  
변화를 마주하고 진화하는 LEADER
- 106 **원익은 지금 ❽ 원익아이피에스**  
원익아이피에스 부품 LAB 오픈식
- 112 **원익은 지금 ❹ 원익머트리얼즈**  
존중과 배려로 빛어 올린 상생의 트로피
- 116 **원익은 지금 ❿ 원익머트리얼즈**  
가치를 인정받은 순간
- 120 **원익은 지금 ❶ 원익큐엔씨**  
더불어 하나, 원익은 가족이다
- 126 **원익은 지금 ❷ 원익아이피에스**  
행복을 낚는 강태공, 락시
- 132 **원익은 지금 ❸ 원익큐엔씨**  
고소한 냄새, 따뜻한 한입으로 녹인 출근길
- 138 **행복일터**  
하나 되는 순간, 우리 원익
- 140 **NEWS FOCUS**
- 162 **REPORTER'S LETTER**
- 166 **THANKS FOR YOU**
- 166 **READER'S LETTER**





# 열정적인 노력으로

## 원익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19년 기해년(己亥年)

###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의 경영 환경은 미증유의 무역갈등, 반도체 경기의 둔화, 국내 주력산업의 부진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악재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치열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런 경영 환경하에 우리 원익의 지속성장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년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퀴즈 사업을 하면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임직원들을 독려하며, 함께 달려온 결과 올해 명실공히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 먼저, 우리는 반도체 부문 모두에서

### 1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선진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와 차이를 극복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신명을 다하여 꼭 해내야 합니다. 이제 모방은 안됩니다. 글로벌 선진기업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선진기업이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 둘째, 세상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미래 성장을

###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 등 ICT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졌고, 업(業)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참여하여 당사에 적합한 사업의 기회를 찾아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최근의 기업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 셋째,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업무시간은 길었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았던 것이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주 52시간제 근로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우리에게도 과거의 느슨한 근무관행에서 벗어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나 중요하지 않은 회의는 과감하게 줄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변화와 도전을 이루는 원익

## 넷째,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며

###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 좋은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원익도 사회의 일원이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일에만 몰입하지 말고, 소외된 계층이나 이웃을 돌아보며 지원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 공정과 정의, 소통과 사랑의

###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원익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여러분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원익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원익 회장 이용한

# 함께 소통하는 미래



주인의식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일을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합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이재현*

원익홀딩스 대표이사 이재현

2019년 원익IPS는 성장을 위해 한단계 도약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Proactive한 자세로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현덕*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이현덕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않되, 기필코 성공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사업 전략에 담고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우성*

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 한우성

52시간 정부시책에 부응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 행복을 준비하는 멋진 방과 후 활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원익큐엔씨 대표이사 임창빈

2019년은 종합 Diffusion Maker로서 Global player가 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solution을 제공하고 절대 우위 경쟁력 확보로 미래를 준비해 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주도적 소통과 협업 마인드, 맡은 직무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갑시다.

*이재경*

원익테라세미콘 대표이사 이재경

친애하는 원익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간의 “己”는 토에 해당하고, 색깔로 따지면 노랑색 또는 황금색을 뜻한다고 하니, 올해야말로 진정한 황금돼지띠의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원익 가족 여러분 모두, 이루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상천*

원익 대표이사 백상천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세운 더 높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고 변화하여 재 도약의 한 해를 맞이합니다.

*문경수*

원익큐브 대표이사(대행) 문경수

2018년. 여러분들과 함께했기에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직면하였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지속성장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MS LAB, 파이팅!

*이진수*

씨엠에스랩 대표이사 이진수

4차산업 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센서 제품 개발과 센서 업체와 공동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장홍식*

위닉스 대표이사 장홍식

2019년은 함께 소통하며 자기주도적으로 도전하는 사내문화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서비스로봇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으로 원익로봇릭스의 로봇서비스 시장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나갑시다.

*장경석*

원익로봇릭스 대표이사 장경석

반도체로 성장한 원익의 또 다른 미래성장 동력은 서비스산업입니다. 원익엘앤디, 하늘물빛정원은 자유·소통·행복이라는 기업가치를 원동력으로 원익의 브랜드를 높이고, 21세기 원익의 신성장 동력의 원천이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원익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원익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재천*

원익엘앤디, 하늘물빛정원 대표이사 이재천

올해의 목표라는 비탈길을 오르고 나면 거기에는 또 하나의 벽이 가로놓일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고 나면 한 단계 더 높은 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때는 이미 당사는 어엿한 세계투자사로 우뚝 솟아있을 것입니다.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용성

# 마음을 달구고 열정을 두드려라, 3대를 이어온 대장장이의

## 뜻심

연산 대장간  
대장장이 류성배 씨

대장장이의 세계에서는  
전생의 업보를 망치질로 털어낸다고 한다.

이 말인즉 외롭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는 뜻.

망치질을 하면서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에 꼬리를 물리다 보면

어느새 오른손의 망치가 왼손을 때릴 수도 있다.

때문에 일을 할 때는 항상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린다.



"즐거움이 최우선이에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로 즐겁지 않으면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없어요." 1500도를 넘나들며 펄펄 끓는 가마 앞에서 망치를 두드리던 류성배씨가 가장 먼저 뽑은 말이다. 류 씨는 할아버지 대부터 시작된 '연산 대장간'을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라는 생각은 해 본 적 없다. '즐거우니까' 망치를 두드리고 있을 뿐.



## 늦어도 괜찮으니

### 제대로만 만들어라

선대인 아버지가 류 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신 말씀이다. 때문에 연산 대장간의 모든 제품은 남다른 품질을 자랑한다. 좋은 원료를 쓰기도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기 때문. 쇠를 이용해 물건을 만드는 일은 언뜻 보기에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섬세한 손길 없이는 작은 칼 한 조각도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만들 제품에 따라 쇠를 고르고 1500도 이상의 가마 앞에서 쇠를 달구면서도 끊임없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쇠가 노란지, 빨간지 너무 녹지는 않았는지. 연마를 할 때에도 너무 얇아지면 부러지기 쉽고 모양이 잡히지 않으면 사용하게 어렵기에 두드리는 횟수와 강도를 조절한다. 이미 몇 십 년이나 해왔기에 손에 익었을 법도 하지만 손의 감각만 믿고 제품을 만들었다간 금세 다시 가마행이다. 몸에 밴 대로 다행인 것은 굳은살과 땀띠뿐.

"보기엔 투박해 보여도 써보신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과연, 문지방이 닳도록 오가는 손님들마다 강하고 질기다며 연신 칭찬 일색이다. 칼집 하나 없이 신문지에 말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주지만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는다.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 그 믿음이 연산 대장간의 자부심이다.

### 오래된 것, 새로운 것 모두 다 품어라

### 진짜 하나가 됩니다.

대장간 곳곳에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놓여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의자, 손때로 손잡이가 검게 변한 망치, 류 씨조차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를 각종 기구들까지. 류 씨는 그 중 의자를 가리키더니 "저 의자는 아마 아버지 때부터 쓴 걸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테이프를 발라가며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높이가 딱 맞아요. 저만큼 일할 때 편한 의자를 본 적이 없죠." 하며 애정 어린 손길로 의자의 허리계를 쓸었다.

최근 연산 대장간의 이슈는 다마스쿠스 칼이었다. 특유의 유연함과 튼튼함으로 '전설의 칼'이라 불렸던 칼. 7개의 쇠를 붙인 뒤 계속 접어가며 연마를 해야 하는 탓에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주재료인 인도의 금속 원소가 첨가된 철광석이 고갈된 탓에 잊혀가고 있었다. 이를 연산 대장간에서 만들게 된 것. 혹자는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건 '가짜'라며 비판하기도 하고 만들 수 없을 거라 의심하기도 했지만 류 씨는 이에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있고 오래된 것은 이에 밀려나기도 해요. 사라져가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이름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라며 신념을 드러냈다.

이는 대장간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시대에 연산 대장간이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대에서 일궈 놓은 단골손님에 더해 새로운 손님을 끌어올 다양한 농기구, 칼을 만들고 오래된 가마를 허물어 새로운 가마를 만들 때에도 기존 가마의 좋은 점은 그대로, 보완해야 할 점은 덧대었다. 말 그대로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지켜 온 연산 대장간. 과거의 지혜와 지금의 새로움이 하나로 뒤섞인 공간이다.

내 일을  
즐기는 자에게

찾아오는  
내일

대장장이의 세계에서는 전생의 업보를 망치질로 털어낸다고 한다. 이 말만큼 외롭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는 뜻. 하지만 류 씨는 망치질을 하면서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에 꼬리를 물리다 보면 어느새 오른손의 망치가 왼손을 때릴 수도 있다고. 때문에 일을 할 때는 항상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류 씨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내 성격은 어떤지 아는 만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좋아하던 일에도 나쁜 생각이 끼어들기 마련. 그러면 오른손의 망치가 왼손을 때리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그는 다음 세대에게 대장장이의 일을 강요하지도, 애써 말리지도 않는다. 그 역시 자신의 적성은 대장간에 있음을 스스로 깨쳤고 워낙 힘든 일인 탓에 어머니의 만류가 있었지만 끝내 이 길을 택했다. "우리 자식들이요? 대장간으로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해야죠. 대신 만약 오게 된다면 항상 즐겁게 일 할 자신이 있어야 해요. 저처럼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최고의 대장장이로 명성을 누리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이제껏 만들어 본 적 없는 크기와 형태의 물건들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에도 성심성의껏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낸다. 즐겁기 때문에 안주할 수 없다는 그.

내 일이 만들어 내는

내일

“원익에 계신 분들도 저처럼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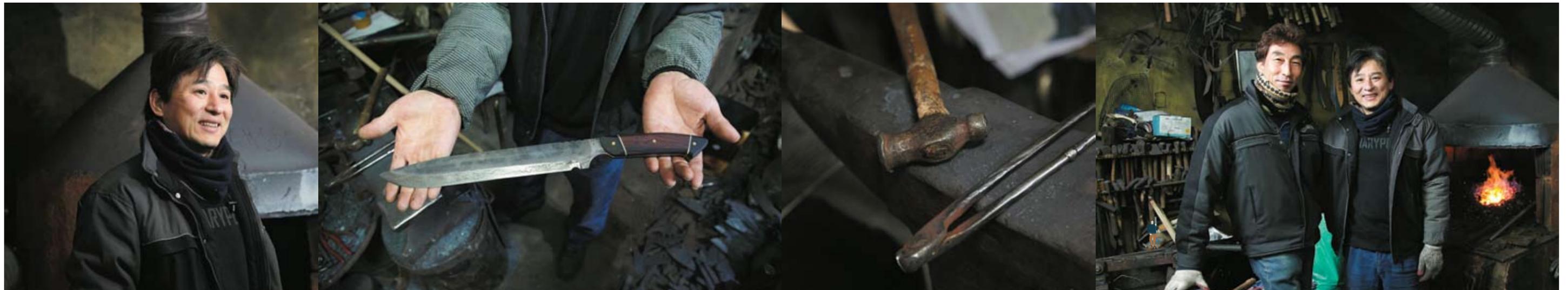
원익 사장님께서도 힘들게 그 회사를 일구셨겠죠?

힘들게 닦은 터전에서 즐거움이 피어난다면 서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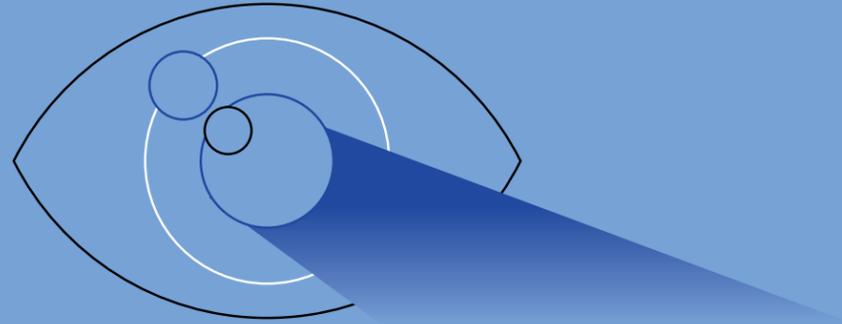
신입사원부터 사장님까지 모두 함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즐겁게 일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봐요.” **W**

연산대장간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황산별로 1541-2(연산리 399-3)  
041-733-5231



# 돋보기 보듯 자세히 본다 반도체 공정



반도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통하지 않기도 하는 물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지금의 반도체 세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반도체 없는 삶이 상상조차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준비한 반도체 공정 - 이해의 서막.

원익인들을 위한 반도체 이해의 꿀팁이 되길 바라본다.

글\_ 손수란 기자 The SEMICON Magazine

자동화 산업 전문가로 활동 하였고, 현재 반도체 산업 전문 잡지 The SEMICON magazine을 진행. The SEMICON magazine은 반도체 산업 전시회 SEMICON Korea와 SEDEX의 미디어 파트너로, 기업과 기업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 웨이퍼(Wafer)제조

# 1

경제 뉴스를 보면 동그란 원판을 들고 있는 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시장 이야기가 언급되고는 한다. 그 원판이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웨이퍼이다. 웨이퍼 제조는 모래로부터 실리콘을 추출, 가공과 성형을 통해 완성된 잉곳(결정 기둥)을 얇은 판으로 잘라내는 과정으로, 크게 4단계 공정을 거친다. 먼저,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사용하기 위해 순도를 높이는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제된 고순도 실리콘을 열로 녹여 얻어진 실리콘 용액으로 실리콘 기둥인 잉곳을 만든다. 가공을 통해 완성된 잉곳을 얇은 형태로 잘라 웨이퍼를 얻는다. 웨이퍼를 사용가능한 크기로 절단했다면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는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마치면, 웨이퍼 공정이 완료된다.



Wafer 제조 -----> Wafer 세정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큐엔씨  
원익홀딩스

##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는 산화공정

# 2

얇고 둥근 판 모양의 웨이퍼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상태로,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도체와 부도체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웨이퍼 위에 여러 가지 물질을 형성시킨 후 설계된 회로 모양대로 깎고, 다시 물질을 입혀 깎아내는 일이 반복되며, 이러한 반복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불순물로부터 실리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 산화공정이다. 산화공정을 거치는 이유는 웨이퍼에 절연막 역할을 하는 산화막(SiO2)을 형성해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산화막은 이온주입공정에서 확산 방지막 역할을 하고, 식각공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잘못 식각되는 것을 막는 식각 방지막 역할도 한다. 즉, 산화공정을 통해 형성된 산화막이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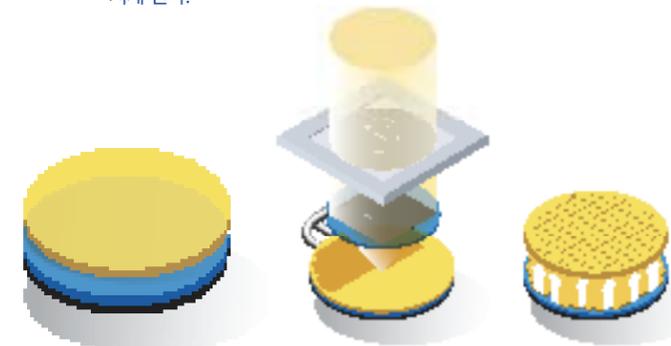


산화공정 ----->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큐엔씨  
원익홀딩스  
원익테라세미콘

##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포토공정

# 3

포토 공정은 필름을 인화지에 새기는 방법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필름 역할을 하는 마스크(Mask)를 인화지 역할을 하는 웨이퍼에 얹어서 현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먼저 웨이퍼 표면에 빛에 민감한 물질인 감광액을 골고루 바른다. 감광액 막이 형성된 웨이퍼는 인화지와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면 된다. 마스크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 회로를 새겨 넣는데 이 마스크가 필름 역할을 하게 된다. 인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노광장비인 스텝퍼(Stepper)를 사용하여 웨이퍼에 마스크회로를 그려 넣는다. 노광이란 빛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일컫는데, 웨이퍼 위에 마스크를 놓고 빛을 쬐어 주면 회로 패턴을 통과한 빛이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대로 옮기게 된다. 그 후 웨이퍼에 현상액을 뿌리면 감광액이 빛에 따라 노광된 영역이 제거된 양성(Positive) 및 노광된 영역만 남은 음성(Negative)으로 나뉘져 미세한 전자회로 패턴이 새겨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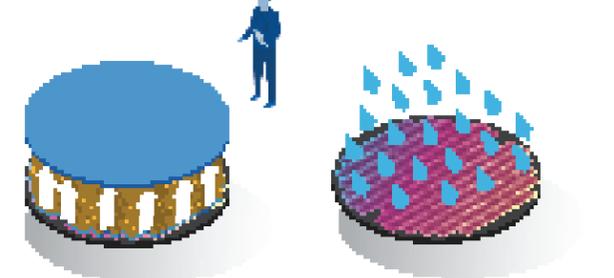


포토공정 -----> 노광공정 -----> 현상공정 ----->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홀딩스  
원익큐엔씨

##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공정

# 4

잘 만들어진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 넣는 포토공정이 끝나면,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공정이 필요하다. 식각공정은 화학약품으로 삭여서 파내는 습식식각과 가스로 깎아내는 건식식각으로 구분된다. 건식은 습식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으나, 최근에는 나노 단위로 고집적화되는 반도체 기술 변화에 따라 회로선폭 역시 미세해지고 있어,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습식보다는 건식식각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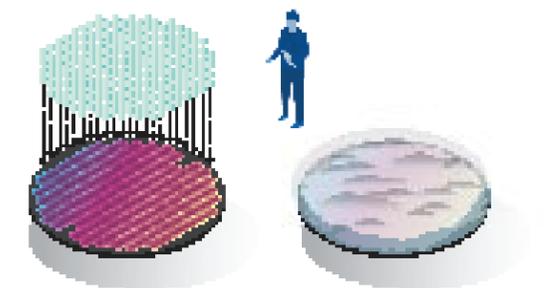


식각공정 -----> Wafer 세정 ----->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큐엔씨  
원익홀딩스

## 반도체가 되다 증착 & 이온주입

# 5

반도체 칩은 한 개의 회로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빌딩을 올리듯이 여러 개의 회로를 쌓아 만든다.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원재료가 되는 단결정 실리콘(Si) 웨이퍼 위에 단계적으로 박막을 입히고 회로를 그려 넣는 포토공정을 거쳐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식각공정과 세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 이때 회로 간의 구분과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얇은 막을 '박막(Thin film)'이라 한다. 증착이란 웨이퍼 위에 원하는 물질을 박막 형태로 형성하는 공정으로,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웨이퍼 위에 균일하게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세밀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증착의 방법은 크게 화학적 기상증착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과 물리적 기상증착방법(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두 가지로 나뉜다. 화학적 기상증착방법을 이용해 금속막을 씌울 경우 전기가 잘 흘러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절연막을 씌울 경우 회로와 회로를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웨이퍼 내부에 이온 불순물을 집어넣는 이온주입(확산) 공정을 통해, 부도체인 실리콘 웨이퍼가 전기적 특성을 갖는 반도체가 된다.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반도체에서 이온주입공정은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반도체는 규소로 되어있어 전기가 통하지 않으나 불순물을 넣어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온 주입 -----> 증착 ----->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큐엔씨  
 원익홀딩스  
 원익테라세미콘(LPCVD)  
 원익아이피에스(ALD, PECVD)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큐엔씨  
 원익홀딩스

## 전기가 통하는 길을 만드는 금속 배선 공정

# 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이다. 순수한 규소에 불순물을 넣는 이온주입공정을 통해 전도성을 갖게 된 반도체는 필요에 따라 전기가 흐르게, 또는 흐르지 않게 조절이 가능해 졌다. 포토, 식각, 이온주입, 증착공정을 반복하면서 웨이퍼 위에는 수많은 반도체 회로가 만들어지고, 이 회로가 동작하기 위한 신호가 필요하게 된다. 외부에서 전기적 신호를 가해줘야 하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반도체 회로 패턴에 따라 전기길(금속선)을 연결하는 금속 배선 공정이 필요해 지는 것이다.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한 금속을 고를 때에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웨어퍼와 부착성이 좋아야 하고, 전기저항이 낮아 전류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화학적 열적 공정에서 금속선 특성이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금속 배선 재료들은 구리(Cu), 알루미늄(Al), 텅스텐(W)이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실리콘과 만나면 서로 섞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알루미늄 배선 과정에서 접합면이 파괴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과 웨이퍼 접합면 사이에 장벽역할을 하는 금속을 증착하는데, 이를 배리어 메탈(Barrier Metal)이라고 한다. 이중으로 박막을 형성해 접합면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속 배선 역시 증착을 통해 이루어진다. 금속을 진공 챔버에 넣고 낮은 압력에서 끓이거나 전기적 충격을 주면 금속은 증기 상태가 된다. 이때 웨이퍼를 진공 챔버에 넣으면 얇은 금속막이 형성된다. 한편,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됨에 따라 금속 배선 공정에서도 좁은 영역에 균일한 박막을 형성시키기 위해 화학적 기상증착(CVD)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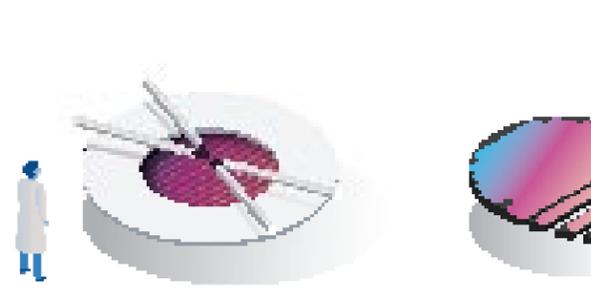


금속배선공정 ----->

## 불량을 선별하는 EDS공정

# 7

전공정의 과정을 통해 웨이퍼 위에 회로가 완성되면, 구현된 회로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친다. 불량인 회로들은 이차적인 작업을 통해 바로잡거나 제거한다. 크게 5단계로 이뤄지는 불량테스트(EDS)는 웨이퍼 상태의 개별 칩들의 전기적 특성을 바탕으로 불량품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1) ET Test & WBI(Electrical Test & Wafer Burn In)으로, ET Test(Electrical Test)는 반도체 집적회로(IC) 동작에 필요한 개별소자들(트랜지스터, 저항, 캐패시터, 다이오드)에 대해 전기적 직류전압, 전류특성의 파라미터를 테스트하여 동작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이다. 반도체 칩(Chip)으로 행하는 첫 테스트라고 볼 수 있다. WBI는 웨이퍼에 열을 가한 후 전압을 가해 제품의 잠재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제품의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2) Pre-Laser(Hot/Cold)로 특정 온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잡아내는 테스트와 전기적 신호를 통해 이상 유무를 판별해 수선이 가능한 칩은 수선공정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3) Laser Repair & Post Laser로 Pre-Laser 공정에서 수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칩을 모아 수선하는 공정이다. 4) Tape Laminate & Back Grinding에서 Back Grinding은 웨이퍼 후면을 갈아 칩의 두께를 얇게 해서 교통카드와 같은 IC카드에 조립하기 쉽게 한다. 이때 공정 중에 발생하는 잔여물로부터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는 Tape를 씌우는 것이 Tape Laminate 공정이고, Grinding이 끝나면 다시 벗긴다. 5) Inking은 불량 칩에 특수 잉크를 찍어 육안으로 불량 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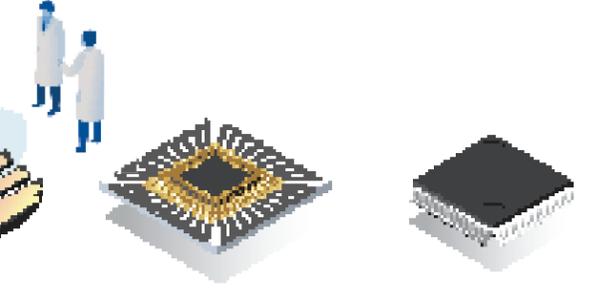


EDS공정 ----->

## 외부환경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는 패키징공정

# 8

EDS공정 테스트 후 웨이퍼의 반도체 칩은 날개로 하나하나 잘라내는데, 이렇게 잘린 칩을 베어칩(bare chip) 또는 다이(die)라고 한다. 이 상태의 칩은 외부와 전기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으며,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 반도체 칩, 즉 집적회로(IC)가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되기 위해선 그에 맞는 포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반도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패키징(Packaging)이라고 한다. 패키징은 집적회로와 전자기기를 연결하고 고온, 고습, 화학약품, 진동/충격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으로, 연결공정(Wire Bonding)을 통해 외부 전원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성형(Mold)공정은 수지(Resin)로 구성된 EMC(Epoxy Molding Compound)에 고온을 가해 젤처럼 만든 뒤 원하는 형태의 틀로 넣고 기판을 감싸주는 공정이다. 이런 공정을 거쳐 옷을 입을 반도체 칩은 패키지 테스트 후 완제품으로 거듭나게 된다.



절단(Sawing) -----> Wire bonding -----> Molding & Masking ----->

## 반도체 8대 공정에서 드러나는 원익의 위상



지금까지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주요한 8대 공정을 살펴봤다.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 잉곳을 잘라 만든 웨이퍼가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반도체가 되어 우리 생활에 쓰이기까지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익아이피에스, 원익큐엔씨,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테라세미콘, 원익홀딩스'가 국내 반도체산업발전의 큰 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익큐엔씨의 실적 성장을 이끄는 부문은 쿼츠와 세정이다. TEL향 매출 증가는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식각장비 투자 및 SK하이닉스의 M15 투자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am Research향 쿼츠 전용공장이 가동되면서 Lam향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나노원의 경우 반도체 IMP(이온주입) 공정내 parts 세정에 80억원 규모의 Capa 증설을 진행 중(12월 완료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세라믹 부문의 경우, 부품 세정으로 인해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있으므로 교체주기가 도래하는 2019년 하반기쯤 실적이 기대된다.

원익머트리얼즈의 실적 성장은 식각가스가 이끌고 있다. DRAM의 미세화와 고객사 3D NAND 공정에 식각용과 세정용으로 쓰이는 특수가스(CH<sub>2</sub>F<sub>2</sub>, C<sub>4</sub>F<sub>8</sub>, F<sub>2</sub> mix, CO<sub>2</sub>)의 비중 확대로 견고한 매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화막 증착에 사용되는 N<sub>2</sub>O의 경우 OLED향 출하량 증가와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제품매출 비중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원익홀딩스는 기업분할(원익홀딩스, 원익아이피에스) 이후 자체사업(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가스장치)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익아이피에스, 원익테라세미콘,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큐엔씨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주회사이다. 원익홀딩스의 자체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의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한다. 동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BOE, EDO, GVO, 티안마 등 중화권 업체 다수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선 반도체, 중국에선 디스플레이 중심의 증설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한편, 최근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익아이피에스와 디스플레이 전공정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익테라세미콘의 합병으로 기술의 수직·수평적 확대, 연구개발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해외 영업 및 고객 대응력 강화, 재무 안정성 확보 및 경영 효율성 증대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



지난 12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미콘 재팬(SEMICON Japan)에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발표한 '2018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액 예상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약 621억달러(약 70조원)에 달해, 전년대비 9.7%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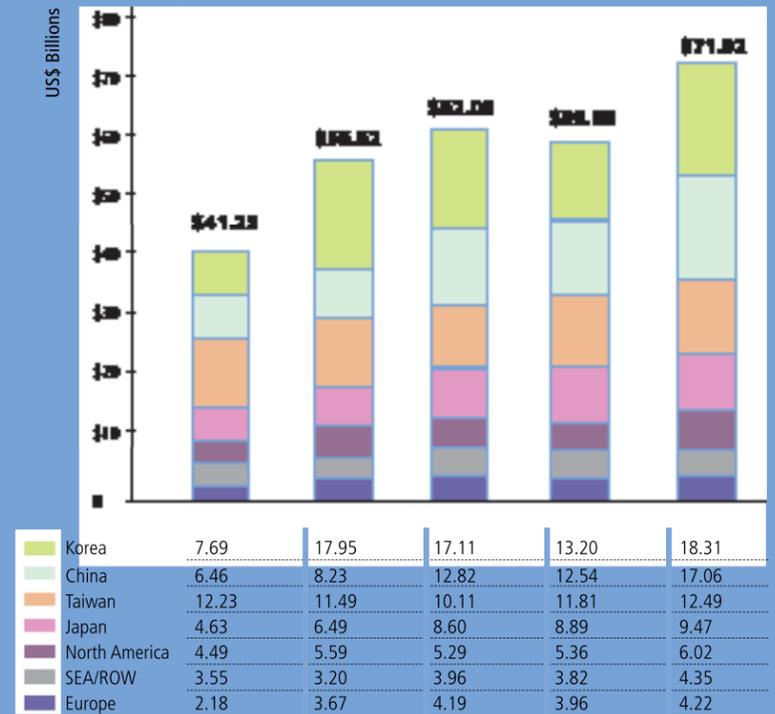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매출액

단위: 10억 달러  
자료: SEMI

작년 달성한 역대 최고 566억달러(약 63조8000억원)를 경신하는 수치로, 내년은 올해 대비 약 4.0% 하락하나 내후년인 오는 2020년에는 전년대비 약 20.7% 상승하며 719억달러(약 81조원)로 다시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반도체 장비 매출액을 분야별로 보았을 때 웨이퍼 가공 장비가 약 10.2% 증가한 502억달러(약 56조 5,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팹(Fab) 설비, 웨이퍼 제조, 마스크·레티클과 같은 기타 전공정장비 분야는 0.9% 증가한 25억달러(약 2조 8,000억원)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어셈블리 및 패키징 장비 분야는 1.9% 증가한 40억달러(약 4조5000억원), 테스트 장비는 15.6% 증가한 54억달러(약 6조원)로 예상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지역별 반도체 장비 매출액 1위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대만·북미 시장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대비 지역별 성장률은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중국이 55.7%, 일본 32.5%, 기타지역(주로 동남아권) 23.7%, 유럽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EMI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도 한국·중국·대만은 여전히 세계 탑3의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국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132억달러로 1위를 수성하는 가운데 중국(125억달러)과 대만(118억달러)도 각각 2, 3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W**



# 협상의 신

최형섭  
규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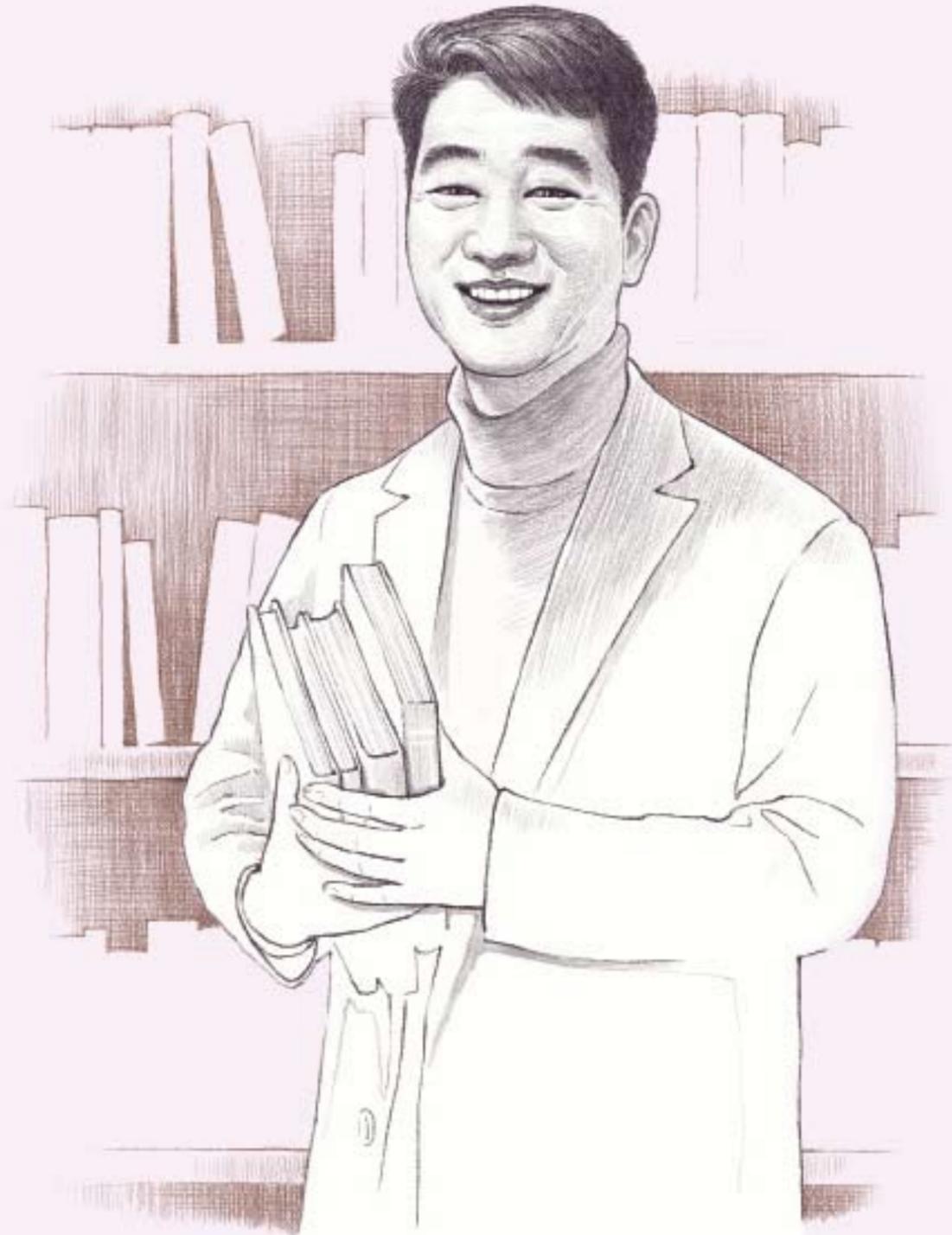
recommend

**최형섭 전무**

원익아이피에스  
DS사업본부 본부장



우 리 는 매 일  
협 상 을  
합 니 다



우리는 협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 배우자와 협상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부하, 동료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협상을 통해 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협상이란 '더 큰 가치를 키우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 일 것입니다.

어떤이는 '인생의 8할은 협상' 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협상에서는 이기는 협상보다 성공하는 협상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공한 협상이란, 내 요구사항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충족시키는 결과겠지요.

이를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협상' 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원익인들도 이 책을 읽고 '협상의 신' 이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글. 원익아이피에스 최형섭 전무



# 협상의 신



## 삶의 도처에 '협상'은 존재한다!

까다로운 협상 상대를 만나 난관에 빠진 사람부터, 협상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해 제로베이스인 사람까지, 폭넓은 독자에게 실제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협상학 입문서 『협상의 신』.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SERICEO에서 '협상의 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 내용을 모아 엮은 책이다. 당시 강의는 2001년 이후 진행된 SERICEO 경영 강의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협상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말을 할까'에만 집중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고, 관계다. 그리고 경험보다 중요한 게 그 원리를 아는 것이다. 이기는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게 성공하는 협상이다.

최철규

대개 협상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상 경험'보다 중요한 게 '협상 원리'를 아는 것. 예를 들어, 괴짜 물리학자인 파인만 교수를 노벨상 시상대에 세우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할까? '일주일'이라는 기간의 '포지션'에 집중했던 재단 측은 교수의 승낙을 얻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귀찮은 게 싫은 것'이라는 '니즈'를 간파한 그의 부인은 '시상대에 서지 않으면 기자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승낙을 얻어냈다. 이때 사용된 협상의 원리는 바로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면, 그의 니즈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한 서울시와 주민 간의 협상과 한국과 EU의 FTA 협상 등 신문 지면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사례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볼품없는 신랑이 최고의 신부를 맞이하려면?', '집을 현명하게 사고파는 방법?', '연봉 협상을 잘하려면?' 등의 개인 사례를 다양하게 들어가며 설명해준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강점은 협상에 대한 원론적 내용도 수많은 예시와 함께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사례들의 뒷이야기를 읽는 즐거움이 매우 크다. 아울러 비즈니스 현장이나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을 다양하게 가정하여, 독자들은 자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재미도 맛볼 수 있다. 까다로운 협상 상대를 만나 난관에 빠진 사람부터, 협상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해 제로베이스인 사람까지, 폭넓은 독자에게 실제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협상학 입문서가 될 것이다. **W**

47 page

결혼식장에 가보니 남자가 정말 형편없다. 그런데 여자는 정말 완벽하다. 볼품없는 총각이 최고의 신부를 맞이한 비결은? 아마도 남자는 예비 장모의 마음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히든 메이커는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자. 절대 내 얘기가 아니다.) 혹시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상대만 바라보지 마라. 그 자리에서 백날 발 동동 굴러야 소용없다. 상대의 히든 메이커를 찾아라. 그리고 그를 움직여라.



당신의 제안을  
수십 배 더 돋보이게 할  
실전 협상술

95 page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한다. 지금 당신이 받는 연봉은 높은가, 낮은가? 답할 필요 전혀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학 동기 중에 졸업 후 외국계 금융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당신의 연봉은 분명 낮다고 인식될 것이다. 반면, 졸업 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낮지 않다고 인식될 것이다. 인간 뇌의 원리가 그렇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 내 요구를 말하기 전에, 내가 제시할 기준부터 생각하자. 그래야 상대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글\_ 정가현 기자  
산업전문지 첨단 '월간 전자기술'에서 IT 전문 기자로 근무, 현재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

Bar 스마트폰 10년 역사 끝나나?



It's New!

폴더블 스마트폰 등장

내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에 '폴더블폰(foldable phone)'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긴다. 2019년에는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했다. 아주 오래전, 막연하게 ' 먼 미래에는 휴대폰을 접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상상만 했던 생각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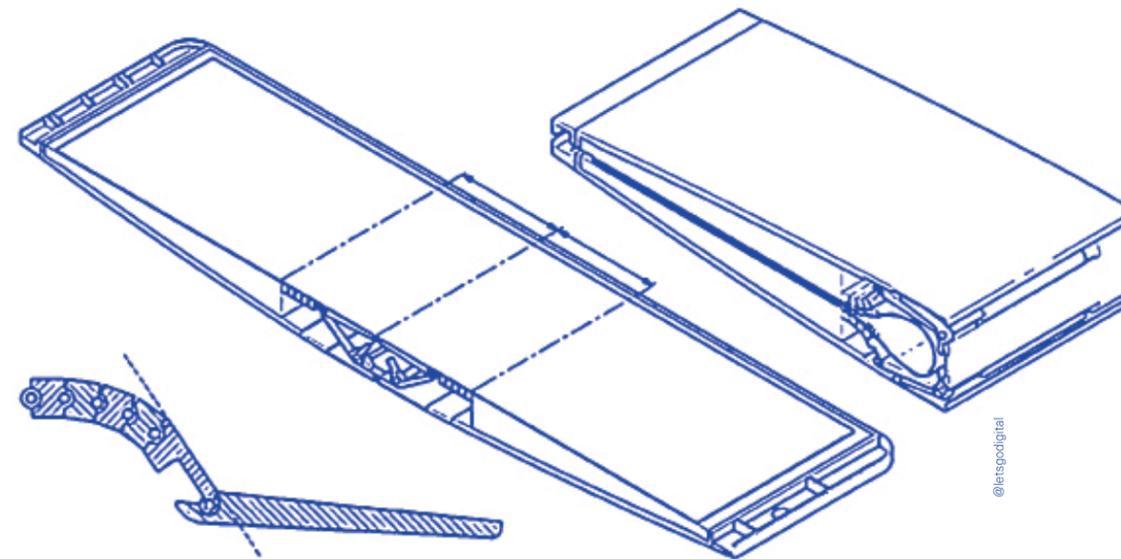
일부 누리꾼들은 '스마트폰을 굳이 접어서 써야 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필자 또한 처음 접했을 때 효용성이 의심됐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점이 매우 많다.

가장 큰 장점으로 '확장성'을 꼽을 수 있다. 펼쳤을 때 미니 사이즈의 태블릿 PC만큼 커지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게임 등 콘텐츠가 더 다양해진다. 또한 폴더블폰에서는 전면 카메라, 즉 셀카의 화질 개선이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의 경우 후면 카메라의 성능이 더 좋지만 폴더블폰은 전·후면 카메라를 통합해 하이엔드 렌즈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금도 셀카용 전면 카메라 렌즈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후면 카메라만큼의 화질을 구현하기 어려워 유저들에게 쉽사리 만족감을 못주고 있다. 반면 폴더블폰은 전·후면 카메라 모두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기대가 커지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는 있다. 내외부 디스플레이 전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최적화할지, 제품 두께는 어떻게 줄일지, 배터리는 어떻게 접어야 할지 등의 개선점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폴더블폰의 전개도



@letsdigital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최선의 소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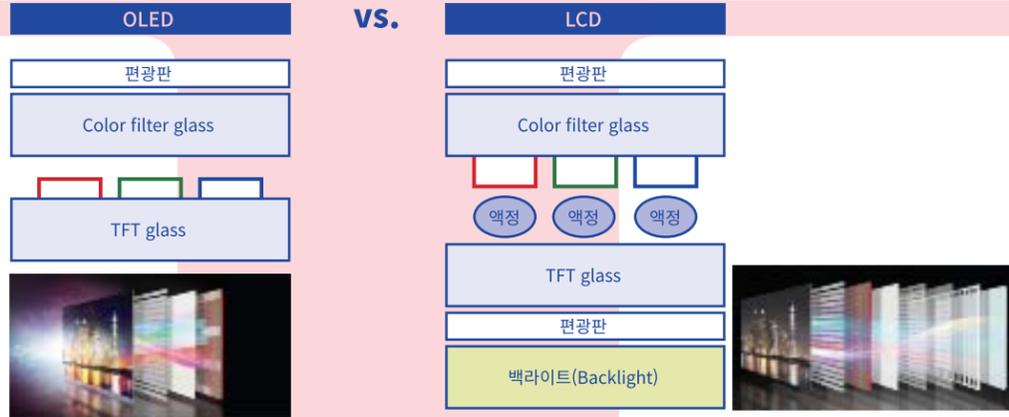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크게 투명 보호막, 기판, TFT(Thin Film Transistor), OLED 총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투명 보호막**은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보호해주는 역할이다. 외부의 수분과 산소로부터 디스플레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기판(Substrate)**은 TFT와 OLED를 받쳐주는 기반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현재 금속 포일, 박형 유리, 플라스틱 필름이 기판의 주재료로 쓰이고 있다. 금속 포일은 충격에 강하고 산소와 수분 투과도가 낮으며 매우 얇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적합하다. 박형 유리는 현재 커브드 TV에도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지만 폴더블폰처럼 많이 휘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다. 플라스틱 필름은 특유의 가벼움과 쉬운 공정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재다. 특히 플라스틱 필름 중에서도 '폴리이미드(Polyimide)'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소재는 유연성이 뛰어나지만 아니라 유리전이온도가 높고 열 팽창계수가 낮아 온도를 높여도 변화가 적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판으로 가장 적합하다.

**TFT**는 플렉서블뿐만 아니라 모든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싼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a-Si(비정질 실리콘) TFT를 대부분 사용했으나 이동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3D, 4K UHD,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a-Si에 이어 LTPS(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Silicon) 공정

을 거쳐 제작된 p-Si(다결정 실리콘) TFT가 많이 사용된다. p-Si TFT는 이동도와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균일도가 떨어져 대형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는 Oxide TFT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p-Si TFT에 비해 이동도, 안정성이 다소 아쉽지만, a-Si와 비교했을 때 이동도가 상당히 높고 균일도가 좋기 때문에 대형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표시부에는 **OLED**가 적용된다. 보통 디스플레이에는 LCD가 쓰이기도 하지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고 액정을 놓을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OLED가 적합하다. OLED는 LCD에 비해 적층 구조 및 소자 부품 수가 단순하기 때문에 폴더블폰과 같은 소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 투명함과 유연함 어떻게 구현할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투명함과 유연함이다. 투명하고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려면 유리와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열팽창계수를 가지면서도 휘어지고 접을 수 있는 기판소재가 필요하다.

카이스트(KAIST) 김상울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고분자 사슬 간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고분자 물질을 합성할 때 고분자 사슬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도입하고 힘의 방향이 수직으로 교차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사슬 간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면 온도에 따른 팽창 및 수축을 억제할 수 있다. 김상울 교수팀은 이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고성능 고분자 물질인 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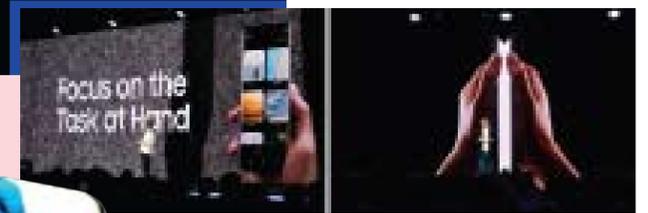
리아마이드이미드 제작에 성공했다. 이 필름은 열팽창 정도가 유리 수준으로 낮으면서 유연성도 갖췄고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열성을 갖고 있다. 이 필름 위에 이그조(IGZO) 박막 TFT 소자를 제작했을 때 필름을 반경 1mm까지 접었는데도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한다.

##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 F, 폼팩터 혁신 예고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8(SDC 2018)에서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F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참관객들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인피니트 플렉스 디스플레이(Infinite Flex Display)'였다.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 중국의 핑차이엔 '모올'의 플렉스파이



지난 11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출시될 폴더블폰 갤럭시 F의 프로토타입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곧 구현될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에 부풀었지만, 사실 폴더블폰의 성장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F'는 첫 출하량이 100만 대 정

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 비해 아주 작은 수치이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태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에서는 폴더블을 넘어 롤러블(Rollable), 스트레처블

(Stretchable)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이야기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디스플레이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사람의 상상은 기필코 현실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는 넘어선다는 것. **W**

저는 새로이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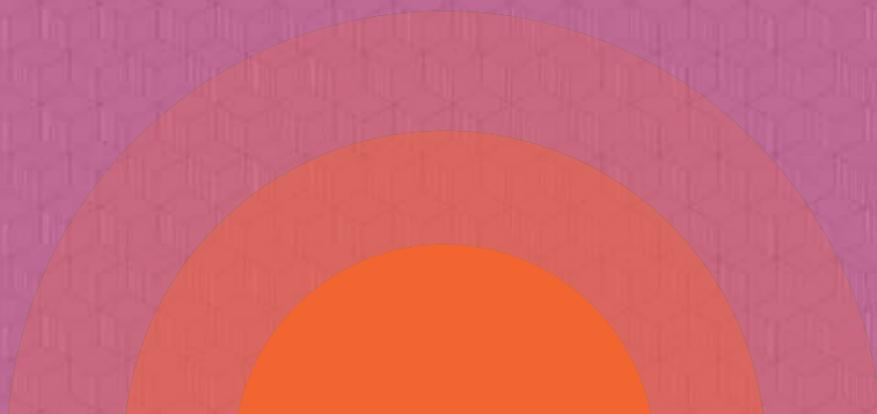
# 포근하게

여러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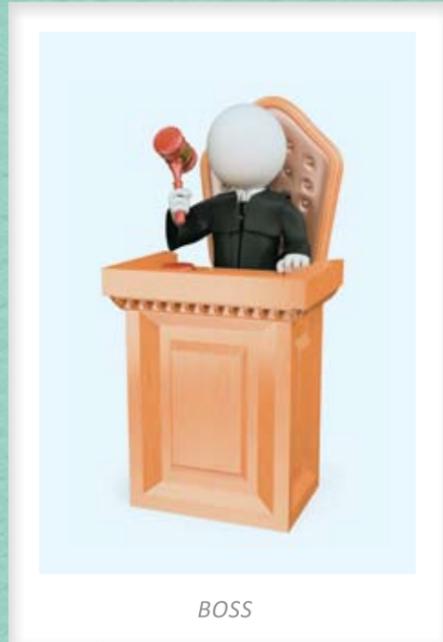
어떤

미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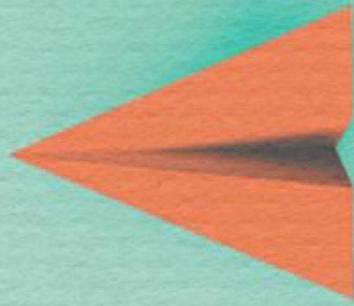
그리셨나요?



# 굿 리더



**보스는 스스로 내뱉은 말을  
쉽게 번복하고 부인 한다**



**리더는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진다**

내가 꿈꾸던 리더를 만났습니까? 오늘의 나는, 보스입니까? 리더 입니까?

V S

# SEO JONG 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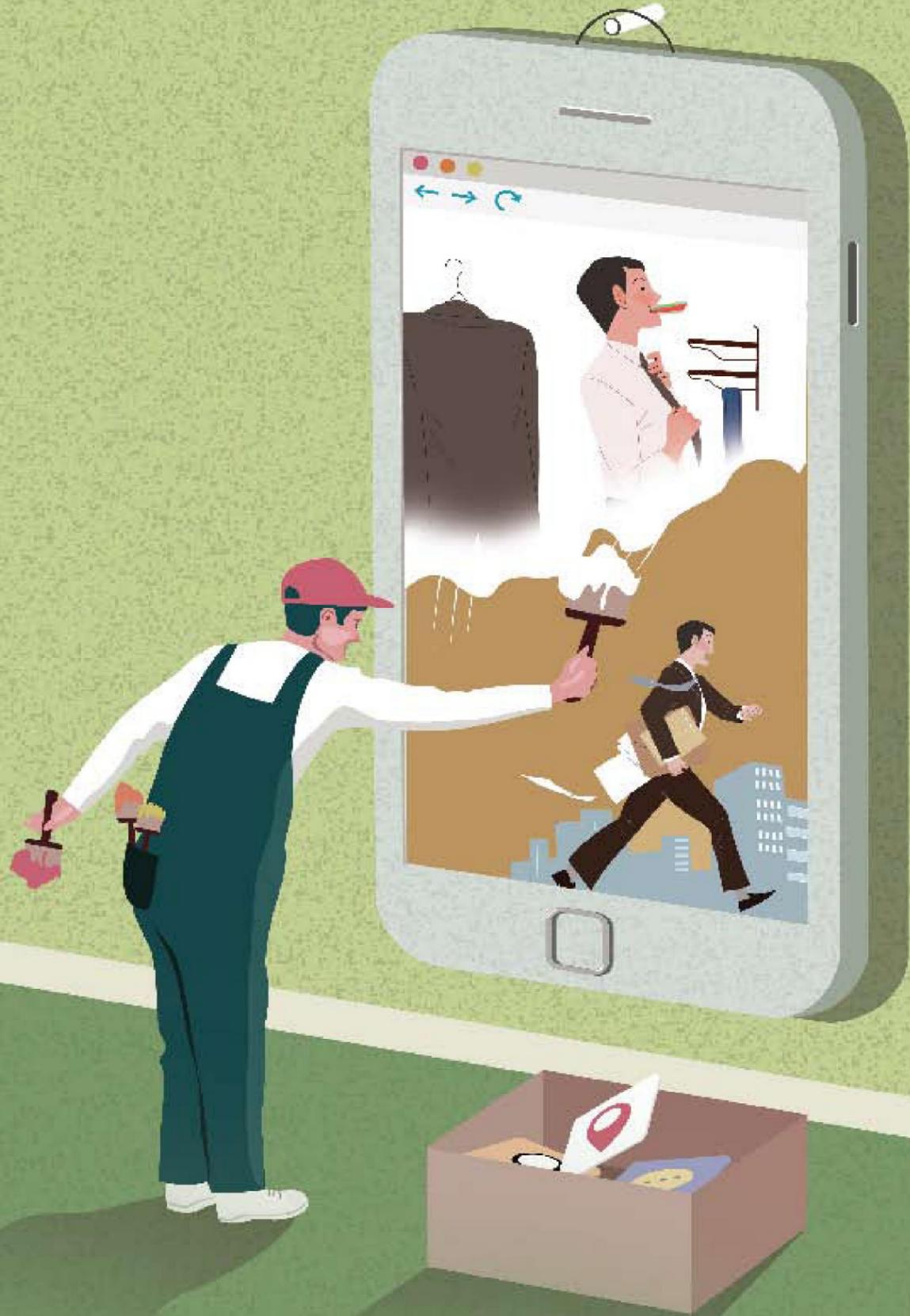
N° 4

WONIKIN v.57 — BECOME ONE

팀장 서종욱

원익큐브  
화학사업부 화학2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제 옛말이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모두가 좋은 리더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지금은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시대. 주변인들과 신용을 가꾸고 실력을 갈고 닦는 자만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SEO JONG WOOK

The 4th Leader

## 끊임없이 날을 버리는 리더의 품격

올해로 입사 7년차인 원익큐브 화학2팀의 박찬중 과장. 그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2011년 연말이 생생하다. 2012년 1월 2일 입사 예정이었으나 2011년 원익 송년의 밤에 초대되었던 기묘한 날. 장기자랑에서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원호와 똑같이 “안돼~”를 외치는 서종욱 팀장님의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더랬지. 그런데 그 분이 우리 부서의 팀장님일 줄이야. 게다가 첫 출근에 서부터 “이런 상식이 부족한 녀석!”이라고 꾸지람을 들을 줄이야. 180도 다른 팀장님의 모습에 적응을 못했던 병아리시절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안다. 우리 팀장님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 열정을 불태우는 분이라는 걸.

“박찬중 과장 뭐해? 눈 좀 떠봐! 이 팻캐스트 들어봤어?” 앗, 팀장님 생각을 하기 무섭게 팀장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팻캐스트가 말이야, 요새 시사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꼬집더라고.”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팀장님은 시사, 상식에 대한 공부를 엄격하게 시키셨다. 가끔 돌발 퀴즈도 내시곤 했는데 못 맞추면 꾸지람이 쫓아왔다. 처음엔 ‘왜?’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장에 나가 일을 하면서부터 깨달았다. 영업직에게는 시사와 상식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걸. 팀장님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물건을 파는 게 일이야.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신뢰는 지식이 기반이야. 그 기반이 알은 채로 단순히 제품과 가격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그저 그런 영업사원이 되고 말아. 내가 주는 정보에 가치를 실으려면 기반을 잘 다져야해. 그러니까 늘 공부해야 한다.”

팀장님은 짬이 나면 늘 책을 읽으신다. 심리, 과학, 철학, 사회 분야도 다양하다. 그 모습을 7년 간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나도 팀장님 뒤를 쫓아 책도 읽고 여러 공부도 한다. 더불어 후배들에게 팀장님과 똑같은 말을 해 주기도. 확실히 7년 전과의 나와는 깊이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 신뢰는 나와 리더를 하나로 만들었다

오후 업무는 외근이다. 오늘도 혼자 거래처에 간다. 영업직의 특성상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해야하고 고객과의 약속이 생기면 언제든 외근이다. 팀장님은 우리에게 스케줄을 묻거나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따위를 묻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우리 팀원들은 팀장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물론 팀장님께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걸 봐 왔기 때문도 있지만 나에게도 하나의 일화가 있다.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 시절, 눈을 떠 보니 혁, 9시였다. 이미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있어야 할 시간에 눈을 뜬 것이다. 부랴부랴 씻고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시계는 10시를 넘기고 있다. 어떤 꾸지람이든 감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팀장님께 가 사죄를 드렸는데 웬걸, “어제 많이 피곤했냐. 가서 일 보라.” 하신다. 실컷 꾸지람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잊었을 테지만 이 일은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 다시는 팀장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이렇듯 팀장님은 사원들의 자존감을 최대한 지켜주시면서 어떤 일이든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신다. 물론 업무상 실수가 있거나 거짓말을 하면 호랑이로 변하시지만 지난 7년간 본인의 지위나 나이를 내세우며 누군가를 꾸짖는 걸 본 적이 없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꼭 집어 화끈하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는 쿨가이시다.

덕분에 팀원들은 언제든 무슨 일이든 팀장님께 가서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거리를 털어놓는다. 나 역시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모두가 존중하도록 만드는 참된 리더. 언젠가 나도 팀장님 같은 리더가 되겠지?

신뢰를 만들고  
배려를 익히는 곳,  
리더의 자리

안녕하십니까,

원익큐브 화학사업부 화학2팀에서 영업 및 영업관리를 맡고 있는 서종욱 팀장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천을 받아 얼떨떨하네요. 우선, 박찬중 과장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할 때 제대로 같이 하자'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일 할 때도 같이, 놀 때도 같이 놀자 주의죠. 그러기 위해선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생길까요?

첫째로 저는 팀원들 각 개인이 가진 마음의 벽을 허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허물어지는 벽을 반가워하고 또 누군가는 반가워하지 않아요. 각각의 성향과 능력을 파악한 뒤에 속도를 조절해야 하죠. 둘째로 기회와 관용은 공정하게 주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리더가 좋아하는 팀원에게만 기회를 몰아주는, 즉 라인을 만드는 리더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갖지 못한 팀원은 팀을 위해 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팀의 붕괴를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원익의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 중 행복에 초점을 맞춰 팀장이 진정으로 팀원들의 행복을 바라준다면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팀장을 신뢰하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길을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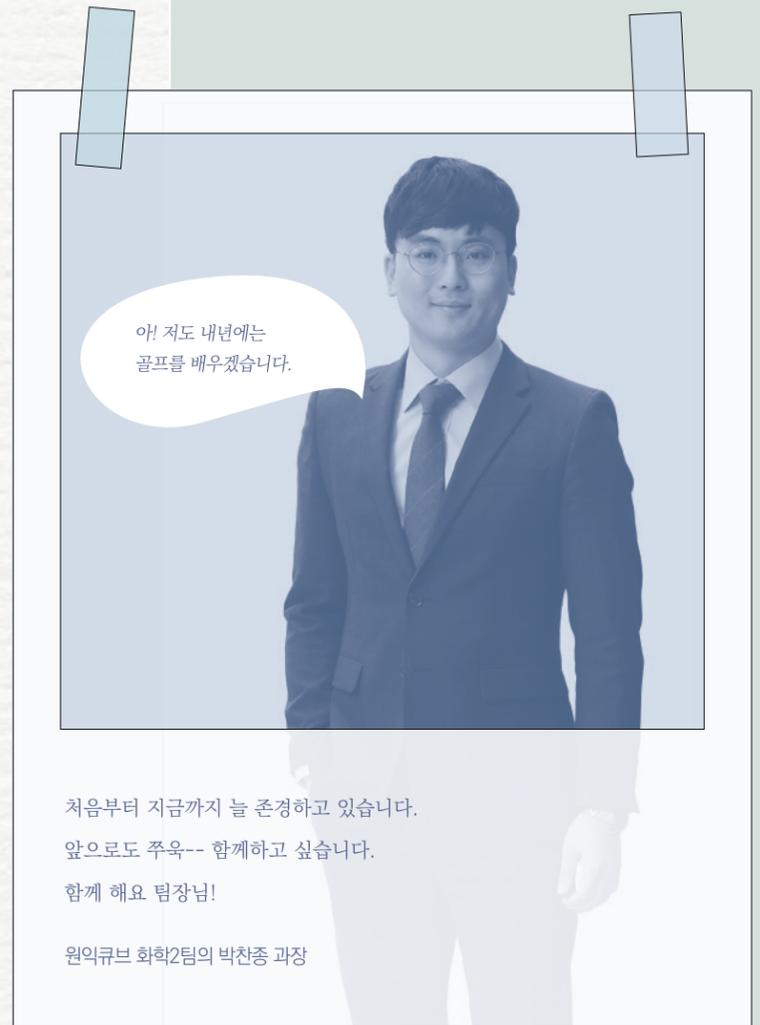


언젠가 내게 삶의 지혜 한 가지를 알려주었던 사람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업직은 특히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직종이예요. 고객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팀원과의 신뢰도 무척 중요하죠. 저는 우선 무슨 일이 있든 팀원의 말이 맞다는 전제 하에 일을 합니다. 때문에 팀원들도 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아요. 혹여 잘못을 하더라도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잘못을 시인하죠. 그래서 저희 팀은 어느 팀보다 빠르게 잘못을 시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이런 마음가짐, 행동을 팀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기 가능한 일이죠. **W**

리  
더  
의  
품  
격

자유를 주되  
믿음을 잃지 않고  
권위를 내려놓은 소통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진정한 원익의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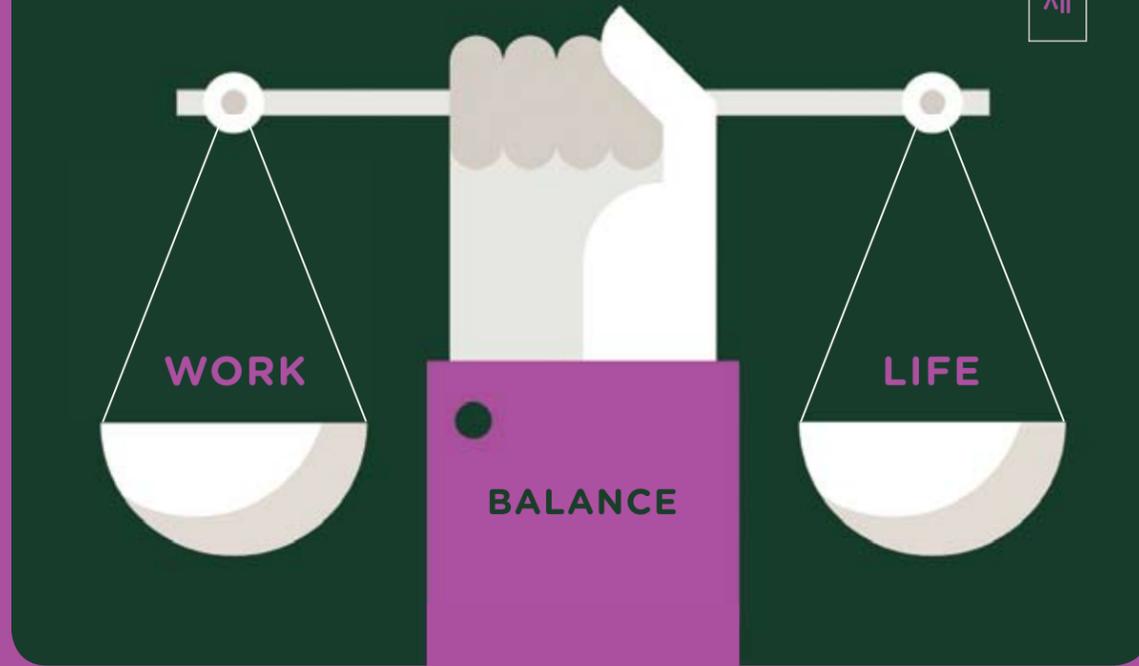


아 저도 내년에는  
골프를 배우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욱--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요 팀장님!

원익큐브 화학2팀의 박찬중 과장

주 52 시간 근무제



## 가족의 무대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하모니

원익아이피에스  
유진혁 과장의 여유있는 저녁라이프 속으로

유진혁 과장을 쏙 빼닮은 다섯 살배기 아들 태오 군은 아빠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색했다. 아빠는 늘 자신이 잠들었을 때에야 집에 돌아왔고 잠에서 깨기 전에 출근했기 때문. 아빠는 자신과 함께 잠드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 주말이나 주중 저녁에 함께 놀아주더라도 아들은 꼭 잘 시간만 되면 “아빠는 이제 가서 자”라는 말을 했다. 이는 비단 유 과장의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유 과장은 “가족모임 등에 나가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이제 아빠 집에 가’라든지 ‘아빠는 회사에 살잖아’라는 말을 들곤 했다더라고요.”하며 씩씩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부쩍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태오 군 역시 더 이상 아빠와 잠드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게 됐다. 한참 손을 많이 타는 시기에 함께 있어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유진혁 과장. 그의 부인 강선아 씨도 “매번 저녁 차리는 게 일어났어요.

유 과장이 오늘 평일임에도 편안히 달려온 곳은 아내의 공연장이다. 그의 아내 강선아 씨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에도 재즈 페스티벌이나 각종 공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태오 군을 낳게 되면서 잠시 휴식기를 가져야만 했는데, 태오 군이 다섯 살이 된 지금에서야 복귀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재즈 공연은 주로 밤에 이뤄지기도 하거니와 지방

해가 짧아져 다섯 시만 되어도 밖이 어두컴컴하다. 하지만 원익아이피에스 유진혁 과장의 눈은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다.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던 그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가족과 함께 어느 재즈바로 향했다.

아들 밥 먹이고 나면 제 밥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밥. 저녁마다 세 번씩 상을 차려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아이도 컸고 남편도 일찍 돌아오니 셋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식사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하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나날들. 이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 더 사랑하고 돈독해질 수 있게 됐다.

아빠는  
이제  
같이 자유



엄마의 노랫소리에 맞춰 흔들흔들 엉덩이를 들쭉이며 박자를 타는 태오 군.



공연도 잦은 탓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쉽사리 복귀하기 힘든 상황. 그간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언제까지 손을 빌려야 할지 걱정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유 과장과 육아 바통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말 다행이죠. 늘 장모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한결 덜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커리어가 단절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족 모두가 선아 씨의 성공적 복귀를 축하하는 날. 사보팀도 축하의 마음을 담아드리기 위해 아내분에게 드릴 꽃다발과 태오군에게 줄 장난감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아내의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유 과장은 설렘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해 보였다. 유 과장, 선아 씨, 태오 군 그리고 장모님은 먼저 축하의 의미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크로켓, 스파게티, 리조또 등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도란도란 추억 이야기가 피어올랐다. “당신, 연애할 때는 내 공연 출석률이 거의 90%였잖아. 지방까지 와서 봐 주고. 이렇게 있으니까 꼭 그때 생각이 나네.” 유 과장은 짐짓 부끄러운 듯 “태오야, 오늘 엄마 진짜 멋지다 그치?”하며 화제를 돌린다. 웃음으로 가득한 식사 중, 선아 씨는 슬슬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걸 두걸 쌓인  
가족의 시간은 애정과  
신뢰를 품고  
행복의 역사를 만든다.

PM 7시. 피아노와 드럼, 베이스와 탭댄스에 맞춰 선아씨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운다. 이끌리듯 들어온 손님들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지인들로 자리가 채워지고 공연은 점점 뜨거워진다. 태오 군은 반짝이는 눈으로 탭댄스를 따라 하다 이내 머쓱하며 재롱을 부린다. 그런 태오 군을 바라보는 유 과장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아내의 공연을 아들과 장모님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그에게는 어떤 영화보다 감동적인 장면이다.



아내의 꿈,  
응원합니다.



함께 만든  
우리가족의 무대

30분간의 공연이 끝나고 유 과장은 박수와 함께 무대에서 내려오는 아내에게 준비한 꽃다발을 건넨다. “수고했어. 앞으로도 같이 멋지게 살아가자.” 선아 씨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감동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꽃다발을 품에 안았다. 태오 군 역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뼉을 치며 함께 축하했다. 연신 딸 선아 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던 장모님도 이 아름다운 장면을 눈으로 꼭꼭 담으셨다.

자신만의 막보름  
그러나가는 가족의 하모니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다.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은 슬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태오 군은 졸린 듯 연신 눈을 비비다, 사보팀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자 언제 잠이 왔었냐는 듯 활짝 웃으며 “얼른 집에 가서 풀어보자!”고 아버지를 재촉했다. 서로의 얼굴을 깊이 또 깊이 마주하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큰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 가족.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들에게 준 것은 그저 소소한 몇 시간일 뿐일지라도 아들의 웃음, 아내의 꿈, 장모님의 휴식 그리고 유 과장의 행복은 그 시간 안에서 하모니가 되어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W**

# 투철한 혁신의지로 한계를 깨트리다



주어진 여건은 대동소이했다. 그렇기에 제조기술팀이 제조 혁신 활동에 돌입했을 때, 대부분이 반신반의했다. 그럴수록 최광업 부장은 이를 악물고 혁신에 매달렸다. 그 결과 생산량과 매출액, 납기 대응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투철한 의지와 꼼꼼한 실천으로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치열한 일상’으로 거둔 결실 ————— 원익인상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룹에서 제일 큰 상인 원익인상이기 때문이지요. 수상 소식을 접한 직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저를 이끌어 주신 박성기 부사장님, 자재 공급 및 외주 작업 확대에 도움을 주신 구매1팀 김성균 부장, 품질 향상에 힘써 주신 김태운 상무님 등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저를 묵묵히 믿고 따라와 준 제조기술팀 팀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 하나,  
바로 ‘납기 준수’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반도체 설비를 제작하는 제조기술팀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재 입고, 조립, 테스트, 출하에 이르는 반도체 설비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조 일정 관리, 생산 관리, 인력 관리, 외주업체 관리, 제조 공간 확보, 유관 부서 의견 조율 등을 두루 조율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납기 준수’입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사에게도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자재가 제때 입고되지 않았든지, 조립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특정 파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수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이 문제들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야 설비를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덕분에 종종 피곤하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납기를 준수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보람과 희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처럼 치열한 일상이 모여 원익인상이라는 훌륭한 결실로 맺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생산량 증대로 ————— —— ‘긍정적 도미노 효과’ 불러오다

제가 원익인상을 수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 증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도 제조기술팀의 최대 생산량은 한 달에 14대였는데요. 작년에는 이를 25대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SOP(표준작업서)의 충실도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작년 초에 GEMINI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SOP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한 SOP를 바탕으로 단순 조립 작업을 적극적으로 외주화했습니다. 협력업체에 직접 방문해 수시로 현장 지도를 실시했고, 제작 관련 설비는 저희가 지급하거나 외주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했죠. 한편 외주화를 통해 생긴 시간을 테스트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제작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대 생산량을 25대로 늘렸고, 2017년 7월 24대를 제작함으로써 이를 증명했습니다.

최대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 납품 대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2대를 더 납품했습니다.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770억 원에 달하죠. 제조기술팀이 회사의 성장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대표적인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평가 결과 납기 대응력 부문에서 우리 회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것은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때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결국 납기 대응력 1위 소식은 곧 우리 회사에 대한 삼성전자의 신뢰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기 준수를 제조기술팀의 모토로 삼은 보람이 있었던 셈이죠. 물론 여기에는 구매팀의 자재 조달 능력과 협력업체의 조립 완성도 등 주변의 많은 도움이 두루 녹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조기술팀의 업무를 도와주신 유관 부서와 협력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익인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직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냉철한 질책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 ‘원익인상 수상자’라는 ————— 자부심으로

우리 회사의 반도체 설비는 미리 만들어 놓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객사의 발주에 맞춰 제작, 납품하는 주문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죠. 또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납기가 변동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고객사가 설비를 월요일에 받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조기술팀 직원들은 2교대 근무나 주말 근무를 자주 합니다. 업무 강도가 상당히 센 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하나같이 웃으면서 일합니다. 회사의 주력 제품을 내 손으로 생산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팀워크 덕분입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순간에는 언제나 든든한 동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제반 여건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 최대 생산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었고, 이에 걸맞은 납품 대수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에 보답하기 위해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볼링·스크린 골프·영화 관람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팀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팀원들에게 고맙고도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받은 원익인상은 우리 팀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대 생산량 확대와 납기 준수에 업무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질 차례입니다. 점점 강조되고 있는 고객사의 TTTM(Tool To Tool Matching)을 충족시키기 위해 테스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테스트 효율을 높이는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껏 굵은 땀방울을 흘린 팀원들에게 설 새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땀 흘리는 만큼, 회사와 우리 자신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아가미 선사하는 충만감을 만끽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익인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직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냉철한 질책,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W**

밥한번먹어요

WONIKIN v.57 — BECOME ONE



구루메 스시

고급 스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 12석의 작은 규모로 예약을 통해 프라이빗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시계 소블리에 자석이 있는 주방장의 추천을 통해 입맛에 알맞은 시계를 추천받을 수 있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7 T.02-517-0709

GOURMET



# 원익을 지키는 사람들

## 그들이 나눈 정갈한 이야기

이제 막 겨울이 실력 발휘를 하려는 듯, 창밖으로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곳은 날씨를 뚫고 고급 스시 전문점에 모인 이들은 원익의 준법경영 팀. 각 계열사에서 모인 이들은 첫인사를 나누자마자 궁금한 게 많았던지 금세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냈다.



**임우석 상무\_ 원익홀딩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익홀딩스의 기획조정실 준법경영팀 임우석입니다. 특히, 인수합병 등 법률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입사했어요. 입사 시기로 본다면 제가 가장 신입이네요 하하.

**김영준 부장\_ 원익아이피에스**

우리 김진욱 사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많이 배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욱 사원\_ 원익아이피에스**

아이고, 제가 가장 막내죠 상무님. 저는 제작년 원익아이피에스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준법경영팀 김진욱 사원입니다. 김영준 부장님께 계약서나 실무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대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승일 과장\_ 씨엠에스랩**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배우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씨엠에스랩 영업 1팀 소속 장승일 과장입니다. 현재 법무 쪽은 저 혼자 맡고 있기에 자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의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뵈게 되어 기쁩니다.

**황홀한**

우리만 아는 황홀한 순간이 있죠.

**임우석**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법률 이슈에 개입하고 소송을 맡는 건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씨엠에스랩과는 꽤 큰 차이가 있죠. 저희 계열사의 대부분은 B2B고, 씨엠에스랩은 B2C이니까요.

**장승일** 맞습니다. 저희 외의 계열사들이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 소송, 합병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희는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 개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루는 분야가 조금은 다르죠. 특히나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허와 관련된 업무도 많은 편입니다.

**김영준**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특허는 필수 업무죠. 소송이 잦은 분야이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저희 팀도 초기에는 법무 특허팀으로 시작했다가 회사가 성장하며 17년도에 준법경영팀이 되었습니다.

**김진욱** 법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는 역시 승소했을 때 아닐까요? 물론 법적 이슈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슈가 터졌을 때, 팀이 하나가 되어 이기기 위해 애를 쓰고 그 노력이 승리로 돌아간다면 그 황홀함은 말로 다 못할 거예요.

**김영준** 저희 원익아이피에스도 3년간 진행됐던 이슈가 있었어요. 상고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단계씩 밝아 나갈 때마다 논리를 찾고 대응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피로우면서도 팀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죠. 결과는 승소였어요. 제가 직접 법원에 가진 않았지만 '땡땡'하는 법봉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장승일** 저는 법원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소액재판이기도 하고 대리인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 보통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넓은 재판장에 판사가 계시고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도 법학과 출신이 아닌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법원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긴장했죠. 하지만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길어도 10분 내로 끝나더라고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더 금방 끝나요. 대부분 명백한 자료가 있고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번 승소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임우석** 저는 올해 9월에 미국의 모멘티브 퀴즈 사업부를 인수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익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공한 건이거든요. 모멘티브는 실리콘, 석영 등 재료를 공급하는 파트너서 세계 1위인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KCC 등의 회사와 원익큐엔씨가 나눠서 인수하게 된 건데, 이 인수 계약이 역대 국내 기업 해외M&A거래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해요. 워낙 큰 건이다 보니, 중간에 워낙 거쳐야 할 단계도 많았고 해외 변호사 등과 소통해야 할 부분이 많았죠. 그럼에도 실수 없이 모든 단계를 잘 지나온 덕에 지난 9월 13일,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습니다.



# 행복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행복합니다.

**장승일** 말씀드렸듯,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라 처음 법무 쪽 업무를 할당받았을 때 무척이나 난감했어요. 세무와 관련된 일이 아닌 그것도 법 관련 분야를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듣고 무작정 발로 뛰며 자문을 구하려 다녔죠. 하면서도 '계속해도 되는 걸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4-5년 정도하다 보니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하는 자부심도 들고 경쟁력도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씨엠에스랩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저도 발맞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점점 더 욕심이 생깁니다.

**김영준** 저희는 얼마 전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가 있었 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얼마나 서로 상생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평가죠. 올해 처음 실시된 평가라 일주일 전부터 엄청난 양의 서류를 되짚어보고 준비한다고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일에 평가 사무관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했죠.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 조금 많이 긴장했었나 봐요. 생각보다 단출하게 진행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성적은 잘 나왔지만 다음에 또 평가가 있다면 그뻘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임우석**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티브 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약서 상 사인은 끝났지만 갈 길이 멀어요. 허가받을



것도 많고요. 미국은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해외로 팔 경우에 기술유출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해요. 현재는 중국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내년까지는 각종 승인을 받고 사업부문을 나누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야겠죠.

**김진욱** 현재 저희는 원익테라세미콘과의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합병이 되고 나면 저는 아마 신입사원과 저희 회사로 흡수되는 사우들의 준법교육, 직무교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원활히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시간

부드러운 남자들의 즐거웠던 시간

조금은 딱딱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시간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 고대하던 만남이었던 만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탁구공처럼 빠르게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준비된 스시가 마르지 않을까 걱정이 될 만큼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김진욱 사원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각 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을 할 때는 철저하지만 웃음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죠."라고 말하자 곧바로 김영준 부장이 "그래서, 진욱이 결혼은 언제 한다고?"라며 받아쳤다. 다들 와하하 웃으며 술잔을 채우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주제로 이어 나간다.

최전방에서 원익을 지키며 틀을 잡아 나가는 이들.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때로는 같은 업무를 하며 비슷한 성취와 기쁨을 느끼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이들이 있기에 원익은 오늘도 평화롭다. **W**

임우석 상무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각자 취향에 맞는 사케를 한 모금씩 즐긴다. 오늘의 건배사는 "원익은 하나!"



한 마디에, 뻘은 손을 다른 한 마디가 잡아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원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이들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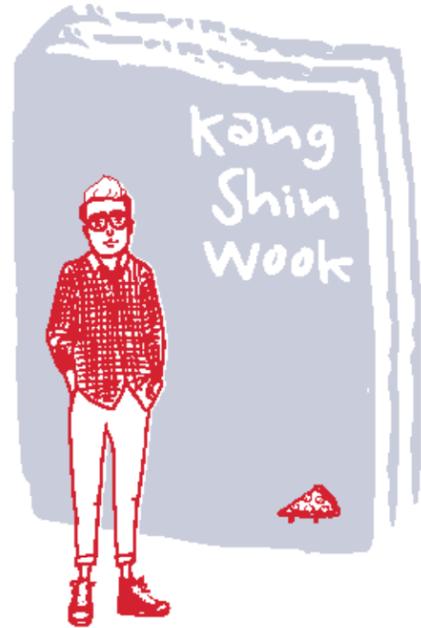
#10

'나'라는 브랜드

열번째 - 원익인명사전

# 강신욱 과장

(주)원익 부품소재사업팀



- 나의 SNS에 가장 흔한 사진은 1 **골프선수**
- 가장 즐겨찾는 점심메뉴 2 **판교본사 식당이 대체로 맛있어서 다 좋습니다.**
- 내가 인정하는 나의 좋은 점 3 **긍정적, 꼼꼼함**
- 요즘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 4 **여자친구(예비 신부님)**
- 돌아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그 시절 5 **고2때로 돌아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보고 싶습니다**
- 남들이 모르는 나의 숨기고 싶은 모습 6 **딱히 없는거 같네요**
- 스트레스 받으면 하게되는 행동 7 **가벼운산책 또는 맛있는 음식먹기**
- 지금까지 가장 잘했다고 여기는 초이스 8 **가장 탁월했던 선택은 공연입니다. 8년차 인데 인생이 달라집니다.**
- 최근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책으로는 9 **12가지 인생의 법칙(저자:조던 피터슨)  
영향력과 인기를 겸비한 지식인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마지막, 사실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이것 10 **멋진 슈트와 구두**

#11

- 나의 최신 업데이트 SNS 컷 1 **해외여행지에서 배경이 부각되고 내 모습이 은은하게 걸친 사진**
- 생각없이 찾게되는 점심메뉴 2 **초밥&우동(간단하게 먹을수 있으면서 든든한 점심!)**
- 최애 나의 메리트 3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 요즘 나의 기쁨을 독차지하는 물건 4 **아이폰Xs 기기변경.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은 너무 작았었음(아이폰SE)**
- 과거로 가고 싶은 시간은 5 **지난주 금요일 (로또번호 외워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 남들이 하나도 모르는 나에게 대한 것 6 **의외로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
- 스트레스 받고 내가 하게되는 행동은 7 **잠을 푹 자요. 자고나면 잊혀지거든요.**
- 지금까지 가장 잘했다고 여겼던 선택 8 **여자친구를 만난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 최근 흥미로웠던 영화는 9 **국가부도의날 - 유아인**
- 마지막, 내가 사실 원하는 것은 이것 10 **갤럭시탭 S4. 요즘 핫한 zini PC입니다.**



얼리어답터로 존재감 드러내기

열한번째 - 원익인명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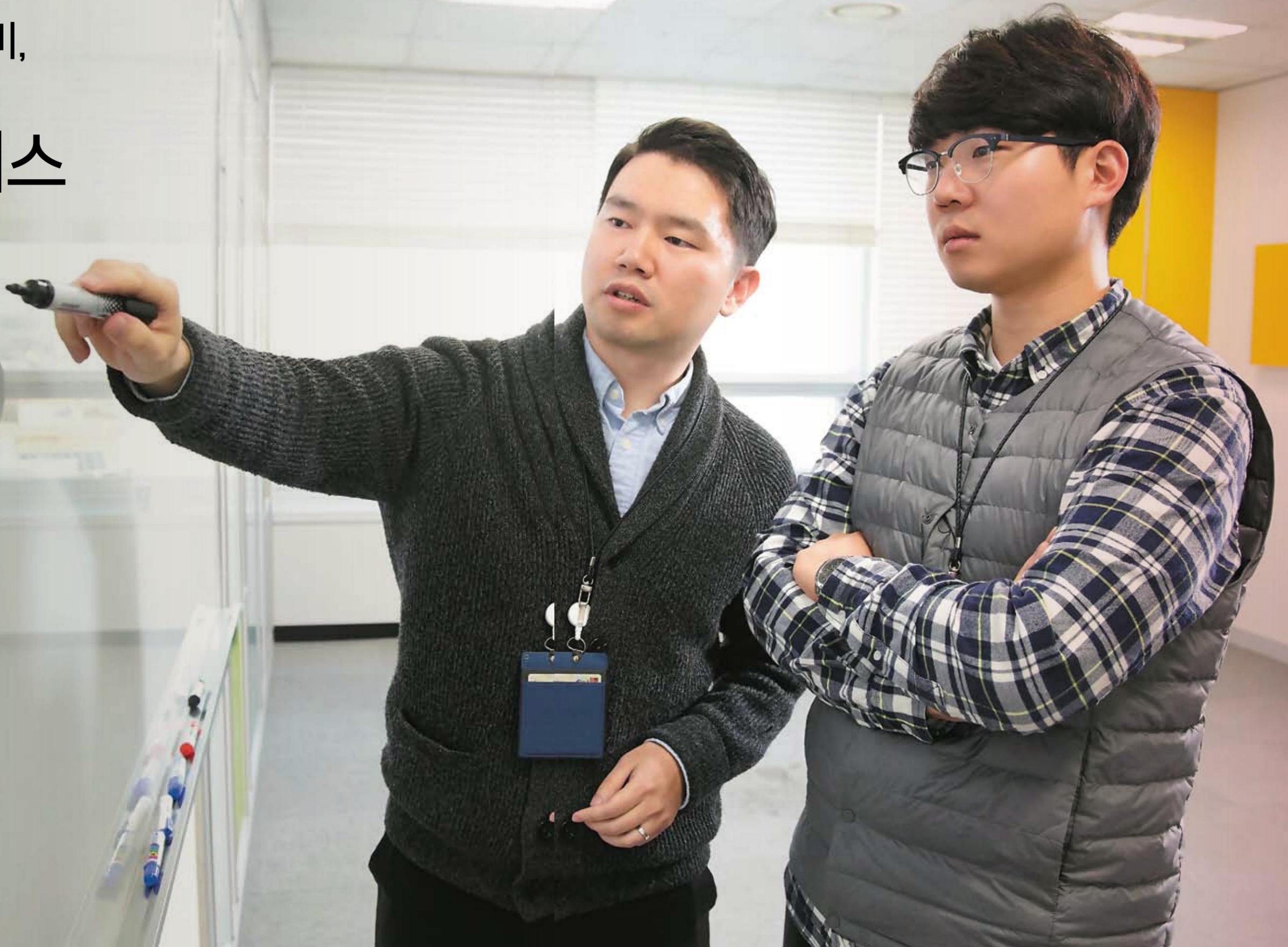
# 김재혁 사원

(주)원익 경영지원팀 - 900603 - 쌍둥이자리 - 긍정적인 O형 - 빛을 실어 온다는 이름 의미

# 환상의 콤비, 우리는 민 브라더스

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S W 팀  
S W 기술 1 파트

멘토 천경민 대리  
멘티 고훈민 사원



서로의 얼굴만 봐도  
빵하고 웃음이 나오는 사이.

**원익아이피에스의  
천경민 대리와 고동민 사원은  
만난 지 4개월 만에  
환상의 콤비네이션을 뽐내며  
업무에서도, 일상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자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

**콤비네이션(Combination):**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가 하나의 안정한 물질을 이루는 것.  
이 두 사람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다.  
조금의 불안정함도 없이 완벽한 관계를 이룬 멘토와 멘티.

사실 제게 멘티가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올 게 와버렸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멘토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거든요. 제가 누군가의 멘토가 될 준비가 되어있는지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동민 사원을 처음 본 순간, 제가 첫 입사했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하는 눈빛, 열정이 담긴 행동들을 보니 책임감이 생겼어요. 멘토링이라는 기회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천대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업무에 관한 걸 주로 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입사원인 저를 전담마크해서 업무에 완벽히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업무는 물론이고 제 멘탈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주시더라고요. 늘 힘들진 않은지, 고민은 없는지 살펴주세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그 때부터 사회인이잖아요. 일상이 180도 달라지는 건데, 그런 작은 부분까지 케어해 주셔서 업무, 일상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멘티가 생기면 꼭 대리님처럼 해주고 싶어요.

과거의 나, 미래의 나



저희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CVD MOLD공정 설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더불어 고객사에서 이 설비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A/S가 필요하다 하시면 그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일도 하죠. 한 마디로 개발부터 A/S까지 모든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과정과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주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쉽게 이해할까, 어떤 단계부터 알려줘야 할까 생각하다보니 늘 하던 업무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고 사원은 이해력이 무척 좋아서 금방 배우고 업무에 대한 열의가 높아요. 입사 6개월 차인데 벌써 제 업무를 나눠할 수 있을 정도예요. 고동민 사원! 더 가르칠 게 많다. 하산하거라(웃음).

에이, 대리님 저 아직 부족한 거 많아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고객사에서는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제 실수로 설비가 멈춰버리면 고객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천 대리님은 늘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명심하고 또 명심해도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데 천 대리님은 제가 사고치기 전에 먼저 점검해 주시고 곁에 와서 도와주세요. 덕분에 업무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강해지는  
하나일 때 더

시너지



충분히 잘 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대리님과 작은 세대 차이조차 느껴본 적 없어요.  
그만큼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다는 거겠죠.



사랑과 함께 커가는 귀인

고동민 사원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제게 찾아온 '귀인' 이예요.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저승차사들이 귀인을 환생시켜주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본인들도 한 뼘씩 성장하잖아요? 귀인이 환생에 성공하듯, 고 사원도 언젠가 제 곁을 떠나겠지만 어엿한 반도체 전문가가 되어 스스로 받을 딴고 설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주고 싶어요. 더불어 저도 제가 지금 있는 반도체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 있는 건 다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원의 아이피에스는 사원의 의지를 이해해주고 지원도 아끼지 않는 곳이기엔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천경민 대리님은 그야말로 '사랑'이예요. 일에 대한 애정, 가정에 대한, 후배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분이시죠. 올해 태어난 딸 이름도 '사랑'이예요(웃음). 저는 무척이나 사랑 받으며 일을 배우고 있다 생각하는데 대리님은 늘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세요. 대리님! 대리님의 그 애정 어린 잔소리가 제겐 양분이 된답니다. 그러니 계속 잔소리 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일을 열심히 배워서 원의아이피에스에서 저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갈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멘토와 멘티로 만나 동반자가 된 천경민 대리와 고동민 사원.  
이들은 먼저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여기서 나온 에너지는 한 사람에게겐 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다른 한 사람에게는 사회로 던지는 발판이 되었고 시너지로 푹푹 뭉친 콤비를 만들었다.  
아주 먼 훗날, 부대찌개 가게를 차리고 싶다면 우스갯소리를 하는 천경민 대리.  
그리고 그 곳이 어디든 천대리를 찾아가겠다는 고동민 사원. 자석 같은 이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환상의 콤비네이션은 원의아이피에스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W

# 작은 조각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이 되다

원익큐엔씨 세정사업본부

오목한 조각과 볼록한 조각이 만나 합을 이루고 그 합이 모여 멋진 그림이 된다.  
각각의 조각이 꼭 맞아야 가능한 일. 억지로 끼워 넣으면 부서지고 구멍이 생긴다.  
원익큐엔씨의 세정사업본부 생산팀은 각각의 조각을 모아 완벽한 그림을 완성했다.



구미에 위치한 원익큐엔씨 세정사업본부는 2011년 2월에 설립되어 이제 갓 초등학교가 될 나이다. 이곳 생산팀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LPCVD(박막증착) 설비의 주요 부품인 Quarts, SIC 등의 정밀세정을 담당하고 있다. 정밀세정이란 반도체, Display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막질 및 미세 오염 물질을 장비에서 제거하는 공정으로 반도체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원익큐엔씨 세정사업본부 생산팀은 이 공정에서 기술력과 품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계 강호다. 현재 사무직은 팀장 1명, 장비 기술 1명, 공정기술 1명, 생산관리 2명으로 운영되고 현장에는 27명이 일하고 있다. 총 32명으로 이루어진 생산팀. 그 중 사무직의 다섯 사우를 만났다.

## 기술력과 품질 1위



[힘들 때일수록 맞잡은 손을 더욱 굳건히 하는 원익큐엔씨 세정사업본부 생산팀.](#)  
[마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듯.](#)  
[서로의 말에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신뢰가 보인다.](#)

[2019년은 저희의 해가 될 겁니다.](#)  
[힘들 때도 이렇게 힘이 잘 맞는 팀인데 추진력이 붙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수직선을 그리며 성장하리라 봅니다. 아, 그 전에, 2018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고 누구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고 적응도 잘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 최근 우리 팀의 이슈는 무엇 일까요?

**변경훈 부장** 올해 초, 원익큐엔씨에서 반도체 세정 업체인 나노윈을 인수했습니다. 또 중국 시안의 세정 사업장도 삼성의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팀의 서보형 과장이 안성에 위치한 나노윈과 중국 시안을 오가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생산도 마찬가지로 현장 작업자들이 올해 초부터 나노윈 쪽을 지원 중입니다. 기술 지원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게다가 세정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 세정품 외에 신규 제품의 세정 기술력도 확보 중에 있죠.

**최용재 과장** 업무 외적으로도 이슈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꿀 떨어지는 새신랑입니다. 하하. 저 외에도 현재 결혼 적령기인 사우들이 많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결혼식이 쭉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보형 과장** 그럼 저도 빠질 수 없죠. 얼마 전에 집을 샀거든요. 더 열심히 일 할 동기가 생겼죠. 그런데 집을 사고부터 출장이 잦아져 아직 집에 적응을 못한 게 아닌가 (웃음). 모레도 시안 출장이 잡혀있습니다.

## 촉촉한 커뮤니케이션은 생산팀의 자랑

**김동현 대리** 세정사업부가 규모는 작은 편인데 대신 업무에 대한 공유가 빠릅니다. 업무적으로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소통하기 때문에 진행이 딜레이 되지 않죠. 바로 옆에 앉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말 대신 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바로 담당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일 경우, 기록은 당연히 하고요.

**변경훈 부장** 저희 사무실을 보시면 직급별로 자리를 나누지 않았어요. 자리가 섞여 있죠.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하는 사람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품질팀도 함께 앉고 있어요. 생산과 품질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자리 분배는 업무, 성격, 소통 능력 등을 고려해 저와 품질팀 팀장님이 결정합니다.

**양서윤 대리** 저희 생산팀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반대로 팀원들도 회사 업무에서 바뀌어야 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해 환경을 개선해 나갑니다. 소통에 장애물이 없기에 가능한 일 이죠.

## 우리 팀원이라면 꼭 가지고 있는 이것!

**변경훈 부장** 화합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제가 능력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조직에 화합이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회의 시간에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도 됩니다. 과장하자면 싸워도 괜찮아요.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라면요. 다른 팀과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닫고 나온 후에는 모두가 하나로 화합해 거기서 나온 결정을 실행하는 데에 집중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서보형 과장** 프로의식입니다. 위에서 부장님이 말씀하셨듯 현재 나노윈과 시안 공장의 확대로 인력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 모이는 일도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패널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프로의식이 굉장합니다. 고객사에서 가끔 생산과정을 보러 오시는데 보통은 이런저런 지적을 하시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지적할 거리가 하나도 없으며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품질과 기술 방면에서는 당당하게 1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프로 중의 프로입니다. **W**

#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 변경훈 부장

나노원은 아마 내년 2-3월이면 안정이 될 것 같고, 시안 공장도 3-5월 안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물량도 많아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겠죠. 지금은 우리 팀원들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바쁘지만 장기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이기에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서보형 과장

우리는 현재 맡은 바 업무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성장에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제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회사는 이제 큰 성장을 앞두고 있고 인재를 필요로 할 텐데 우리가 그 몫을 다 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 최용재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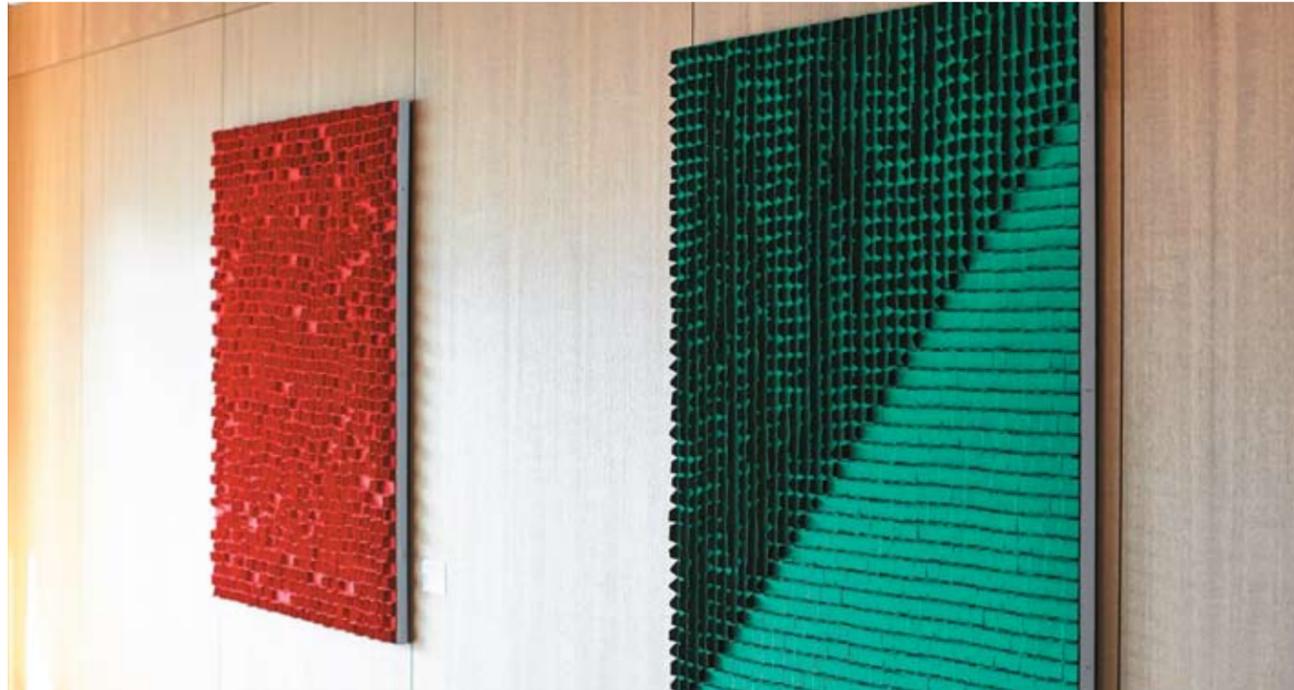
기술력과 품질에서 1위지만 아마 3-4년 내로는 매출까지 국내에서 탑 2위까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 1위가 되는 게 목표고요. 아마 국내 1위면 글로벌 1위가 될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 저희 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고 있죠.

# 우리는 비상 중이다

Nam Tchun-Mo, 南春模

원익 판교 사옥 8층, 남춘모 작가의 세계를 마주하다.

## 아지랑이와 같은 향기



“나의 작업은 개인적으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은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런 분명한 물질감 너머의 향기가 투명한 것 너머에서 배어나는 색채감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

나는 천으로 된 부드러운 소재에 투명 합성수지를 발라 응고시키고 ‘U’자 모양의 구조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U’모양의 재료를 캔버스 위에 일정한 배열에 따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아크릴 물감으로 전체를 칠한다.

캔버스라는 평면 위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 하고 그 속에서 빛과 그림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우연’을 즐긴다.

‘선에 대한 기억’을 구성하는 드로잉의 선들이 결국 공간 속으로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거꾸로 한 공간으로부터

어떻게 미술의 무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지,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 속의 아지랑이 향기를 어떻게 조형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작업의 목적이다.”

-작가의 글 중에서-

남춘모는 선 그 자체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펼쳐왔다.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한국적 미를 보여준 작품세계를 원익 판교사옥 8층 대회의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Beam’은 건축용 내장 철골을 뜻하는데, 이는 선의 구조적 특징이 현대산업사회를 구성하는

본질과 닮았다고 바라보는 작가의 개념을 잘 드러낸다. **W**



남춘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  
원익사옥 8층 대회의실

캔버스에 혼합매체(mixed media on canvas)  
116 x 100 cm

Beam 2013



출생 1961년 경북 영양  
1982-1988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 대구 및 독일 쾰른을 오가며 활발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리움-삼성 미술관, 미술은행, 원익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제26회 금복문화상(2012), 제10회 하중현미술상(2010)을 수상했다.

당신의 미래에  
제가 함께라면  
영광이겠습니다.

같이 꿈꾸고  
나아가겠습니다.

# 서하게

저는  
여러분의  
원익입니다.

원익은 지금 ❶

# 2019년, 하나 되어 나아 갈 원익의

# 해

13개 계열사의  
새해 다짐

WONIKIN v.57  
—  
BECOME ONE

### 원익투자파트너스

“저희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작년에 이어서  
흑자구조가 생겼습니다.  
현재 벤처캐피털의 중위권이지만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 원익큐브

“원익이 백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원익홀딩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협력이 필요하죠. 변화와 도전을  
즐기는 조직문화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익아이피에스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원익아이피에스와  
원익테라세미콘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경쟁력 확보, 고객들의 높은 평가,  
경영 전반의 불합리를 제거해 2020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원익아이피에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원익테라세미콘

“원익아이피에스와 시너지를 내서 미래 글로벌 1위 회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원익엘앤디, 하늘물빛정원

“지금까지 저희 서비스계열이 반도체로 성장하는  
원익의 도움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원익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원익을 만들겠습니다.”

### 원익로보틱스

“작년을 밀거름 삼아 올 2019년에는 국내 최고의 자리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정신으로 푼뜰 뭉쳐 힘차게 뛰겠습니다.”

### 원익머트리얼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힘을 합쳐 원익 그룹 전체가  
함께 발전하길 바라며 원익머트리얼즈 역시 그룹에  
공헌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원익큐엔씨

“2019년은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튼튼한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 1위를 목표로 열정적인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 위닉스

“매년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성장하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 왔습니다. 올해 역시 직원들과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위닉스가 되겠습니다.”

### 씨엠에스랩

“2018년 소비자 시장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2019년은 이를 지속하며 더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젊은 역동성으로 언제나 성장하는  
씨엠에스랩을 만들겠습니다.”

### 원익

“변신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올해는 무엇이 되었든 변신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1월 2일,  
새로운 해에 들어선 원익인들이  
원익 판교 사옥 로비에 모였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문을 닫고  
나아갈 2019년을 다짐하기 위해서다.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는 이용한 회장,  
이문용 부회장을 포함해 각 계열사의 대표와  
임직원, 공채 5기 신입사원까지 참여해  
2019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하는  
당부와 포부를 나눴다.



## 2018년을 이끈 원익인에게는 감사를

첫 번째 순서로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원익을 빛낸 이들에 대한 시상식이였다.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랑프리, 기술 개발상, 공적상, 혁신상 부문이 정해졌으며 최고의 성과를 올린 6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원익인상 최고 등급인 그랑프리의 영예는 SKH 신시장 개척으로 최대 매출을 달성시킨 원익아이피에스 나민권 상무, 이승환 부장 외 41명이 수상했다. 공적상 우수상은 원익큐엔씨 홍정우, 이근하 부장과 씨엠에스랩 김규섭 부장 외 4명이, 기술개발상 우수상은 원익아이피에스 나경필 부장 외 5명과 원익테라세미콘 박성철 부장 외 12명이, 마지막으로 혁신상 우수상은 원익테라세미콘 허관선 부장 외 9명이 수상했다. 수상자를 대표하여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나민권 상무가 소감을 전했다.

“너무나 큰 상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이룬 것은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오신 신입사원 여러분께서 이 상을 수상할 때에는 부상에 0이 하나 더 붙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2019년을 이끌 원익인에게는 격려를

다음은 신규 임원 및 승진 임원 사령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원익아이피에스의 박성기 사장, 씨엠에스랩 이진수 사장이 임명되었고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원익큐브 문경수 부사장이 승진했다. 상무에서 전무로는 원익아이피에스 김민 전무 외 3명이, 신규 임원으로 원익큐엔씨 이정구 상무 외 7명이 임명됐다. 이들은 새로운 해를 새로운 직책에서 시작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원익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자리에 모인 원익인들은 이들의 출발을 응원하며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후 이문용 부회장의 이임사가 진행됐다. 이문용 부회장은 올해부터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게 되어 부회장 자리를 이임하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와 당부를 전했다.

“원익이 발전해온 발자취를 쫓 돌아보니 참 자랑스롭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감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이용한 회장님 그리고 제 뒤를 묵묵히 따라와 준 원익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너그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원익인들은  
 지난해를 곱씹어 보고 올해의 다짐을  
 되새기며 조금씩 미래를 그려 나갔다.  
 그들이 완성할 2019년은 어떤 그림일까?  
 닦쳐오는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발전하여 2020년의 오늘도 함께 웃으며  
 다음 해를 그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쉽지 않을 미래,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역사이며, 다가오는 시간은  
 희망이다. 2019년, 희망의 변곡점에서 서 있는  
 원익인 모두를 응원한다.”

이용한 회장은 신년사에 앞서 작년은 무척이나 힘든 해였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방해 이겨낼 수 있었다며 임직원들을 치하하고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작년도 어려웠지만 내년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 반도체 업계에서 불황이라는 말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발전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 모든 계열사가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기업문화의 정착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감도 설명했다.

“정의, 공정, 사랑 그리고 자유, 소통, 행복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일하며 주변을 돕는 원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사랑받는 원익을 만들어 갑시다.”

임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고 신년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로 대답을 대신했다. 각 계열사 대표들도 차례대로 새해맞이 인사와 앞으로의 포부를 전달했는데, 모든 원익의 계열사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확신하며 원익의 이름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공채 5기 신입사원들과의 첫 만남이 진행됐다. 6000여 명의 지원자 중 최종 합격한 95명의 신입사원이 설렘과 긴장을 안고 단상 위에 올라 선배, 상사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남다른 열정과 끈기 없는 도전정신으로 업무에 임하며 이 초심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익의 핵심가치 자유, 소통, 행복을 몸소 실천하며 원익에 도움이 되는 참된 원익인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원익인들은 큰 박수와 호응으로 이들을 환영했다.



# 밀고 당기고 심호흡, 건강하게 일합시다!

## 오후 세시

11월 23일 금요일, 원익 홀딩스의 사우들이 평소보다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했다. 유연한 업무를 위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날이기 때문. 사우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팔다리 근육을 쭉 뻗기도 하고 웅크리기도 하면서 굳은 몸을 조금씩 펴 나갔다.



원익홀딩스의 사우들이 하나 둘 씩 자리에서 일어나 1층의 강당으로 향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가 매트와 이들의 찌부둥한 몸을 책임질 성균관 대학교 이기현 스포츠 외래 교수. 이 교수는 원익홀딩스 사우들에게 직장인들을 위한 체형교정 즉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처방했는데, 업무 특성상 오래 앉아있다 보면 코어(허리와 복근)가 쉽게 약해지고 코어가 무너지면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한다. 더불어 엉덩이근육 역시 골반과 척추를 잡아주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하체운동과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 목, 어깨, 허리 돌리기, 선 채로 땅 짚기 등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이후 점점 난이도를 높여 한쪽 다리씩 들고 윗몸일으키기, 스쿼트 등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새어나온다. “오아, 배 당겨!”, “아이고, 선생님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교수는 아랑곳 않고 사우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세를 교정해 준다. “다들 할 수 있어요. 자, 심호흡 길게 후~ 뻗으면서 하나 둘” 흐트러짐 없는 구령에 사우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은 듯 열심이다. 어느새 싸늘했던 강당이 열기로 가득 찬다. **W**

긴장된 업무의 연속, 덩달아 긴장했던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시간



긴장된 업무의 연속으로 찌뿌둥한 몸, 겨울이 되면서 더욱 움츠러든다.  
이곳저곳이 아파오기 전에 조금씩만 움직여보자.



## 몇 번의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만으로 반듯한 몸을 완성하다

###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우들의 소감 한 마디

#### 김봉섭 대리(구매팀)

바쁜 업무 탓에 건강에 소홀했는데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 마련해 주어 조금이나마 몸을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이혜린 사원(재무팀)

전문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니 운동하면서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알려주셔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훈 과장(재무팀)

건강증진프로그램 덕에 회사에 활력소가 생긴 것 같아요. 더불어 식곤증이 몰려오는 점심시간 이후에 운동을 하게 되니까 졸음도 달아나고 좋습니다.



#### 유소연 대리(구매팀)

처음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무척 힘들었어요. 게다가 다음날 근육통까지 찾아와 '아, 내가 운동부족이구나'하고 깨달았죠. 건강의 중요성과 운동 의지를 일깨워준 뜻깊은 시간이네요.



#### 김유성 과장(기술연구소)

몸이 힘들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곤 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정신을 모두 유연하게 풀어준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을 정도예요.

중심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이를 악물며 마지막 한 번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 간단해 보여도 오랜 시간 앉아 일하는 우리들에겐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이다.



한 시간여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기현 교수는 누구나 사무실에서도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 2 가지를 소개했다. 흉추 가동성 운동, 오버헤드 스쿼트. 이 두 가지만으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니 새해부터 열운동 어떠세요

1



고수지 대리 - 인사팀

따라해봐요

고정된 자세일 때  
쉽게 굳어지는 흉추를  
유연하게 해 주는

### 흉추 가동성 운동

2



무릎이  
얼었다  
...

- 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은 직각으로 세운 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 ② 왼쪽 팔을 펴며 몸을 연다. 이 때, 견갑골(날개 뼈)의 힘으로 최대한 몸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
- ③ 호흡은 몸을 돌리며 내뱉고 원상복귀 하며 들이쉰다.
- ④ 무릎은 고정 상태를 유지. 무릎이 몸과 함께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
- ⑤ 시선은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 ⑥ 10회 반복 후 반대로도 10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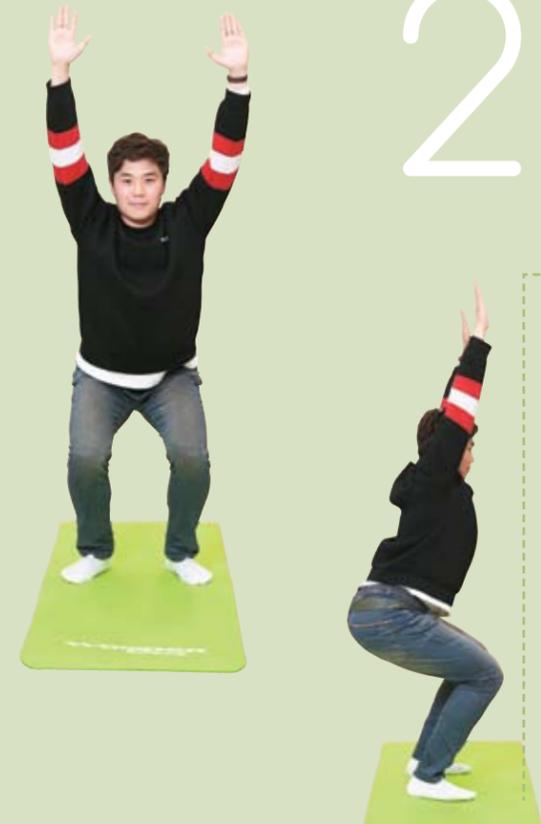
김정운 사원 - 재무팀

따라해봐요

허리와 하체 근육을 강화해  
척추교정에 도움이 되는

### 오버헤드 스쿼트

2



벽이 있다  
벽이 있다  
벽이 있다  
...

- 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 팔은 만세를 하듯 위로 뻗는다
- ②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천천히 앉았다 일어난다
- ③ 이 때,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과 팔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 ④ 앉으며 길게 숨을 내쉬고 일어서며 들이쉰다
- ⑤ 자세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벽을 마주보고 하도록
- ⑥ 10회 씩 3세트 진행



## 원익큐엔씨, 미국 퀴츠 및 실리콘 업체 모멘티브社 인수

2018. 9. 14 판교사옥



원익QnC(대표 : 임창빈)는 KCC 및 SJL Partners와 공동으로 약 3.5조원 규모의 미국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즈(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Inc., 이하 모멘티브)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거래는 모멘티브와 M&A에 대해서 다년간 타진, 협의한 바가 있는 원익그룹이 동사의 퀴츠 사업부문에 대한 인수를 협의하던 중 재무적 투자자인 SJL Partners 및 KCC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수 추진을 진행하게 되었다. 원익그룹은 모멘티브의 전신인 GE Lighting과 1980년대부터 사업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모멘티브는 퀴츠, 세라믹, 실리콘을 포함하는 첨단기술 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아폴로 매니지먼트(Apollo Management, L.P.)가 2006년 GE의 관련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출범시킨 회사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23억 3,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익QnC가 인수하는 퀴츠 사업부문은 퀴츠 소재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으로, 독일의 헤라우스(Heraeus)와 함께 전세계 퀴츠 소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모멘티브의 퀴츠 사업부문은 전세계 4개국(미국, 독일, 일본, 중국)에 사업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원익QnC는 현재 모멘티브의 퀴츠 소재를 사용하여 퀴츠 완성품을 만들고 있으며, 원익QnC 역시 해당 분야의 글로벌 1위 업체이다. 본 거래는 세계 1위 퀴츠 소재 업체와 세계 1위 퀴츠 가공(Fabrication) 업체 간의 결합으로 의미가 크며,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양사간 퀴츠 사업의 전략적 유대 강화로 기술/제품 개발 시너지 실현 및 글로벌 차원의 사업 거점 강화의 의의를 마련하였다.

모멘티브의 퀴츠 사업부문은 또한 고부가가치 세라믹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수 엔지니어링 제품으로 전세계 항공,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원익QnC는 인수 후 모멘티브의 퀴츠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첨단소재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W**



# 색다른 체험, 컬러풀한 소통

하얗고 자그마한 인형에 나의 옛 히어로,  
최근의 관심사, 딸아이가 사랑에 빠진 캐릭터를  
그려 넣는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튀어나온다.  
소통은 이렇게 작은 체험에서도 흐르듯 시작된다.



소통은 즐거울 때 더 빛난다

11월의 마지막 목요일,  
원익테라세미콘 근방의 카페에서 특별한 체험이 열렸다.  
원익테라세미콘 인사팀의 소통을 위한 '무스토이'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하얀 도자기 인형에 그림을 그려 넣어 하나의 캐릭터로 완성시키는 것.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인사팀 김구종 과장은 소통에 관한 아이템을 고민하다 지난번 자녀들을  
초대해 진행했던 무스토이를 떠올렸다. 당시 아이들 이상으로 어른들에게 호응이 좋았기 때문.  
프로그램은 인사팀 권기용 팀장의 무스토이 제작법 프레젠테이션, 제작, 캐릭터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 권 팀장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준 김구종 과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무스토이는 도자기 인형으로 남자아이 형태의 무스키, 여자아이 형태의 무스피가 크기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형 위에 자신이 영향을 받은 캐릭터를 그리면 되는 간단한 체험이에요.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네임펜으로 색칠하면 됩니다. 아, 혹시 잘못 그렸어도 당황하지 말고 준비된 알코올로 수정하세요. 자, 그림 시작해 볼까요?”

선이 비뚤뻤해도, 다른 색을 칠했어도 괜찮다  
우리에겐 우리가 있으니까

# 알뜰 박 한 박

다양한 색 만큼 알록달록한 개성이 넘치는  
원익테라세미콘 인사팀.  
우리들의 소통은 한데 어우러져  
멋진 그림을 만든다.





사우들은 미리 준비한 캐릭터 이미지를 보며 밑그림 작업을 시작했다. 추억의 태권 V, 아이언맨, 보로로 등 다양한 캐릭터가 그려진다. “어머, 과장님 태권 V 세대셨어요?” “예란 씨,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웃음과 이야기 소리. 사원에서 팀장까지 웅기종기 모여 앉아 손에 묻는 것도 아랑곳 않고 초등학생이 된 듯 열심이다. 비교적 간단한 캐릭터를 선택했던 몇몇 사우들은 ‘하나 더!’를 외치며 두 개씩 만들기도.

두 시간여의 작업이 끝나갈 즈음, 완성된 무스토이들이 나타났다. 익숙한 캐릭터도, 다소 생소한 캐릭터도 보인다. 사우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자신이 만든 무스토이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발표를 준비한다.

첫 번째 발표는 영화 ‘레옹’의 두 주인공 레옹과 마틸다를 그린 최예란 사원이 다. “영화 레옹, 모두 보셨나요? 열두 살 소녀와 청부살인업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영화죠. 우리 인사팀도 각자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엄청난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사팀에서 가장 어린 사원이라 마틸다에 이입하게 됐고요.” 최 사원의 고퀄리티 무스토이를 보고 일동 오-하는 탄성이 터진다.

다음은 서호영 대리. “저는 좀 단순한 캐릭터죠? 쿵푸 팬더의 포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사천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봤던 판다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영화에서 판다 포는 자신이 전설의 용사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지만, 최선을 다해 수련하며 용사가 됐죠. 뒷면에 이를 표현한 중국의 사자성어를 썼는데요, ‘정신이 하나면 못할 일이 없다. 포기 마라.’ 는 뜻입니다. 저도 무슨 일이든 포기 않고 판다 포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우들의 발표도 차례대로 진행됐다. 매 발표마다 모두가 추억에 젖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스토이를 보며 한바탕 웃기도 했다. 마지막은 자신이 만든 무스토이와 함께 단체사진 촬영. 촬영하는 중간에도 서로의 무스토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던 원익테라세미콘 인사팀. 기획의도가 이렇게 찰떡같이 들어맞는 프로그램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모두가 즐기며 소통한 시간이었다.



## 관점을 이해하며 노력하는 리더



권기용 팀장

Q. ‘소통’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A. 테라세미콘 인사팀은 숫자도 많지만 팀원 간 나이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막내 사원과 부장님의 나이 차가 21살이나 되죠. 때문에 세대 간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회식이나 스크린 야구 등 다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진행해 왔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Q. 그렇다면 팀장님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이다 보니, 각자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검정인데 왜 저 사람은 흰색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내가 흰색이지 못한 부분은 저 사람이 대신 채워준다고 생각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나는 진정한 검정이, 상대는 진짜 흰색이 되어 시너지를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팀장님의 무스토이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A. 어릴 적 좋아했던 캐릭터를 생각해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이었어서 그런지(웃음). 그래서 딸과 의논했더니 딸이 좋아하는 웹툰 사진을 보내줬어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만화에서 사랑을 담당하는 ‘사랑 세포’입니다. 우리 팀도 사랑으로 함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작하게 되었죠.

Q.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아무래도 연말이기에 내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담당자들의 아이디어, 업무 필요성, 차별성을 검토하다 보니 일 관해서 본의 아니게 압박을 준 건 아닌가 싶었는데, 좋은 타이밍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니 평소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 눈높이에 맞춰주는 희망 전도사



최정운 파트장

Q. 원익테라세미콘 인사팀에서 가장 소통이 잘 된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제가 없을 때? 하하 농담입니다. 팀원들의 말로는 우리 팀은 서로 수평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Q. 파트장님의 소통 노하우가 있다면요?  
A. 가급적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본 뇌 과학 책에서 리더가 팀원에게 압박을 하거나 부담을 주면 교감 신경이 긴장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금방 고갈되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긴장을 주는 이야기는 피하고 팀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안한 분위기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우리 팀의 소통왕을 꼽는다면?  
A. 신진섭 과장과 방주현 대리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팀원들과도 스텝없이 잘 지내거든요. 저희는 현장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팀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이번 회식 때 건배사로 쓰려고 준비했던 말인데요, 사보는 이후에 나올 테니 미리 이야기해도 되겠죠? 1년간 업무를 하며 기쁜 일도 많았지만 속상하거나 안타까웠던 일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항상 해가 지나면 뭘 했나 싶고 후회도 할 텐데, 미련은 비우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대감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비우자! 채우자! **W**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거 같네.  
이런 썩한 핑크색,  
오랜만에 본다.



WONIKIN v.57 — BECOME ONE



“영화 레옹, 모두 보셨나요? 열두 살 소녀와 청부살인업자.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영화죠.  
우리 인사팀도 각자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엄청난 케미스트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 일곱 틈새 소통

소통으로 2행시

소: 소리쳐라, 그림  
통: 통하리라  
방주현 대리

소: 소문난 리더, 권기용 팀장님! 인사팀을 위해  
통: 통 크게 한 톱 싸주세요!  
최예란 사원

소: 소고기 사주세요  
통: 통닭도요  
김구종 과장

# 아모르파티 (Amor Fati)



단풍은 거들 뿐,  
씨엠에스랩을 물들인 것은  
열정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가평의 한 리조트에서 약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 해 동안 심 없이 달려온 씨엠에스랩 사우들이 서로 마주하며 짓는 웃음소리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여서 더 즐거웠던 그들의 워크샵 현장에 다가가 보자.



이번 워크샵의 테마는 ‘아모르파티(Amor Fati)’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남긴 사상으로 필연적인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여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씨엠에스랩은 우리의 운명, 즐기고 사랑하자!’라는 테마로 워크샵을 기획했다.



가평에 도착한 60여 명의 씨엠에스랩 사우들과 이진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번 워크샵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고, 가벼운 소풍 프로그램으로 분위기를 예열했다. 모든 부서가 함께 어울려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첫 번째 게임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홀을 벗어나는 방 탈출. 진행자가 나누어 준 힌트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만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데, 꽤 난이도가 있어서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왔다. “아, 나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인데.”, “머리아파 죽겠네!” 그림에도 몇 분 만에 정답을 찾은 조가 속속 나타났다. 단계를 통과한 조는 “오! 대리님 어떻게 푸셨어요?”, “역시 우리 조에 브레인이 많았네!” 하며 서로를 추켜세워 주기도 하고, “빨리 빨리 다음 단계로 가자!”하며 승부욕을 불태우기도 했다. 아직 문제를 풀지 못한 조도 “괜찮아, 우린 느려도 확실하게!”하며 곳곳이 의지를 북돋웠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에도 협동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듯 모두가 즐거운 얼굴이다.

방 탈출에 성공한 조는 야외로 향했다. 날씨도 이들을 반기듯 비를 거둔 지 오래. 사우들은 리조트의 구석구석 마련되어 있는 미니게임장을 찾아 달렸다. 모두 팀워크를 발휘해 몸을 움직여야 통과할 수 있는 게임들이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협동심을 필요로 했던 공 튀기기 게임. 조원이 눈을 감고 고무공을 바닥으로 던지면 반대편의 조원이 튀어 오르는 공을 플라스틱 컵에 받아낸다. 그 위에 다른 플라스틱 컵을 쌓아 또 다른 조원의 공을 받아내고, 이렇게 네 번을 연달아 성공해야 통과. 언뜻 쉬워 보이지만 컵이 쌓일수록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 던지는 이는 받는 이를 믿고, 받는 이는 던지는 이에겐 온 신경을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게임. 하지만 씨엠에스랩 사우들은 보란 듯 손발을 척척 맞추며 통과했다. 이외에도 파이프를 연결해 공 옮기기, 유튜브 촬영하기, 퀴즈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됐고 모든 게임을 마친 후 다시 홀에 돌아온 사우들은 한결 더 끈끈해진 모습이다.

**의견을 나누고 발로 뛰며  
함께 정답을 찾아나간  
씨엠에스랩 사우들.  
그들의 단결력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야외활동 결과 발표식이 시작됐다. 어떤 조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게임에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시간. 모두가 열정을 다해 입했기에 어느 조가 우승을 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모두의 기대 속에 발표된 최우수 조는 7조.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앞으로 나선 7조의 팀장 김규섭 부장은 “저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잘 해줬습니다. 많은 팀들이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1등을 한 이유는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고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7조 파이팅!”하고 팀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최우수 시상으로 끝인 줄 알았으나 반전으로 대상이 남아 있었다. 영예의 대상은 6조. 상품은 하늘물빛정원 숙박권으로 이진수 대표의 축사와 함께 증정됐다. “저는 방 탈출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직원들은 푹푹푹 잘 해내더라고요. 역시 씨엠에스랩 답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대상, 6조!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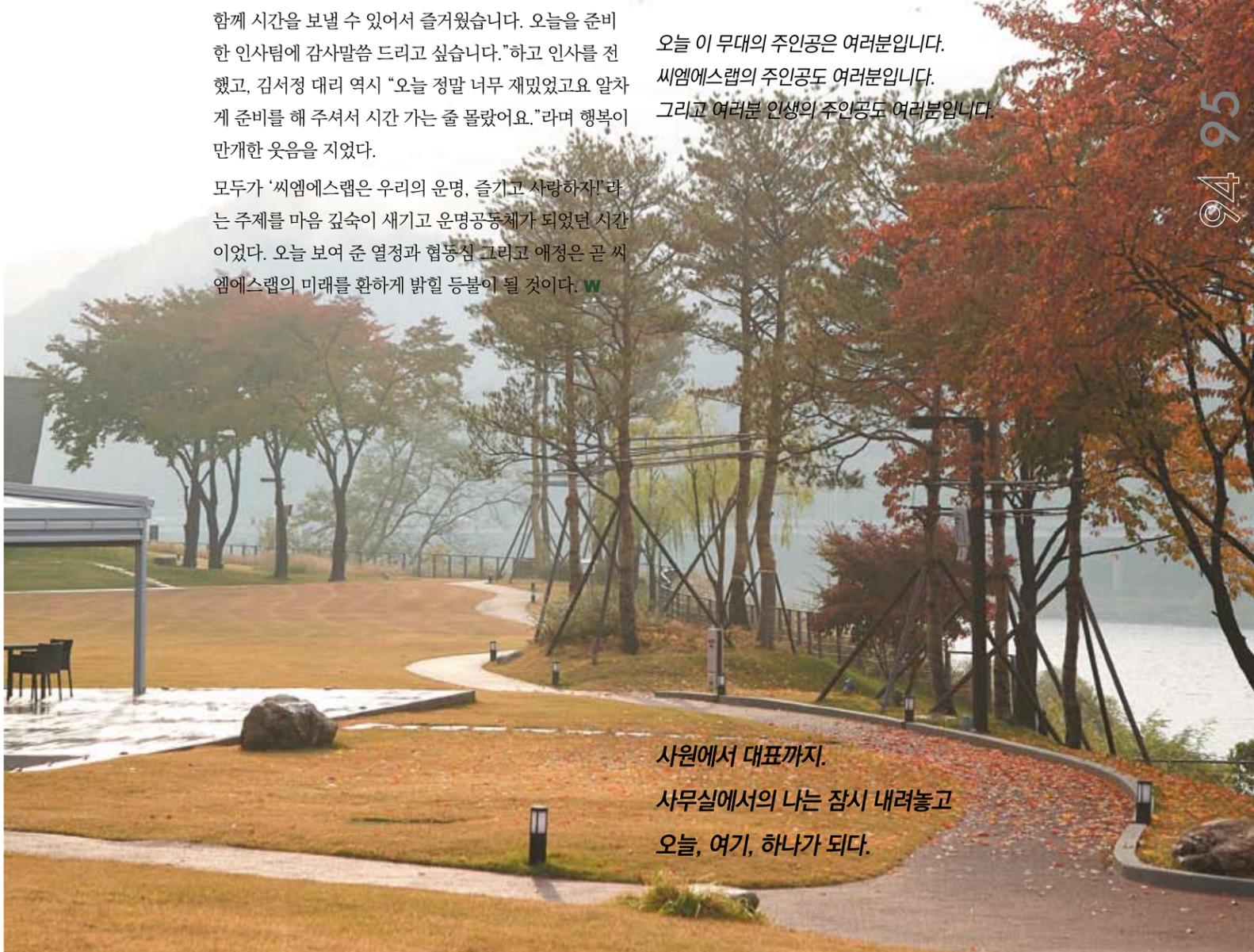
저녁 식사 시간. 이진수 대표의 건배사와 함께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레크리에이션 MC가 등장했다. 마지막 체력을 뽐어낼 시간이 된 것. 각 조에서 뽑힌 오락부장들의 댄스배틀로 출발선을 끊은 레크리에이션은 빙고게임, 사운드 퀴즈, 노래 맞히고 부르기 그리고 전체 댄스 타임까지 이어져 홀 전체에 가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열기가 차올랐다. 마지막은 기차 행진. 조원들은 한 손을 서로의 어깨에 얹고 행진하며 나머지 손으로는 다른 조 기차와 하이파이브로 교감했다. 이윽고 모든 기차가 단상에 올라 어깨동무를 하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길고도 짧았던 일정의 끝을 맺었다.

댄스 배틀에서 최고의 오락부장으로 뽑혔던 장서원 사원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너무 좋은 시즌에, 좋은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을 준비한 인사팀에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하고 인사를 전했다. 김서정 대리 역시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알차게 준비를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라며 행복이 만개한 웃음을 지었다.

모두가 '씨엠에스랩은 우리의 운명, 즐기고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마음 깊숙이 새기고 운명공동체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오늘 보여 준 열정과 협동심 그리고 애정은 곧 씨엠에스랩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등불이 될 것이다. **W**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씨엠에스랩의 주인공도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도 여러분입니다.



사원에서 대표까지.  
사무실에서의 나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 여기, 하나가 되다.

# 하나 된 원익을 꿈꾸며

# 선순환의 씨앗을 심다

가을을 알리는 찬바람이 소매 사이로 파고들었다. 외투를 단단히 여민 원익인들이 도착한 곳은 공덕역에 위치한 남북하나재단. 갑자기 추워지려는 날씨를 잠시 미루려는 듯 훈훈한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10월 12일 오전 10시 반, 남북하나재단 강당에 원익머트리얼즈와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해솔직업사관학교의 임직원 및 학생들이 모였다. 강당 입구에 붙은 '탈북청년 교육 시설 소통(小統)기부금 전달식'이라는 문구가 만남의 목적을 알렸다. 원익그룹에서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해솔직업사관학교의 새 교육 시설 건립금 5,000만 원을 기부하는 전달식이었다. 각자의 자리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준비한 꽃무늬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먼저 온 통일인' 탈북주민들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원익과 해솔직업사관학교의 참가자들은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았다.

해솔직업사관학교는 탈북청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20세 이상 30대 미만 청년 중 학습부진,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년들에게 기초학습부터 대학 진학, 진로 설정 등을 제공해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취업 후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보살핀다. 탈북청년들의 안정된 정착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심신 회복,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어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취업에도 속속 성공하고 있다.

해솔직업사관학교는 탈북청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20세 이상 30대 미만 청년 중 학습부진,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년들에게 기초학습부터 대학 진학, 진로 설정 등을 제공해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취업 후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보살핀다. 탈북청년들의 안정된 정착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심신 회복,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어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취업에도 속속 성공하고 있다.

원익은 2017년 해솔학교 출신자 포함 12명, 2018년에는 10명을 원익 가족으로 맞이하며 해솔직업사관학교와 연을 맺었다. 단순한 기부금 전달, 재정적 지원을 넘어 일자리를 제공하여 '먼저 온 통일인' 탈북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것.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방법을 고민하다 찾은 원익만의 해답이었다. 이번에 전달하는 기부금에도 역시 더 많은 탈북청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원익의 인재가, 나아가 한반도의 인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쌀쌀한 가을날,  
단풍 끝이 물들듯 따듯함이  
퍼져나간 기부금 전달식이었다.

기부금 전달식은 남북하나재단, 해솔직업사관학교, 원익그룹을 차례로 소개하고 각 임원의 인사말, 기부금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 원익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한 해솔직업학교 출신 전국철, 김평국 사원은 해솔직업사관학교에 대한 설명이 나오자 옛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원익그룹을 소개하는 차례가 돌아오자, 모든 과정을 딛고 원익인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몽클한 표정을 지었다.

인사말에는 원익의 대표자로 원익머트리얼즈의 권봉진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다. "현재 원익머트리얼즈에는 다섯 분의 탈북 청년들이 재직 중인데요, 일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성과도 내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와 남북하나재단이 탈북청년들의 정착과 미래를 위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남북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은 "원익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도 높은 기업으로 탈북청년들



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 역시 탈북청년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기관 이죠. 하나재단까지 포함해 이 세 기관은 현재 당면한 문제는 물론 남북한 통일을 준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우리 세 기관이 만들어 낸 이 협력 모델이 사회 각 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하며 앞으로의 기대를 내비쳤고, 마지막으로 해솔직업사관학교의 김영우 이사장은 감개무량한 듯 “저희들은 졸업생들이 사회 각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해왔습니다. 그 결실을 원익을 통해 맺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수혜 받은 소중한 기부금은 탈북청년들의 교육 시설을 만드는 데에 쓰입니다. 더 많은 탈북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치 봄에 심은 씨앗이 그해 가을 열매가 되어 되돌아오듯, 탈북청년들을 진정한 '우리'로 맞이하고 함께 발전을 꿈꾸는 이 선순환이야말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

사진촬영과 함께 기부금이 전달됐다. 세 기관의 임원들이 대표로 전달식을 갖고, 모든 참석자가 앞으로 나와 사진을 찍었다. 너나할 것 없이 서로 손을 맞잡기도 하고 학생들을 격려해주기도 하는 등 순간마다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에서 끊어지지 않을 인연의 고리가 보였다. 이들은 모든 순서가 끝난 뒤에도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고 탈북청년들의 현황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해 나갔다.

원익이 전달한 기부금으로 지어진 학교. 그 학교에 입학한 탈북청년들은 심신을 회복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뒤 원익인이 되어 또 다른 기부금을 창출해 낼 것이다. 아주 먼 미래일지라도 내딛는 발이 있다면 길이 만들어 지리라 믿는 원익의 큰 그림이 언젠가 현실이 되길 바라본다. **W**



김평국  
사원

“오늘 전달식을 보면서 힘들었던 기억, 즐거웠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학교에서 공부한 지도 옛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사회에 나와 일을 하고 있네요. 해솔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에 원익이라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적성에도 잘 맞고요. 평생 다닐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철  
사원

“이렇게 행사에 나오니까 진짜 원익머트리얼즈의 사원이 된 것 같네요.”하며 너스레를 떨더니 “아무래도 옛날 생각이 안 날 수 없죠. 가끔 힘들 때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익머트리얼즈 분들이 가족처럼 품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계셔 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겼고요. 지도 김평국사원과 같이 원익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오래 오래 원익에서 일할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곳곳하게 자리를 지킨 채 변화를 지켜보기만 하는 리더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어렵다. 세대는 물론이고 법, 문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변화가 우리 회사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이를 알맞게 읽어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야말로 참된 선장이라 할 수 있다.

변화를 ✕ 마주하고 ✕ 진화하는

# LEADER



지난 10월 23일 화요일, 원익 CEO 리더십 과정 2018이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렸다.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인 각 계열사의 CEO 및 임원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이번 원익 CEO 리더십 과정은 '주 52시간의 이해', '효과적인 성과, 보상 관리', '세대 간의 소통과 CEO의 역할' 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강연은 오전 아홉시부터 오후 네시 반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마지막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연극 '커뮤 소피아'를 관람하고 마무리. 오늘 하루, 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포용하는 법을 성찰할 것이다.

## 1

### 주 52시간의 이해

첫 순서에서는 동화노무법인의 박은선 노무사와 함께 올해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법, 주 52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법령은 이미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초기이기에 상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실행에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원익인들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시간이 될 것.

먼저, 올 2018년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 법령부터 짚었다. 근로시간을 포함해 다양한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졌다.

- 1주는 휴일 포함 7일임을 명시, 휴일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의무화
-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적용(1개월 단위 1일 발생), 근로자 난임 치료휴가 3일(1일 유급)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게시,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확인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인정

각 법령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뒤 오늘의 본문인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다.

-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 초과 금지
- 휴일근로 8시간 범위 내에는 50% 가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시행일: 2018.07.01

기업들은 위 내용을 지키며 다양한 대응법을 통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기업특성과 직무에 알맞은 근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박은선 노무사는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곁들이며 원익에는 어떤 근로형태가 알맞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나눈 뒤, 첫 번째 순서는 끝이 났다. 임원들은 간단한 다과를 먹으며 20분 간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강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른 오전이었음에도 활기가 넘쳤다.

## 2

### Digital 시대, 성과 창출과 리더십

두 번째 강연은 딜로이트컨설팅 양석훈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다. 18세기 산업혁명부터 20세기의 정보통신 혁명까지의 흐름을 설명한 그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 하면서 이에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기업들의 'Mission Statement(핵심가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Innovate' 즉 혁신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기업의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미. 하지만 글자의 기업 코닥, 모토로라, 노키아가 그랬듯 '성공 증후군'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성공 증후군'이란? 기업이 하나의 콘텐츠로 성공했을 때, 해당 콘텐츠에만 집착하여 차츰 외부 환경변화에 무너지는 것.

양 상무는 위의 예를 통해 원의그림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혁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 혹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래의 이유는 아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 혁신과 변화에 더딘 기업의 특징

<b>리더</b> 극도로 신경질적인 최고경영진, 환경변화와 실적 부진에 대한 공포	<b>중간 관리자</b> 나쁜 소식을 전하길 두려워해 왜곡된 보고와 실적 과장
--	--

#### 나쁜 흐름

경영진의 과도한 단기실적 목표부여, 직원 압박, 중간관리자들의 허위된 약속, 자원 배분의 왜곡, 직원들은 단기목표에 집중, 품질 사고 다발.

→ 그 결과 신규 제품개발 지연



Digital 시대,  
성과 창출과 리더십

또 변화의 책임은 리더에게 있으나 변화를 이끌 힘은 직원들이 가졌으니, 기업 내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밀레니엄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존 직원들과 밀레니엄세대가 동시에 추구하는 우선순위를 이해하면 혁신에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

#### 기존 직원과 밀레니엄세대의 동시 우선순위

- 회사의 장기 비전에 대한 확신과 노력
- 업무 효율성 제고
- 업계 내 지속적인 전문성 확대
- 최상의 상품과 최고의 사업 전개

그럼 리더 자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양석훈 상무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래 제시된 방향을 인지하고 있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 Energizing(조직 활력)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비전과 핵심가치 재구축
- 직원들의 심리적 좌절감 방지 및 몰입도, 활력 제고

#### Empowering(자율권 부여)

- 직원들에 대한 상시 목표 조정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코칭, 피드백
- 직원들의 차별화된 사고능력 제고를 위한 코칭

#### Driving Connections(조직 간 연결)

- 포괄적이며 경계가 없는 공동 협업 체계 구축
- 수평적 조직 구조 구축 및 핵심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관계형성

두 번째 강연 역시 박수와 함께 끝을 맺었다. 오후 12시 정각, 기력을 보충해야 할 시간이다. CEO 및 임원들 그리고 진행을 준비한 사원들은 앞으로 이어질 일정을 위해 점심시간을 가졌다.

### 3

#### 세대 간의 소통과 CEO의 역할

변화하는 시대,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을 익힌 이들은 이제 다음 단계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돌아왔다. 마지막은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의 강연.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법과 자기관리법을 통해 원익의 리더들을 건강한 커뮤니케이터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김 교수는 세대 간의 차이를 급격한 시대변화에서 찾고 “영국에서 400년 걸렸던 산업화, 정보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몇 십 년 만에 이루어져 그 간극이 극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능력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능력이 필요하죠.”라며 서두를 열었다.

##### 소통능력의 필요조건

- 호감: 겸허함, 인간적 면모, 따뜻함
- 신뢰도: 능력, 강한 메시지 전달력

직업군, 상황에 따라 어떤 조건을 우위에 뒀어 할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할 것

##### 리더로서 직원들의 성과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요 대신 자율성 부여

강요에는 외재동기가 발생한다. 외재동기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하지만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에는 내재동기가 발생해 스스로 업무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한차례 소통에 대한 강연을 마친 김주환 교수는 리더 자신도 스스로를 컨트롤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 방법을 뇌과학에 접목해 설명했다.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 내측전전두엽을 강하게, 편도체를 안정적으로

내측전전두엽의 역할: 집중력, 의사결정, 문제해결능력, 예측, 소통  
편도체의 역할: 감정, 불안, 스트레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측전전두엽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50대로 들어서면 전전두엽의 기능은 빠르게 떨어지고 특히 알코올은 전전두엽의 기능저하를 가속화한다. 또 편도체가 자극되어 쉽게 불안해지고 감정적이 된다. 때문에 알코올 섭취는 최소화하고 명상과 호흡을 통해 편도체를 안정적으로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 명상, 호흡법

- 모든 근육에 힘을 뺀다.
- 의자 끝에 앉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한다.
- 편안한 감정을 유지한다.

김 교수는 강연 중간중간 스트레칭, 명상, 호흡을 함께하며 긴 시간을 꼼꼼하게 채웠다. 원익 CEO 및 임원들 또한 강연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참여해 강연의 질을 높였다. 반응이 뜨거웠던 탓에 180분으로 예정되었던 강연 시간이 5분 10분 더 늘어났을 정도였다.



### 4

#### 눈으로 본 소통의 중요성. 커뮤소피아



준비된 강연이 모두 끝나고 연극 '커뮤소피아' 관람이 남았다. 원익 CEO 및 임원들은 워커히 서울의 시어터홀로 이동해 등근 월탁에 둘러앉았다. '커뮤소피아'는 직장 내 소통을 주제로 제작되었다는 서재원 과장의 간략한 설명 후, 박수와 함께 막이 올랐다.

기존에 진행했던 강연들이 이론적으로 듣고 보는 것에 집중해 머리로 이해하게 했다면 연극은 생생한 상황을 보여줘 피부로 느끼게 만들었다. 다소 직접적인 내용에 혹 임원진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싶었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관람에 임했다. 연극이 끝난 후 원익의 리더들은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2020년, 비밀리에 제작된 시로봇 소피아가 조직 내 소통을 학습하기 위해 원스그룹에 파견된다. 하지만 상사와 사원 사이에 소통이 부재된 원스그룹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견 28일 만에 망가져버린다. 원스그룹은 이를 계기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오늘 하루, 원익의 리더들은 한 걸음 더 진화했다. 시대의 흐름을 이해했고 나와는 다른 세대의 진심을 확인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법을 알게 된 것. 이제 그들은 원익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변화의 급물살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노를 저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W**





C-lounge

## 완벽이 만들어지는 공간, 원익아이피에스 부품 LAB 오픈식

지난 12월 12일, 원익아이피에스에서 부품 LAB 확장 오픈식이 열렸다. 기존의 부품 개발, 평가를 넘어 복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듈단위로 평가가 가능해진 것. 이를 축하하기 위해 원익아이피에스의 임원진은 물론 관련 파트너사도 행사에 참여했으며 함께 새롭게 정돈된 부품 LAB에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업계에서 혼자 살아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업계를 발전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익아이피에스 진위 사업장, 4층 C-lounge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다. 원익아이피에스의 임원진, 파트너사의 대표들까지 부품 LAB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한데 모였다. 단순한 사내 오픈식을 넘어 파트너사까지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새로운 부품 LAB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직접 파트너사에 소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함께 공생하고자 하는 진심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픈식 사회는 모듈 개발팀의 박용균 부장이 맡아 식순부터 내, 외빈 소개까지 흐르듯 깔끔한 진행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이문용 부회장과 이현덕 대표이사의 축사 차례, 이문용 부회장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떤 장비든 여러 부품이 모여 성능을 발휘해야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좋은 장비가 나올 수 없죠. 때문에 저희 원익아이피에스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부품 개발실을 개설해 사용해 왔습니다만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할 제품은 많은데 공간이 비좁다 보니 컴플레인이 종종 생기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한층 넓어진 공간과 업그레이드된 설비들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 새로워진 부품 LAB이 미래로 나아가는 장이 될 겁니다. 모두 함께 성공의 과실을 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원익아이피에스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해**

이현덕 대표이사는 “부품 LAB은 크기뿐 아니라 성능도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테스트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3단계 프로세스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보다 완벽한 부품을 고객사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금년 부품 관련 이슈가 430건 이었습니다만, 이 3단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무려 179건으로 약 60%가 줄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필요한 부품을 검증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 5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부품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획한 로드맵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로드맵을 따라 개발하다 보면, 원익아이피에스의 경쟁력은 월등히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공간은 저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파트너사분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한 곳이지요. 멀리 내다보고 같이 갑시다.”라며 함께 걸어갈 미래를 역설했다.

이문용 부회장을 포함한 6명의 내, 외빈이 테이프를 자르며 부품 LAB의 시작을 알렸고, 모두가 박수로 이를 축하했다.



Brooks Instrument 운영팀 전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서 무척 기쁩니다. 소규모 부품회사의 경우 환경이 열악하기에 원익아이피에스 같은 곳에서 여러 부품들을 검증해 준다면, 좋은 부품들로 지금보다 좋은 장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장비가 판매량도 크게 늘 것이고, 부품의 수요도 늘어나 선순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재현 전무

**완벽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다**

이후로는 두 개 조로 나뉘어 부품 LAB 투어가 이어졌는데, 각 파트마다 담당 연구원들이 설비와 그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진중하게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설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설비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될지 심도 있게 살피는 모습에서 자못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투어가 끝난 후, 파트너사들은 서로 느낀 바를 나누기도 하고 원익아이피에스의 임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품 LAB 개발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설비 개발실 김재현 전무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부품 LAB이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워진 부품 LAB은 앞으로 고객과 업체 간의 브릿지를 고도화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익아이피에스 부품 LAB은 여러분들의 매출을 열 배, 백배로 늘려드릴 것이며 기술적 인사이트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원대한 포부를 이야기했고 참여자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원익아이피에스 부품 LAB 오픈식은 자축이 아닌 함께하는 축하의 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파트너사 간의 신뢰를 가득 안고 막을 내렸다. 내일이면 각자의 위치에서 가능성을 현실로, 신뢰를 성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것. 새로워진 부품 LAB에서 피어날 이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W**

존중과 배려로  
빛어 올린

상생의 트로피

2018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대통령상



자유  
소통  
행복  
에서 피어난 꽃.  
  
상생

올해 8월 말, 원익머트리얼즈는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건강한 노사관계를 증명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존중하고 배려하며 차근차근 쌓아 올린 이들의 신뢰는 2018년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 상을 수상하며 반짝이는 트로피가 되어 돌아왔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시상대에 올라 기쁨을 만끽한 원익머트리얼즈 노사대표들을 만나봤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원익머트리얼즈에도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 고용노동부 선정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대통령 상을 수상하게 된 것.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은 매년 모범적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원익머트리얼즈 역시 이 녹록지 않은 과정들을 넘어서며 당당하게 올해의 대상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메리 원익머트리얼즈**

원익머트리얼즈는 원익의 핵심가치 자유, 소통, 행복을 바탕으로 끈끈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회사의 주요 경영현황과 정책 등을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한 한마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워크샵도 개최한다.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한 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노동환경을 대응하는 자리에서였다. 주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자칫하면 예민해질 수 있는 사안도 큰 갈등이나 잡음 없이 한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살피며 차근차근 해결법을 찾아나간 것. 이러한 해결방식은 사내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모범사례로 비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사례들을 종합하여 노사문화의 우수함을 증명한 원익머트리얼즈 노사대표들은 26일 양재동의 엘타워에 모여 수상을 준비했다. 사측에서는 한우성 대표, 이병섭 부장, 박동신 과장이, 노측에서는 백현석 대리, 김주현 대리, 김한성 주임 그리고 인사총무팀 이보름 대리가 함께

했다. 시상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자치단체, 노사문화 대상, 노사문화 유공 이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었다. 먼저 노사민정 협력 우수 자치단체 10개소의 시상이 시작됐고, 원익머트리얼즈 사우들은 다음 순서인 노사문화 대상 시상을 기다리며 긴장을 풀기 위해 이런 저런 이야기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이윽고 “노사문화 대상, 원익머트리얼즈”가 호명되고 한우성 대표와 백현석 대리가 시상대 위로 올랐다.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는 2018년도 노사문화 대상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대통령 대동.”

상장을 받는 두 노사 대표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넘쳤다. 나머지 사우들 역시 단상 앞으로 나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환호와 박수로 서로를 축하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트로피와 ‘가장 우수한 기업’이라는 문장이 담긴 상장을 들고 자리로 돌아온 이들은 몇 번이고 트로피와 상장을 들여다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상은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죠**

다른 어떤 상을 받았을 때보다 기쁜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근로자, 간부, 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써왔으니까요. 원익의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 이 세 박자가 원익머트리얼즈 안에서 잘 순환되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큰 상을 받기 위해 뛰어온 건

아니지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와준 한마음협의회, 사원들, 간부임원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더불어 대상을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니 목표가 아닙니다. 더욱 돈독한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생겼으니 앞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한우성 대표

**개개인이 원익인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멋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원익머트리얼즈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상을 계기로 저희 원익머트리얼즈 사우들은 더 끈끈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측과 노측이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해왔다면 내년부터는 우리에게 없는, 우리와는 다른 선진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직원 개개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집단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되기까지는 보통 대표성을 가진 이들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으로 방향이 좁혀지기 때문에 그 외의 사우들의 생각은 알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며 개개인이 원익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동신 과장

**하나라는 자부심**

솔직히 이 상을 받게 되어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무척 열심히 해오긴 했지만 우리 모두는 당연히 그래야한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주었기에 상까지, 그것도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을 받고 지금까지의 일을 되짚어보니 당연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대측을 이해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상생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회사.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받는 회사. 어떻게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 자부심을 안고 상생하며 각자의 목표 그리고 원익머트리얼즈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김주현 대리

**아름다운 상생의 경치, 더 높아서 볼 수 있도록**

한마음협의회는 총 3년간 활동하며 이제 저희 4기의 활동 기간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법이 생겼고 이에 따른 의견 조율이 자주 필요했죠. 그때마다 산을 오르듯 서로 잡아주고 밀어주며 잘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정상에 오르니 상생이라는 멋진 풍경이 보이네요. 이렇게 대단한 상도 받았고요.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더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 남은 1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성 주임

1등이라는 자부심 앞에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는 이들. 짧고 우렁찬 박수로 기쁨을 대신하고 곧바로 자신들의 위치로 돌아가 함께 만들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기에 원익머트리얼즈는 오늘도 힘차다. W





2018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시상식

### 사회적 책임을 넘어 개인의 행복을 지켜준 원익머트리얼즈 한우성 사장

==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2018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식은 오후 한 시, 사전 리허설부터 시작됐다. 간략한 동선을 확인하고 자리에 착석한 기업 및 단체들은 이미 수상자로 결정됐음에도 다소 긴장된 표정이 역력해 보였다. 그 사이로 원익머트리얼즈의 한우성 사장 내외 및 임직원들이 상기된 얼굴로 시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우성 사장은 수많은 기업 중 고용 안정과 양질의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인으로 높이 평가받아 일자리 창출 유공 개인 부문에서 산업포장을 받는다.

지난 12년간, 외산에 의존했던 특수가스를 국산화하며 반도체 기업의 원가절감과 수급 안정에 힘쓰며 빠르게 성장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 왔던 원익머트리얼즈는 한우성 사장의 대대적인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현장 직원의 임금감소 문제를 보전수당 지급, 직원 복지 강화로 해소함은 물론 발 빠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교대근무, 시차근무를 확대 적용하여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해 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터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채용도 실시했으며 비정규직 제로화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정규직 채용했고 3개월간 인턴 기간을 보냈던 신입사원들은 18년도부터 정규직 입사를 시작했다. 그 외에도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확대, 직장 내 어린이집 투자, 협력업체 직원 정규직 채용 등으로 3년 전 대비 약 15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지역민 우선 채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지난 12월 18일, 원익머트리얼즈가 명예로운 자리에 함께했다.

2018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원익머트리얼즈 한우성 사장이 산업포장을 받게 된 것. 쟁쟁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강소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원익이 명실상부한 행복 기업이라는 것을 알린 뜻깊은 순간이었다.





한우성 사장은 함께 산업포장을 받을 기업들과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고 차분히 차례를 기다렸다. 식순은 개회 및 국민의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축사,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패 수여, 축하 공연, 시상으로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될 예정. 두 시 정각, 박수와 함께 개회가 선언되었고 뒤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을 위해 힘써주신 기업과 기업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여러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당부와 축하를 겸한 축사에 한우성 사장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큰 박수로 응답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포상 시상은 축하공연 이후에 진행됐다. 공연팀 뮤지컬 싱어즈의 신나는 무대로 시상식장의 긴장은 한결 풀린 듯 참가자들의 표정에도 여유가 비쳤다. 장년 고용 촉진,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단체부문의 시상이 끝나고 드디어 개인부문의 호명이 시작됐다. 기다리던 한우성 사장도 힘찬 걸음으로 시상대에 올랐다. 포장증이 수여되었으며 시상 내용이 장 내에 울려 퍼졌다.

“포장증, (주)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 한우성. 귀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산업포장,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 문재인.”

임직원들 및 한우성 사장의 아내는 존경의 마음과 뿌듯함을 담아 시상대에 선 한우성 사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한우성 사장은 시상대에서 내려온 뒤 포장증과 꽃다발을 안고 함께 자리한 기업의 대표들과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마지막 시상까지 끝나고,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우성 사장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포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제가 해 온 일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직원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익머트리얼즈의 직원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종합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고용 불안정. 그 소용돌이 안에서 곳곳이 기업의 책임을 되새기고 가치를 만들어 낸 원익머트리얼즈 한우성 사장. 그와 함께 성장할 원익머트리얼즈의 앞날은 언제나 정직하고 따뜻한 것이다. **W**



“너무나 기쁩니다. 저와 원익머트리얼즈가 함께 받는 상이니까요. 이보다 가치 있는 상이 있을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 온 가치는 언젠가 빛을 낸다. 한우성 사장이 원익머트리얼즈에서 빛어온 가치가 그렇다.



## 더불어 하나, **원익은 가족이다**

청명한 하늘 아래 울긋불긋 물든 단풍. 바라만 보기에 도 아까운 짧은 가을을 놓칠세라, 원익큐엔씨가 가족나들이에 나섰다.

고즈넉함을 간직한 한국 민속촌에서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만끽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 가족들의 얼굴에는 빨강고 노란 웃음이 스민다.

WONIKIN V.57  
BECOME ONE

120 121



민속촌을 가로지르는 강. 그사이에 놓인 돌다리를 건너다보면 빌딩 숲 사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너른 하늘, 집보다 높이 솟은 나무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 이 모든 조화가 곧 행복임을 느끼게 된다.

10월 21일 오전. 용인에 위치한 한국 민속촌에 원익큐엔씨의 사우 및 가족들이 모였다. 190여 명의 가족들은 부부, 자녀, 부모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 또 누군가에게는 효도 나들이가 될 터였다. 그래서인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음에도 이들의 눈에는 피곤함 보다는 기대감이 반짝였다.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나갔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번 민속촌 나들이에는 옹기 만들기, 단소와 소금 만들기, 국궁체험, 나무와 한지공예 등 다채로운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 가족들은 이 중 몇 가지 체험을 선택해 참여한 뒤, 이후의 시간은 자유롭게 즐기다 네시 삼십 분까지 지정된 장소로 돌아오면 된다.

가장 먼저 진행된 체험은 옹기 만들기. 가족들은 완성된 옹기에 조각칼로 글과 그림을 새기는 옹기음악 팀, 점토를 사용해 나만의 옹기를 만드는 옹기성형 팀으로 나뉘어 체험을 시작했다. 어른 아이 모두 축축한 흙 내음을 맡으며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옹기장인 못지않다.

그 중 음악 실력이 심상치 않은 남자 둘이 보였다. 김석용 기장 부자다. 아버지는 옹기에 아내의 얼굴과 캘리그래피를 새기며 사랑꾼의 면모를 뽐냈고, 아들은 자전거 타는 풍경을 꼼꼼히 새겨 넣었는데 특히나 아들의 실력이 대단해 감탄하는 눈빛이 모여들었다. 이에 으쓱해진 김석용 사우가 “아빠보다 잘하려고? 좀 봐줘라.”하며 자랑 섞인 타박을 해 웃음꽃을 피운다.

점심은 해물파전과 동동주, 국밥 등 먹거리가 가득한 장터에서 미리 제공된 쿠폰으로 해결했다. 모두가 출출할 시간이었기에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긴 줄에도 아랑곳 않고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 기다리는 사우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다른 테이블에 있어도 사우임을 알아채면 얼른 다가가 입에 떡을 넣어주고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하나의 대가족을 보는 듯 단란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난 다음은 단소와 소금 만들기다. 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 단소에 사포질을 하고 가는 끈으로 마무리하면 완성. 간단한 체험이지만 직접 악기를 붙어보고 장인의 연주도 들어볼 수 있는 귀중

한 시간이다. 최길종 기좌의 자녀 최지웅 군은 완성된 단소를 흔들며 “아빠가 바빠서 자주 못 놀았는데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것(단소 만들기)도 재미있어요!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또 오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는 귀신의 집에서 아빠가 자꾸 겁줘서 무서웠어요.”하고 아빠에게 귀엽게 눈을 흘겼다.

민속촌 뒷길을 오르자 국궁 체험장이 나타났다. 이미 몇몇 사우들이 누가 더 잘 쏘는지를 겨루고 있었다. 신중하게 조준 후 팽팽해진 활시위를 놓는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과녁에 꽂히자 희비의 탄성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 이긴 사우가 “요령으로 쏘아지 힘으로 쏘면 되나.”하고 장난 섞인 허세를 부리자, 진 사우가 호탕하게 깔깔 웃는다. 승부보다 재미가 더 빛난다. 체험을 끝낸 아이들은 저 멀리까지 날아간 화살을 주우려 달려 나갔다.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하는 부모의 걱정스런 말이 나오기 무섭게 ‘요새 뱀이 나오는 철이니 조심하라’는 관리인의 외침이 들려온다. 아이들은 후다닥 부모님 품으로 달려들었고, 관리인은 “진짜요?”하는 아이들의 물음에 장난스런 웃음을 남겼다.

정성스레 그리며 써내려가  
오롯이 내 것이 되는 선물  
소중한 추억을 하나 둘씩 쌓아간 하루

음악 실력이 심상치 않은 남자들 - 김석용 기장과 아들



원익큐엔씨 가족들은 민속촌 곳곳을 구경하며 가을을 만끽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전래동화 공연을 관람하고 전통 먹거리도 즐기면서, 손을 꼭 잡고 데이트를 즐기던 차인홍 기장 부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쁜 날 남편 회사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요.” 하며 연애시절로 돌아간 듯 애뜻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장국영 과장은 “회사에서만 보던 사우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준 회사에 애사심도 생기고요. 아, 마침 제가 오늘 생일인데 기념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축하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하고 소감을 전했다.

민속촌의 오른쪽에 위치한 놀이마당에서도 놀이기구를 타는 원익큐엔씨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린 자녀들은 회전목마를 타며 어여쁜 추억을 쌓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순간순간을 담으려 바쁘게 사진을 찍었다. 한 쪽에서는 원익큐엔씨에서 섭외한 피에로가 아이들에게 풍선 아트를 선물하고 있었다. 피에로가 ‘원익’하면 ‘큐엔씨’하고 암호를 대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다. 너도나도 모여 ‘큐엔씨!’를 외치는 모습이 깜찍하다. 더러는 원익큐엔씨 가족이 아닌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서로 어울리며 더 큰 기쁨을 나눴다.

어느덧 해가 저만치 기울고 나들이를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가족들은 처음 모였던 장소로 돌아오며 도란도란 소감을 나눴다. 아직 쿠폰을 다 쓰지 못한 몇몇 가족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먹을 간식을 샀다. 몇 시간을 내리 걷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느라 지칠 법도 했지만 여전히 싱글벙글 웃는 얼굴들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알려준다.

최원호 과장 부부 역시 “구미에서 오기에는 좀 먼 거리잖아요?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준 덕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특히나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아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라며 하루를 되새겼고, 다른 가족들 역시 행복을 안고 돌아간다는 추억을 만들어 준 원익큐엔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두가 함께여서 더욱 풍성했던 나들이는 흐뭇한 미소로 시작해 정다운 웃음소리로 마무리 되었다. **W**

날이 저물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밀한 가족,  
 이웃사촌이 된 원익큐엔씨 가족들에겐  
 더 없이 쾌청하고 시원한 저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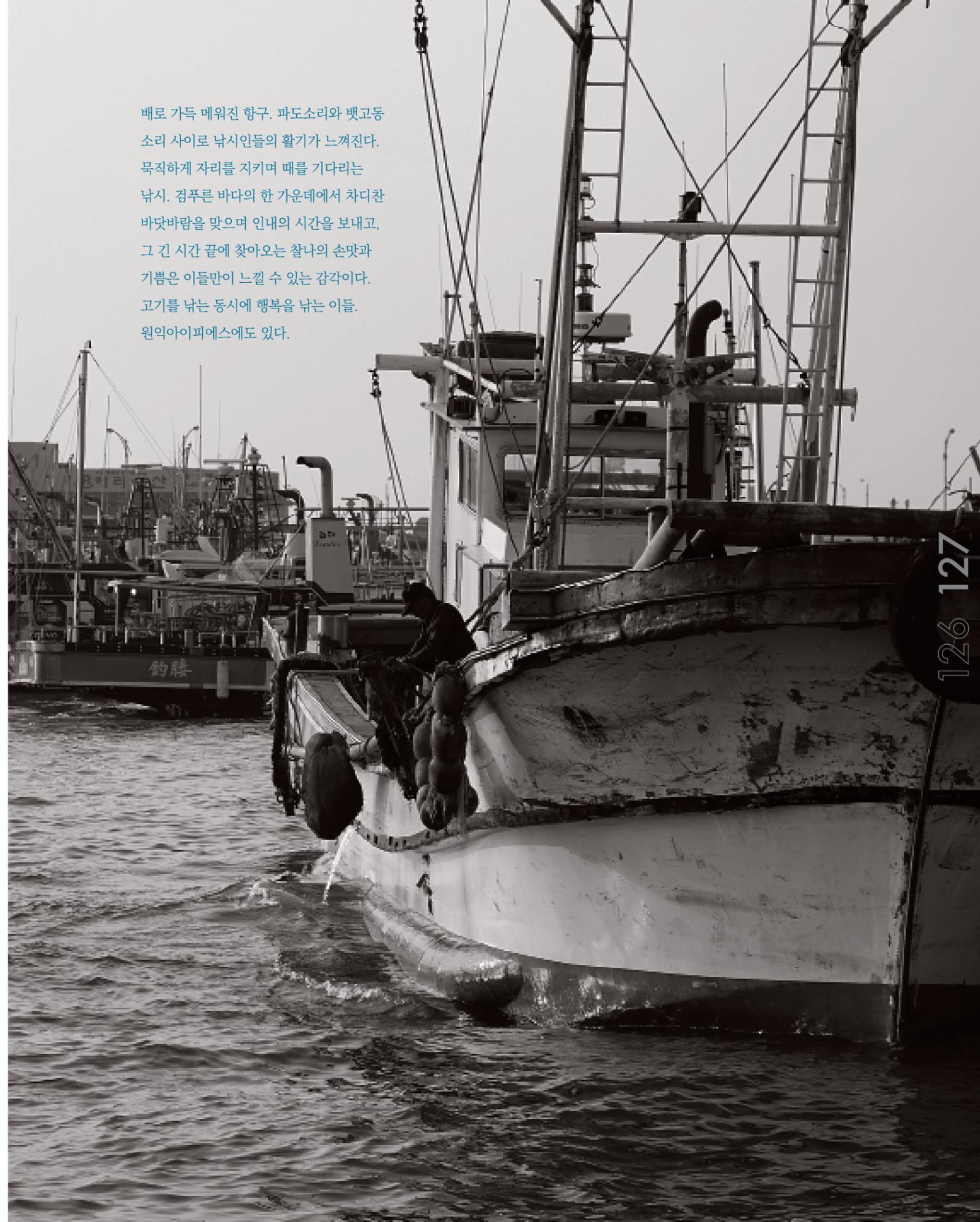
행복을  
낚는  
강태공

# 라시

즐거울樂



배로 가득 메워진 항구. 파도소리와 뱃고동  
소리 사이로 낚시인들의 활기가 느껴진다.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낚시. 김푸른 바다의 한 가운데에서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그 긴 시간 끝에 찾아오는 찰나의 손맛과  
기쁨은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다.  
고기를 낚는 동시에 행복을 낚는 이들.  
원익아이피에스에도 있다.





• •  
 손톱만한 달이 나타날 즈음에 물으로 돌아온 락시인들.  
 차디찬 바닷바람을 흠뻑 맞은 얼굴에 노곤함과 즐거움이 동시에 묻어난다.



•  
 대어를 낚을 때의 그 황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 맛에 낚시 합니다.  
 최정렬 과장



왕초보부터  
재야의 고수까지  
숨어있는  
낚시 동호회,  
락(樂)시

낚시배로 가득한 군산의 비응항, 부우- 뱃고동 소리와 함께 원익아이피에스의 사우들을 태운 ‘엄지척 호’가 항구로 들어왔다. 주차를 기다리는 배가 많은 탓에 사우들은 물고기로 가득 찬 비닐을 빠르게 옮기며 육지로 내려왔다. “새벽부터 바다에 있었더니 땅이 울렁이는 것 같네.” 장시간 배를 탄 탓인지 육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듯 했다. 하지만 이내 주섬주섬 대어(大漁)를 꺼내 들곤 “오늘 잡은 광어예요. 엄청 크죠?”하며 너스레를 떠다.

락시는 2012년에 만들어졌다. 올해로 6년째. 원익아이피에스의 사우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며, 낚시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더라도 경험이 많은 낚시 선배들이 있으니 걱정 없다.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출조를 나선다. 출조 일정이 나오면 금요일 퇴근 후 정해진 항구에서 만나 간단한 저녁식사를 한 뒤 낚시도구를 점검한다. 낚시는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세 네 시간 정도 잠을 청한 후 예약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선다. 이후로는 저녁까지 계속 낚시를 한다. 점심은 선상에서 해결. 꽤나 힘든 일정이지만 이들에게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눈 깜짝 할 새라고.

올해에는 락시의 회장과 총무가 바뀌면서 적응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 때문에 상반기에는 출조를 나서지 못했고 이번 하반기에서야 이렇게 오게 된 것. 하지만 동아리 부원들의 응원과 지지 덕에 성공적인 출조를 할 수 있었다. 새로 총무를 맡게 된 이희동 과장은 “동아리 임원진이 바뀌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회원들이 잘 맞춰주고 도와준 덕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라며 락시 회원들 간의 끈끈함을 내비쳤다.

잡은 물고기는 항구에 위치한 회 센터의 전문가에게 맡겨진다. 꽤나 많은 양임에도 빠르게 손질되는 물고기들을 보며 누가 잡은 물고기인지 꼽아보다, 오늘의 낚시왕, 낚시짱을 선정하게 됐다. 오늘의 낚시왕은 오재성 대리. 열 두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낚시를 한 덕에 16마리나 잡았다고. “아이고 쑥스럽네요. 다 작은 것들만 잡았는데 제가 낚시왕이라니 하하.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가끔 낚시를 갔었는데 아직 그때의 감각이 남아있었나 봐요. 아, 물론 다른 분들도 쉬지 않고 하셨더라면 더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던 오늘의 낚시짱 이학진 사원은 “아, 저는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바다 멀미가 심한 줄 몰랐는데 굉장히 심한 편이었더라고요. 누워있느라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하지만 다음 출조 때는 제가 낚시왕이 될 겁니다!” 누가 얼마나 잡았는지 보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갖는 이들의 얼굴에서 락(樂)시의 의미가 보인다.





• •  
 짜릿한 손맛을 느꼈다면  
 황홀한 입맛도 잡을 차례.  
 작은 고기들이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메인 메뉴로 변신하고 있다.  
 "사장님, 맛있게 떠 주십시오!"

우리가 잡은 회,  
우리가 만든 식탁에서  
파티를!

잡은 물고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손질해 구이, 회, 탕 등으로 다 먹고 간다. 혹 그날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은 날에는 잘 포장해 가기도 한다고. 오늘의 주 메뉴는 광어, 우럭 회와 매운탕 그리고 숯불구이다. 생선만 먹기엔 조금 심심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고기도 잔뜩 준비되어 있다. 숯불 조는 돼지 목살, 삼겹살, 소시지 등 푸짐한 재료들을 굽고 손질 조는 회 센터에서 생선을 손질해 온다. 준비 조는 야채와 밑반찬, 주류를 세팅. 각자 할 일을 나눈 뒤, 맡은 일을 착착 해 내는 모습에서 완벽한 팀워크가 엿보인다.

드디어 완성된 한 상 차림. 우리 손으로 직접 잡아 더 맛있지만, 함께 모여 만들었다는 뿌듯함도 크다. "이야, 광어가 아주 쫄깃쫄깃 해. 누가 잡았는지 실한 녀석으로 잡았네." 먹으면서도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들. 다 함께 식사 한 번 하기도 어려울 만큼 바쁜데다가 2박 3일이라는 일정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얼마나 즐거울지 알기에 이들은 스스럼없이 시간을 낸다. 동호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됐지만 누구보다 락시를 아낀다는 구원서 과장은 "열 몇 시간을 한 배에서 함께 먹고 잡고 쉬고 하다 보면 동료애가 끈끈해지는 걸 느껴요. 사실 낚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동안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진 않지만 묵묵히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잡으면 축하도 해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연결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

어요."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락시의 창립부터 함께했다는 배석철 과장은 "원익아이피에스의 동호회이지만 CS근무자들은 각지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팅이 있을 때만 가끔 보는 게 다였어요.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라고 만족하는 미소를 지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취미로 모여 하나가 되기까지. 행복과 즐거움을 낚는 진정한 '락(樂)시꾼'들이 모인 락시는 앞으로도 방방곡곡을 다니며 낚시줄만큼 팽팽하고 끈끈한 마음을 이어나갈 것이다. **W**



• •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 분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락시를! 하면 위하여! 해주세요.  
 자, 락시를! (위하여!)  
 • •



• •  
 새로 총무를 맡게 된 이희동 과장은 동아리 임원진이 바뀌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회원들이 잘 맞춰주고 도와준 덕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락시 회원들 간의 끈끈함을 내비쳤다.

고소한 냄새,  
따뜻한 한입으로 녹인  
출근길

2018  
원익큐엔씨,  
도시 어부의  
온정 나누기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어슴푸레한 불빛이 원익큐엔씨 앞마당을 밝혔다. 더불어 무언가를 굽고 끓이는 듯 맛있는 냄새도 솔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붕어빵과 어묵이다. 서투른 솜씨로 반죽을 붓고 팔소와 슈크림을 채우는 이들은 다름 아닌 원익큐엔씨 사우들. 어떻게 된 일일까?

온정은 맛잡을수록  
뜨거워지는 것

원익큐엔씨 봉사동아리 나눔회 및 인사팀은 매해 겨울마다 독거노인에게 연탄을 전달하기도 하고,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외부 봉사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고생하는 사우들에게 감사전을 하는 것으로 봉사를 대신해 보기로 했다. 외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 위해선 일단 손을 따뜻하게 달궈놓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러한 의미에서 12월 18일, 19일 양일간 원익큐엔씨 A, H, C 세 개의 캠퍼스에서 '도시어부의 온정 나누기' 행사가 시작됐다. 메뉴는 겨울 길거리 음식의 아이콘인 붕어빵과 어묵. 이른 아침 출근하는 사우들에게 직접 만든 따뜻한 붕어빵과 어묵을 쥐어주며 남은 한 해, 그리고 다가올 2019년을 든든하게 맞이하는 뜻이 담겨있다. 18일에는 A 캠퍼스와 H 캠퍼스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오전 여섯시 반, 건물 입구 바로 옆에 좌판을 설치하고 붕어빵 기계와 어묵탕을 끓일 솥 등이 차차 준비됐다. 업체 측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처음인지라 때론 설익기도 하고 새



까맣게 탄 붕어빵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어엿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행사를 준비한 사우들은 "역시 손에 익으면 안 되는 게 없다"며 노련한 붕어빵이 만들어질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이윽고 사우들이 출근할 시간. 이른 아침 진행되는 행사에 너무 출진 않을까, 반응이 무덤덤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사우들은 가우뚱하면서도 기분 좋은 냄새에 이끌려 반갑게 다가왔다. "이게 뭐예요?", "와 붕어빵 오랜만이다!" 동그래진 눈으로 살펴보는 사우들의 손에 붕어빵과 어묵이 든 컵을 나눠주자 금세 표정이 환해진다. "어쩜, 맛있게도 만들었네!" 한입 씹 베어 문 사우들은 뜨거움에 호호 입김을 내뿜으면서도 칭찬 일색. 만든 이도 먹는 이도 즐거운 순간이다.

하지만 여유로운 시간도 잠시, 통근버스가 도착하자 사우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만들어 둔 음식들이 뿔뿔이 동나기 시작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사우들은 당황하면서도 금세 푹푹딱딱 빈자리를 채워낸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우들까지 장갑을 끼고 합세해 서로 도와가며 출근하는 사우들을 맞이하고, 신이 난 이들은 “여기 따뜻한 봉어빵 있어요! 와서 마음껏 드세요!”하며 호객(?)을 이어간다.

해가 뜨기 한참 전부터 모두가 출근하고 난 후까지 어묵 국자를 놓지 않았던 퀴즈제조본부 최종건 본부장은 “이렇게 사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벤트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해마다 전력을 다해 달려왔지만 올해는 특히 힘든 일도 있었기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아침부터 밝게 인사를 나누고 정성 들여 만든 작은 음식들을 함께 먹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원익큐엔씨를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늘 위해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 마음 이대로 목표를 향해 달려갔으면 합니다.”하고 소감을 전했다, 이를 지켜보던 사우들은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저희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맛있는 것도 직접 만들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하며 축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이제 들어온 지 갓 2주가 됐어요. 저희를 뽑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아침부터 손수 맛있는 음식도 나눠주시고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까지 해 주셔서 애사심이 솟네요! 그냥 가지 말라고 어묵을 쥐어주신 최종건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생산관리팀 신입사원 일동

“올해 많이들 힘들었죠? 봉어빵 많이 드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잘 견뎌준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도 듬뿍받으시고 2019년도 잘 해 봅시다. 원익큐엔씨 파이팅!”

김지학 부장

“중간에 큰 이슈도 있었지만 그 이슈가 결국은 디딤돌이 되어 회사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 준 원익큐엔씨 동료분들 감사합니다.”

양원모 대리

“2018년 최대 매출 실적 달성한 원익큐엔씨 임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2018년의 실적을 또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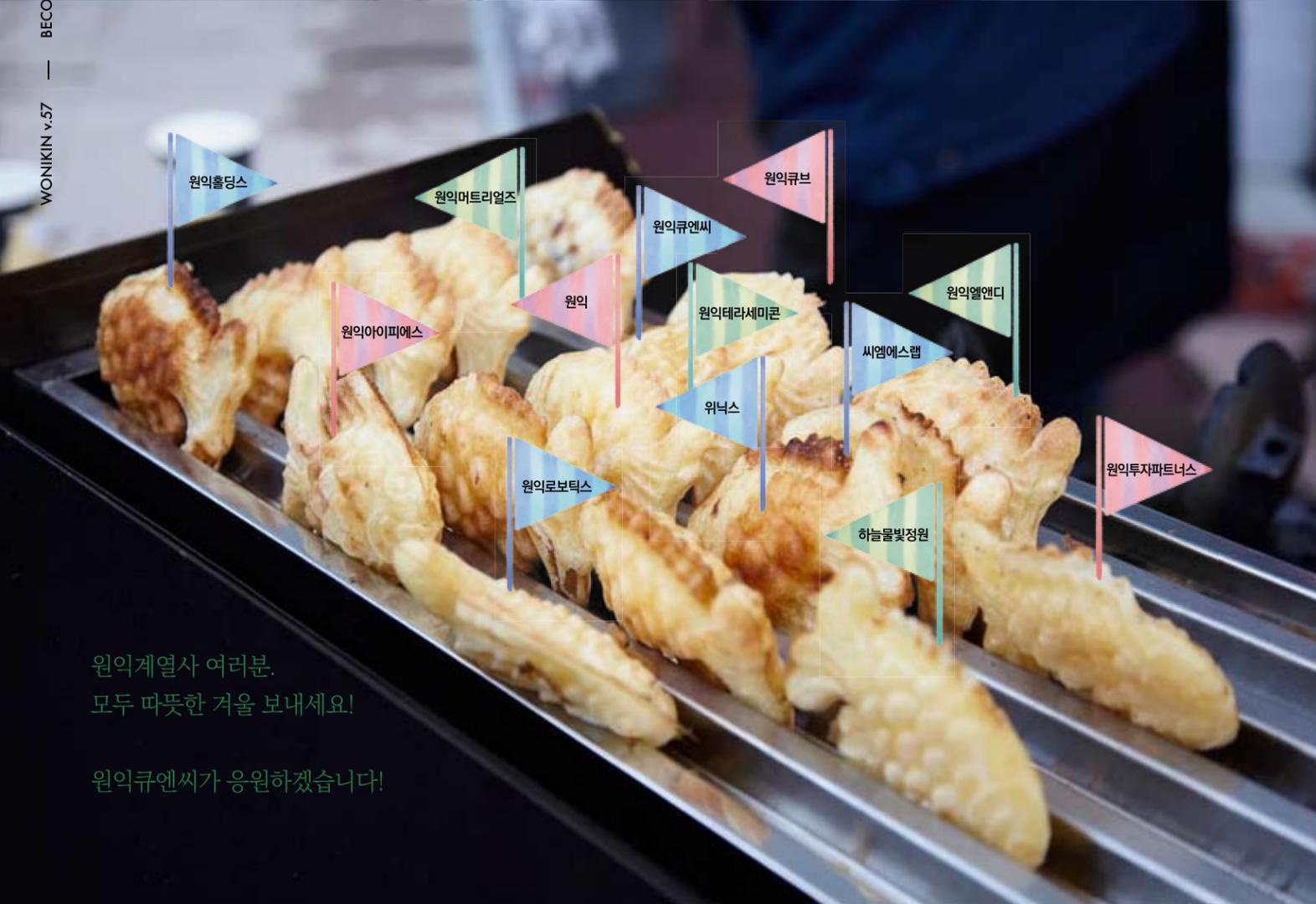
이창민 대리



“머리 한 입, 꼬리 한 입  
베어 물때마다 행복이 퍼져나간다.  
만드는 이들은 정성으로,  
받는 이들은 감사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하고 달큰함으로  
든든해진 마음은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올겨울을 훈훈하게 덮힐 것이다.”



“힘들었던 기억은 음식을 만들며 피어오른 수증기처럼 멀리멀리 퍼져나갔다.  
이제부터 만들어 나갈 원익큐엔씨의 앞날은 때로는 잘 만들어진 봉어빵처럼 예쁘고,  
때로는 한 모금의 어묵 국물처럼 감칠맛이 날 것이다.  
가끔은 털 익을지도, 타버릴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게 슬퍼하고 크게 격려하며 성장해 나갈 이들.  
원익큐엔씨의 2019년을 응원한다.”



원익계열사 여러분,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원익큐엔씨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 감격,  
감동

함께 가요  
원익큐엔씨

기상청에서는 요 며칠보다는 따뜻한 날이 될 것이라  
고 했지만 12월 중순의 아침은 발을 꼬꼬 얼리기에 충  
분했다. 하지만 좌판 너머에는 사원, 대리, 팀장 직위  
를 막론한 모두가 서서 음식을 만들고 포장을 한다.

서로 바통을 넘겨주듯 하며 일을 나누고 각자의 입에  
갓 만든 따뜻한 음식을 넣어주는 이들.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원익큐엔  
씨가 걸어온 길이다.



행사가 끝난 후 모인 회의 시간. 인사팀은 생각보다  
좋았던 사우들의 반응에 한껏 감동한 표정이었다.  
“직원들 호응이 너무 대단하더라.”, “어떤 분들은 퇴  
직하고 나면 봉어빵 장사를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하  
하.” “직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발 좀 시리고  
손 좀 시려도 좋더라.”, “직원들이 우릴 반겨주는 모  
습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소감을 나누면서도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내일 있을  
2차 행사를 위해 오늘의 부족했던 점을 꼽으며 개선  
해 나갈 부분을 점검한 것. 상대적으로 열이 약해 익  
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전기식 봉어빵 기기 대신  
가스로 직접 굽는 기기를 사용하고, 젊은 사우들이 다  
가오는 데 망설이지 않도록 더욱 활기차게 인사를 전

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인  
사팀 도현수 팀장은 “매년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이  
번에는 직원들을 위해 봉사를 해 보자는 생각을 했어  
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올해에만 직원이 2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게다가 일도 많아져서 아마 사우들이 힘  
들었을 거예요. 아직 서로 데면데면할 텐데, 얼굴도  
익히고 감사 인사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까 고민하다가 의견을 합쳐 나온 결과물이 바로 ‘도시  
어부의 온정 나누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감격스럽네요. 게다가 다들 자기 일처럼  
도와줘서 감동이기도 했고요.”하며 기쁜 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W**



우 리 의 핵심가치 하나되는 원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 하나 되는 우리 원익 순간, WONIK GROUP

### 우리 원익은 넉쿨이다

우리 원익인들이 서로서로 힘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면, 여러 줄기가 얽혀 끊임없이 위를 향하는 넉쿨이 생각납니다.

원익테라세미콘 최정은 파트장

### 우리 원익은 '다양함'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고, 하나 안에서 또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곳.

원익테라세미콘 권기용 팀장

### 우리 원익은 즐거움 이구나

힘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내다보면 '이런 게 즐거움이구나.' 합니다.

씨엠에스랩 남성주 상무

### 우리 원익은 아이디어뱅크다

개미가 머리를 모으면 인간도 만들 수 없는 집을 만든다고 한다. 회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는 순간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풍풍 솟아납니다.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아이디어뱅크요.

원익아이피에스 김재현 전무

### 우리 원익은 행복이다

팀원들이 행복하게 웃을 때죠. 우리가 하나 되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원익큐브 서종욱 팀장

### 모든 순간

원익의 앞날을 위해 고민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익폴딩스 임우석 상무

### 빛나는 이름 '원익'

'원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일할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의 원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익머트리얼즈 김한성 주임

### 通 하였느냐~

서로 막힘없이 즐겁게 일하다보면 어느새 한자 통하다 통(通)자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는 게 바로 '통한다'는 거겠죠?

원익큐엔씨 도현수 팀장

### 우리 원익은 번데기다

장차 아름다운 날갯짓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원익인들.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곧 화려한 날개가 펼쳐질 것 같다.

원익큐브 박찬중 과장

### 우리 원익은 자석이다

서로 찰싹 붙어 자력을 내는 N극과 S극 자석처럼, 원익인들도 하나로 뭉칠 때면 늘 좋은 영향력을 뿜어낸다고 생각한다.

원익아이피에스 천경민 대리

### 우리 원익은 거대한 배이다

서로 미루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원익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거대한 배 안에 있는 것 같다. 멋진 항해 중 인거죠.

원익큐엔씨 김동현 대리

# NEWS FOCUS

WINTER 2019

## 원익홀딩스

평택시장 표창장 수여  
HFC 첫 출항  
2018년 원익홀딩스 소방훈련

## 원익아이피에스

상 북 터진 원익아이피에스  
가족티마여행  
2018 ICT 특허경영대상

## 원익큐엔씨

스마트팩토리 성과대회 우수상 수상

## 원익테라세미콘

중국 서안법인 워크샵  
교육 Needs 분석  
고용노동부 주관 워라밸데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2019 사업전략 워크샵

## 원익

색조화장품 FLOWFUSHI 론칭 및 올리브영 단독 입점  
성남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청바지프로젝트' 우수기업 선정  
색조화장품 FLOWFUSHI '후로후시' 런칭 기념 원익가족 패밀리세일  
2018 (주)원익의 따뜻한 송년 문화행사



## 씨엠에스랩

연말 자선 바자회

## 원익로보틱스

로봇 '애디'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2018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수상  
'제6차 OECD 세계포럼' 안내서비스

## 원익투자파트너스

소모임 및 호프데이  
사내 세미나 및 FUNDAY 행사  
임직원 및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가족행사

## 원익홀딩스

### 평택시장 표창장 수여

2018년 12월 13일 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이사가 평택시장이 수여하는 '2018년 기업인 유공자 표창수여식'에 참가하였다. 본 행사의 경우, 평택시 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평택시장이 직접 기업체 대표들을 격려하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자리였다.

원익홀딩스는 지속적인 제조 및 품질 조기확보로 매년 매출 신장 / 꾸준한 고용창출을 통해서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 / 선진노사문화 구축 / 각 사이트 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한 점을 인정받아 본 표창장의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본 표창장을 받은 이재현 대표이사는 "특정시에 속한 하나의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원익홀딩스가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 및 회사 성장에 최선을 다했다는 반증이다. 이 상의 공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돌린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원익홀딩스가 평택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원익홀딩스

### HFC 첫 출항

올해 새로 출범한 원익홀딩스 낚시동호회 [HFC]가 첫 출항 소식을 알렸다. 이번 첫 출항은 시화방조제에서 진행되었는데, 16명의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낚시를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 낚시동호회가 출범하기 전, 회원 수 부족 등의 사유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직원들이 낚시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쳐서 첫 출항의 배에 몸을 싣었다.

이번 출항에 참여한 직원은 “HFC 동호회 창설 후, 처음으로 동호회원분들과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하여 출조를 나갔으며, 짜릿한 손맛과 싱싱한 쭈꾸미의 격정적인 에너지를 느꼈고, 푸른 바다를 보며 그간 업무의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HFC의 활동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자연경관도 즐길 수 있는 1석 3조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삶과 직장에서 개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기 바란다.



## 원익홀딩스

### 2018년 원익홀딩스 소방훈련

2018년 11월 16일 원익홀딩스 지제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진행하였다. 자체적으로 실시된 본 소방훈련의 경우, 사업장 내 직원의 화재안전 의식 향상과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 환경안전팀이 주관으로 진행된 훈련이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에서 근무중인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진행된 훈련은 [화재발생(모의상황) → 화재 진압 → 인원파악 → 소화기구 사용교육 → 자위소방대교육 → 총 강평]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소방훈련을 진행한 환경안전팀 직원은 “이번 소방훈련의 가장 중요한 Point는 사업장 내 임직원 대피 및 자위소방대 임무 체계화 였으며, 이에 17년 소방훈련보다는 자위소방대 인원을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소화전/소화기/자위소방대 등 교육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소방훈련에 관하여 사전에 교육을 진행하고, 자위소방대 인원과 호흡을 맞춰보았던 것이 훈련 시 우왕좌왕하지않고 체계적이게 할 수 있던 비결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 올해 회사를 입사해 훈련에 참가한 직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의 행동요령 숙지, 소화기 사용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전하였다.

2018년 한 해는 그 어느때보다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을 깨워주는 한 해였다. 이에 매년 진행되는 훈련을 통해서 원익홀딩스 또한 안전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원익아이피에스

### 상 복 터진 원익아이피에스

원익아이피에스가 올해 각종 평가에서 풍성한 수상 기록을 쏟아내며 2018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상한 협력사 기술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을 시작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18년 사업주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소기업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 경진대회는 지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23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실시하였는데 원익아이피에스는 경기도내 최우수상에 이어 전국대회에서도 최고영예인 금상을 수상했다. 원익아이피에스의 사업주훈련은 사례는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되어 19년도에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각 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원익아이피에스는 경기도로부터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경기도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자리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을 평가하여 도내 우수기업을 선정하였고, 2년간 유효된다. 이밖에도 강소기업 중에서도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한기업에 선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도 선정되었으며, 평택시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BOE로부터 환경안전 관리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명예증서를 수여받았다. 2019년 황금돼지해에도 福 받는 일이 가득한 원익아이피에스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가족테마여행

원익아이피에스는 12월 1일 토요일 하반기 가족테마여행을 진행하였다. 상반기 에버랜드 방문 후, 하반기 ‘한국잡월드’ 방문하여 연 2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임직원 대상 가족 행사이다.

‘한국잡월드’ 방문은 추위를 고려하여 실내 체험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임직원 자녀들에게 미래 직업 및 직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공휴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뜻 깊은 행사이다.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 받았으며, 가족을 포함하여 총 19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임직원들은 원익IPS 온라인 소통 채널인 ‘들어주세요’에 “가족 테마 여행 감사합니다”의 글로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앞으로도 원익IPS는 임직원 개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려하는 테마여행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덕분에 맞벌이하는 와이프한테 회사 복지 좋다는 말도 듣고 기분 좋았습니다.”

“제 아내도 회사 복지 좋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구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

“아직 돌도 안지나 가진 못했지만 앞으로 가족참여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 원익아이피에스

### 2018 ICT 특허경영대상

2018년 11월 22일 “2018 ICT 특허경영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한 ‘2018 ICT 특허경영대상’에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허 경영·지원에 이바지한 기업 18곳과 개인 18명을 수상했다. 대상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을 각 1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각 2점씩 수여했다.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ICT 특허경영대상’은 특허경영 전략 발굴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ICT 관련 기업,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원익아이피에스는 올해 진행된 ‘ICT 특허경영대상’에서 단체부문 영예의 대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표창을, 그리고 원익아이피에스 준법경영팀장인 김영준 부장은 개인부문에서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991년 설립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된 연구개발 및 특허경영을 통해 우수한 반도체 장비 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1,400여건의 기술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직무발명 프로세스 및 보상규정 제정, 특허관리시스템 구축, 가치평가 도입 등 종합 특허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내 IP활동 지원 및 인프라 구축 결과 보유 특허의 양적/질적 확대와 더불어 매출액 증대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글로벌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 동종업계 대상 특허경영 성과 및 분쟁대응 활동 공유 등 국내 ICT업계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현덕 대표는 “원익아이피에스의 차별화된 특허경영 전략이 외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당사가 속한 반도체 장비 산업 또한 글로벌 업체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 이슈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차원에서 특허경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더욱 더 높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영준 부장은 17년간 특허담당자 및 관리자로 직무발명 프로세스 및 보상규정, In-House 특허관리시스템, 가치평가 프로세스 등 기업특허경영 전반의 시스템을 신규도입·실행함으로써 기업 특허경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글로벌 특허침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소송대상 특허 전체에 대한 무효판결을 통해 실질적 승소를 이끌었고, R&D 전 단계에서 특허조사 및 특허분석(특허맵)을 수행함으로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특허분쟁 예방에 기여하였다.



## 원익큐엔씨

### 원익큐엔씨, 스마트팩토리 성과대회 우수상 수상

원익큐엔씨는 2018년 12월 13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최한 ‘2018년 스마트팩토리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스마트팩토리 성과대회’는 경북센터가 앞장서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스마트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원익큐엔씨를 포함하여 인탑스와 화신, 에스피엘이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관련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시상대에 올랐다.

원익큐엔씨는 8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팩토리 사업 지원을 받아 ‘세라믹사업부 제품개발 효율 향상을 위한 PLM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과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제품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시 공유를 목표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일정, 품질, 원가 개선을 이끌어내었다. 프로젝트의 한 관계자는 “업무효율 증가 및 불량률 감소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개발 이력 관리를 통한 Know-how의 축적 및 재활용성이 극대화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행사에는 세라믹사업부 전형우 상무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성과대회 행사는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관련 우수기업 포상과 우수사례 발표, 스마트팩토리관련 특강,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의 네트워킹으로 진행되었다.



## 원익테라세미콘

### 중국 서안법인 워크샵

원익테라세미콘 중국 서안법인 직원들이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장가계로 워크샵을 다녀왔다. 서안법인에서 워크샵을 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회사에 헌신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샵 참가자들은 서안 법인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함께 일하고 있는 장기근속자이므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중국 현지 고객대응 및 만족을 실현하며 중국 비즈니스 확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워크샵을 떠난 장가계는 중국 대표 관광명소로 영화 <아바타> 촬영지로 더욱 널리 알려진 곳이다. 약 3일간의 일정동안 영화 촬영지를 비롯하여 장가계 산림공원들과 봉황고성, 간주고성 박물관 관람 등의 활동을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운영 효율화 및 직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워크샵을 통해 뜻 깊은 Refresh 시간을 보내고 온 서안법인 직원들이 앞으로도 중국 핵심인력으로 성장하여 향후 중국 business를 선도해나갈 주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 원익테라세미콘

### 교육 Needs 분석

맞춤옷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주듯 교육에도 맞춤옷을 입힐 수 있다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평소에 꼭 필요한 내용을 선호하는 방법으로 전달한다면 효과가 상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원익테라세미콘은 각 부서 교육 Needs와 내부고객의 취향 분석을 목적으로 8월부터 두 달간 ‘교육 Needs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DDIE 모형을 이룬 기반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3개 부문(요구분석/환경분석/학습자분석)으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다.

가장 핵심인 요구 분석은 임직원을 임원/리더/실무급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교육 요구를 청취하고 결과를 종합했다. 임원급은 심층적인 내용 도출을 위해 1:1 개인인터뷰를 30분씩, 정해진 설문을 통해 전체 교육의 큰 방향을 조사했다. 임원 인터뷰 후 설정된 큰 교육 방향에 따라 교육 소주제를 추출하기 위해 리더급은 FGI기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 임직원 대상 모바일 설문을 통해 선호 교수법을 청취했다. 환경, 학습자분석은 부서별 SME 및 교육 담당자 1:1 심화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프로젝트 시사점으로는 ①지속적인 장비 & 어학 교육, ②주 52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무효율화, ③Skill과 Insight를 기반 리더십 교육, ④강의식 교육을 탈피한 다양한 교수법, ⑤교육시설 및 정보 제공 확대 등이 있었다. 결과물을 통해 2019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할 예정이다.



## 원익테라세미콘

### 고용노동부 주관 워라밸데이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인 원익테라세미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여가 관련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중 하나가 CGV와 연계한 행사인 “워라밸데이”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소속 임직원들을 초청하여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이다. 특히 다른 문화행사와 차별화 되는 점은 정식 개봉하기 직전인 영화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8일에는 수원역 CGV에서 9월 19일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안시성>을 관람하였다. 영화 <안시성>은 개봉이후 관객 평점 8.6을 기록한 흥행작으로 훌륭한 영화를 미리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던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또한 2018년 11월 20일에 2차 워라밸데이가 진행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영화 <성난 황소>를 관람하였다. 2차 워라밸데이에는 특별히 최근 업무량이 집중되었던 품질보증팀 전원을 초청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팀의 소통과 단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도 보냈다. 원익테라세미콘은 앞으로도 이러한 고용노동부 주관 행사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직원들에게 더욱 행복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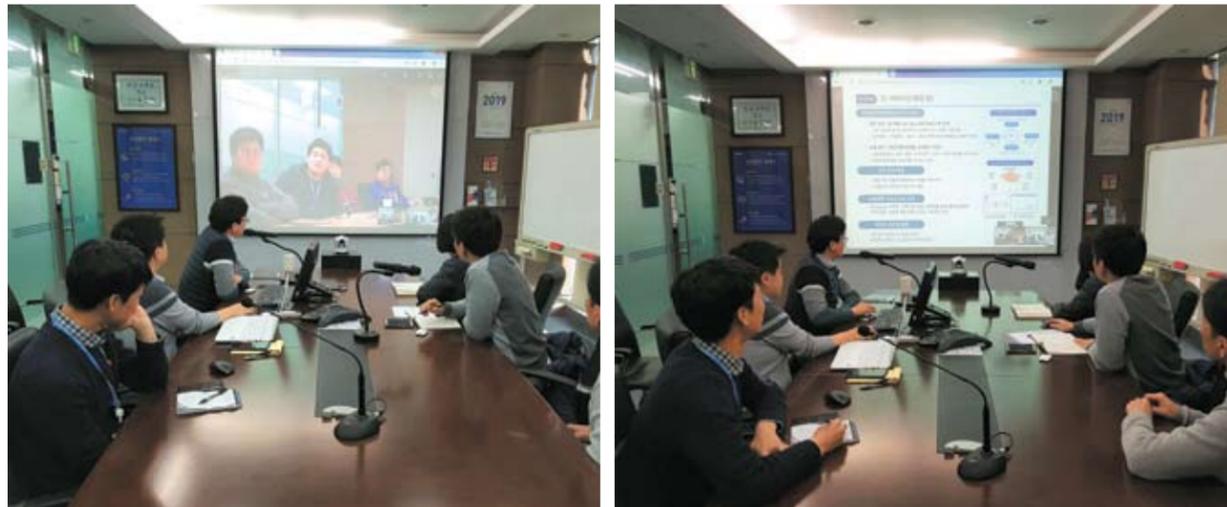
## 원익테라세미콘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회의문화 혁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원익테라세미콘은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각 사업장에 구축하였다.

현재 원익테라세미콘은 동탄, 진위, 안성, 화성, 탕정, 둔포 등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며 효과적인 고객 응대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사업장 간 거리로 인해 회의 시 긴 이동시간이 발생하는 loss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동시간이 필요없이 각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라도 다른 사업장 근무자와 실시간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화상 회의 시스템이 기존에도 일부 구축되어 있었으나, 워라밸 문화를 적극 확대하면서 화상 회의 시스템 역시 더욱 확장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12월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회의 시스템 확장 구축으로 인하여 원익테라세미콘에 효율적인 업무 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익테라세미콘

### 2019 사업전략 워크숍

원익테라세미콘은 2018년 12월 4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2019 사업전략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 취지는 2018년 사업계획 대비 중점추진업무 진행 결과를 점검하고 2019년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과 임원을 비롯한 각 팀 리더급 인원 53명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세부적으로 기술본부는 중장기 R&D 전략을, 영업본부는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매출 계획 달성 전략과 고객만족 극대화 방안을, 경영지원 본부는 인당 생산성 향상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이날 대표이사는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금일 워크숍에서 다룬 내용의 깊이와 수준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향상되었다.”는 격려와 칭찬의 강평을 남겼다. 이와 같은 치열한 고민이 2019년 원익테라세미콘의 성장과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원익

### (주)원익, 색조화장품 FLOWFUSHI 론칭 및 올리브영 단독 입점

(주)원익은 2018년 10월 22일 일본 색조화장품 No.1 브랜드 후로후시(FLOWFUSHI)를 메이저 온라인몰과 약 1,200개의 매장을 보유한 국내 최대 H&B숍 올리브영을 통해 공식 론칭했다.

모테마스카라와 모테라이너 등으로 일본 여행 쇼핑리스트 필수템으로 알려져 있는 후로후시는 최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든 여성에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아름다움의 가치를 선물한다는 철학을 가진 '뉴 럭셔리' 브랜드이다. 일본 전통 붓 장인의 손길과 후로후시만의 첨단 과학 기술이 만나 새롭게 탄생된 색조화장품 브랜드로 일본에서 3년 연속 마스크라 및 아이라이너 판매 1위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모테마스카라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9가지의 100% 맞춤형 브러쉬 콘셉트로 풍부한 섬유질과 풍성한 속눈썹 연출, 속눈썹 케어 효과가 있으며, 미온수로 간단하게 클렌징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모테라이너는 일본의 전통 기술을 지켜온 6명의 붓 장인들이 개발한 핸드메이드 브러쉬와 8각형 모양의 아이라이너로 끊기지 않고, 한번에 쉽고 간결하게 원하는 아이라인을 연출할 수 있다.

후로후시는 마스크라와 아이라이너 이외에도 립과 속눈썹영양제, 아이크림, 컨실러, 파운데이션, 마스크까지 8개 라인, 총 31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메이저 온라인몰에서 론칭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국내 최대 H&B 올리브영에서는 단독 입점을 기념하여 연간 500만명이 방문하는 강남분점에 브랜드 팝업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5% 할인, 특별 프로모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주)원익 이승룡 상무는 “일본 직구 필수템인 색조화장품 넘버원 브랜드 후로후시의 론칭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는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마스크라와 아이라이너를 경험하게 하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익

### (주)원익, 성남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청바지프로젝트' 우수기업 선정

(주)원익은 2018년 11월 16일 밀리토피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우수기업 소통Day '2018감사해YO!'를 통해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주제로 소통하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청바지프로젝트'의 100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청바지프로젝트'는 '청소년의 바른 꿈을 지원하는 우리 지역'의 줄임말로써 청소년과 기업이 소통하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현재 성남시 내 총 435개 기업이 체험일터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우수기업 소통Day '감사해YO' 행사는 그동안 가장 헌신적으로 참여한 100개 우수기업을 선정 및 초청하여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성과와 감사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주)원익은 2017년 '청바지프로젝트' 체험 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매년 2회에 걸쳐 성남시 소재 청소년들이 인솔교사와 함께 판교 본사를 방문하여, (주)원익과 원익그룹의 회사 소개와 더불어 (주)원익의 사업분야와 미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지금의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채용조건, 복지제도 등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번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100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감사장을 받게 되었다.

이날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는 “청바지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우수기업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의 진로개발과 꿈 성장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여기 오신 모든 체험일터가 청소년에게는 살아있는 삶의 지식이자 가치있는 배움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원익은 앞으로도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해당 직업에 대한 설명과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실무자들의 진실된 조언과 더불어 현장체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원익

### 색조화장품 FLOWFUSHI '후로후시' 런칭 기념 원익가족 패밀리세일

(주)원익은 일본 색조화장품 No.1 브랜드 FLOWFUSHI의 런칭을 기념하고, 연말연시 원익그룹 임직원들에게 아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을 판교 원익빌딩 뿐만 아니라 원익IPS 진위사업장, 원익홀딩스 지제사업장, 씨엠에스랩 등 계열사 사업장에서 12월 중에 진행하였다.

FLOWFUSHI는 국내 1위 No.1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에 단독 입점된 색조화장품 브랜드로 일본 여행 및 직구 필수 아이템인 모테마스카라와 모테라이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기쁨, 즐거움, 재미의 뜻을 가진 'FUN'이라는 테마로 모두에게 아름다움을 통한 즐거움을 선물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원익은 이번 패밀리세일을 테스터 매대와 제품 판매 매대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법으로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원익가족들에게 제품의 직접 체험을 통한 온오프라인 바이럴 및 후로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뿐만 아니라 립트리트먼트, 쿠션, 아이크림 등 신규 런칭 제품에 대한 4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물하고자 하였다.

(주)원익은 패밀리세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익가족만을 대상으로 SNS 및 블로그 통한 제품 사용 후기 이벤트, 제품 협찬을 통해 내부 고객과 소통하는 체험단 모집 등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FLOWFUSHI의 유니크함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해당 이벤트는 패밀리세일과 동일하게 포스터 및 그룹웨어 공지를 통해 홍보될 예정이며, 관심있는 원익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원익

### 2018 (주)원익의 따뜻한 송년 문화행사

2018년 12월 20일 (주)원익의 따뜻한 송년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2018년 송년행사의 주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따뜻한 문화행사였다. 이를 위해 임직원 단체 투표를 통해 영화관람이라는 문화행사를 선정했고 행사당일 볼 영화 역시 단체 투표로 결정했다.

극장 대관을 통해 진행된 문화행사의 첫 순서는 2018년 한 해의 순간순간이 담겨있는 사진으로 만든 동영상 관람이었다. Queen's 'We are the Champion'에 맞추어 제작된 동영상은 한해 동안 수고했던 모두에게 작은 감동과 응원을 주었다. 이어서 CRM 활동 우수직원에게 수여되는 포상 및 2018년 장기근속자 시상도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원익의 젊은 직원들이 모여 만든 '매드 포 원익'의 소개가 있었는데, 보다 즐겁게 일하는 원익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임직원 모두가 박수로 응원해 주었다.

영화를 관람한 후에는 과도한 음주 및 늦은 시간까지의 송년모임을 지양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간단한 호프미팅과 랜덤 선물 뽑기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뽑기 이벤트는 직급별 예산 이내 선물을 미리 준비한 후 행사 당일 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정해진 상대방과 교환하는 이벤트로 숙취보다는 추억을 남기자는 뜻이 담겨있었다.

많은 고민으로 준비한 선물을 소개하고 교환하며 (주)원익의 임직원은 즐거움과 더불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한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2019년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 씨엠에스랩

### 연말 자선 바자회

2018년 12월 11일, 씨엠에스랩에서 연말 맞이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

바자회는 평소 쓰지 않던 물품들을 바자회에 기부하고 필요한 임직원들이 해당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한 행사이다. 직원들이 자원하여 바자회 팀을 만들고 행사를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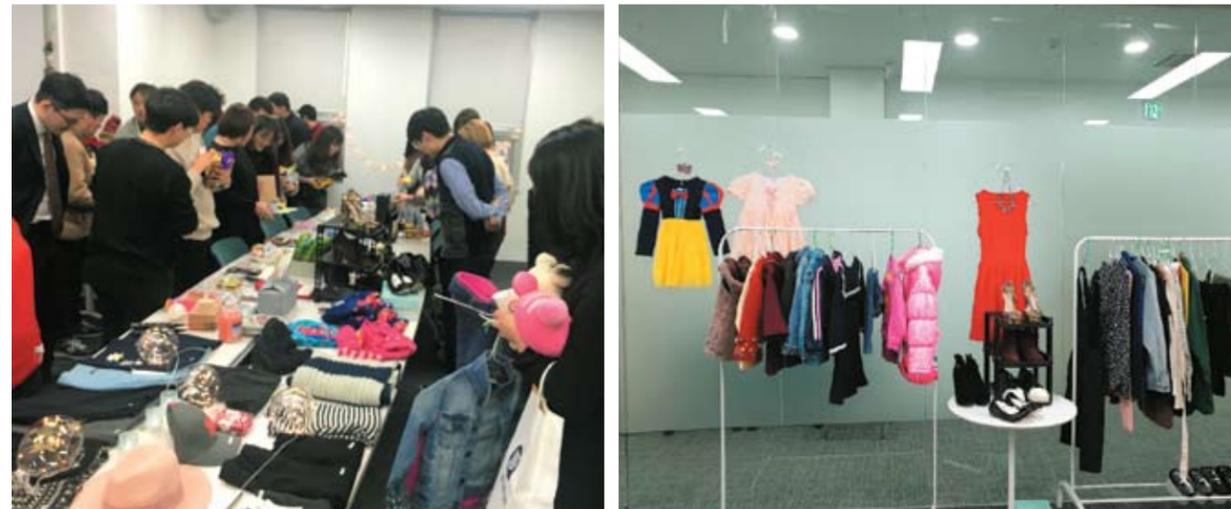
바자회에는 의류, 향수, 선풍기, 액세서리, 다이어트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이 기부되었다.

기부왕은 BM팀의 장소라 과장이었다. 장소라 과장은 본인이 직접 만든 귀걸이를 포함하여 50개가 넘는 물품을 기부했다.

행사 당일에는 풍성한 먹거리도 준비되었다. 바자회 시간이 다가오자 임직원들이 바자회 장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할 정도로 임직원들의 호응이 좋았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품은 '겨울왕국 패딩'이었다. 치열한 경매 결과 영업1팀 유지상과장이 25,000 원에 가져가게 되었다.

총괄 진행을 맡은 박영우 과장은 "함께 봉사에 참여한다는 기쁨과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목적이었다. 처음 하는 행사였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함께 모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전했다..



## 원익로보틱스

### 로봇 '애디'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주)원익로보틱스의 안내홍보로봇 '애디(ADDY)'가 부천 웅진플레이도시에서 22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활동했다. 애디는 웅진플레이도시의 고객들에게 음성을 통해 시설 안내, 사진 찍기, 날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웅진플레이도시에서 애디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특별히 제작한 산타 모자와 산타 옷으로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 '2018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수상

로봇신문이 선정한 '2018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시상식이 13개 수상업체 대표들과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이사, 김근식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로봇진흥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11시 웨라톤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은 로봇신문이 지난 2016년 처음 제정한 것으로, 올해가 3번째다. 2018년 대한민국 로봇기업은 국내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CEO 경영 능력, 신제품 발표 및 시장 반응, 마케팅 효과 등 종합적인 요소를 평가했다. 산업용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서비스 로봇, 교육용 로봇, 로봇 SW(인공지능), 자율주행솔루션, 로봇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총 13개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로봇기업들은 중국로봇망이 주최하는 '제5회 카렐 차페크(Karel Capek)상' 후보기업에 명단을 올리게 된다.

(주)원익로보틱스(대표: 장경석)은 (주)엔젤로보틱스(대표: 공경철), 현대로템(대표:우유철)와 함께 전문서비스 로봇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 원익로보틱스

### '제6차 OECD 세계포럼' 안내서비스

통합 로봇 서비스 업체 원익로보틱스(대표 장경석)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제6차 OECD 세계포럼(이하 OECD 세계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OECD 세계포럼은 경제성장지표 '국내총생산(GDP)'이 사회발전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OECD가 지난 2003년 새로운 사회발전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한 글로벌프로젝트에 이은 국제논의를 위해 2004년 창설했으며, 지난 2004년 1차 개최지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터키, 한국, 인도, 멕시코에서 개최됐다. 제6차 포럼은 OECD와 한국의 통계청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했다.

한편 원익로보틱스의 서비스 로봇 '애디'는 송도컨벤시아에서 '로미'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로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름은 로미오와 안내로봇의 합성어로 SNS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원익투자파트너스

### 소모임 및 호프데이

2018년 9월 13일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소모임 및 호프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소모임에서는 임직원들의 활기찬 기업문화 유지를 위한 볼링게임을 마련하였습니다. 볼링경기는 특별히 본부(기획관리, 벤처투자, 기업투자) 별 경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부 자존심이 걸린 경합인 만큼 각 본부 모두 힘찬 응원이 이어졌고, 더욱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큰 점수차이 없이 팽팽했던 경기는 보는 이들도 손에 땀을 쥐게 하였고, 치열한 3본부 접전 끝에 벤처투자본부가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벤처투자본부의 전략은 빠른 속도와 회전으로 스트라이크를 쳐 큰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본부보다 유독 스트라이크가 많았던 벤처투자본부는 가산점을 받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 수록 각 본부들의 빛나는 팀워크를 보여주었고 승패와 상관없이 모든 본부들이 최선을 다했던 멋진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호프데이에서는 근처 식당에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전본부 모두가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임한 덕분에 2018년도 하반기 소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즐거운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원익투자파트너스

### 사내 세미나 및 FUNDAY 행사

2018년 11월 22일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사내 세미나 및 FUNDAY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FUNDAY 행사는 특별히 벤처투자본부 노시윤 심사역님의 “전기차 시장 및 시스템 개요” 세미나 강연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전기차의 개요 및 전망과 시장 가치를 알 수 있었고, 깔끔한 설명 덕에 전기차 분야에 생소했던 직원들도 전기차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Q&A를 끝으로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강연을 마쳤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준 노시윤 심사역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탕비실에 모여 우수사원 추천과 FUNDAY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18 하반기 우수사원 투표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후보경쟁이 있었지만 개표결과 기획관리본부 오윤진 과장님이 뽑히셨습니다. 임직원들이 작성한 오윤진 과장님 우수사원 추천내용으로는 ‘펀드 제안서 작성 등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태 및 타직원과의 업무 협력 우수’ 등으로 모든 임직원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번 FUNDAY 는 2018년의 마지막 FUNDAY로 훌륭한 강연과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원익투자파트너스

### 임직원 및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가족행사

2018년 12월 21일 원익투자파트너스의 가족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행사는 임직원 및 가족분들이 함께 참석하는 자리로, 지난 1년간 수고한 직원들과 화합을 다지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식사장으로 이동하여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 둘 가족분들이 찾아와주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가족이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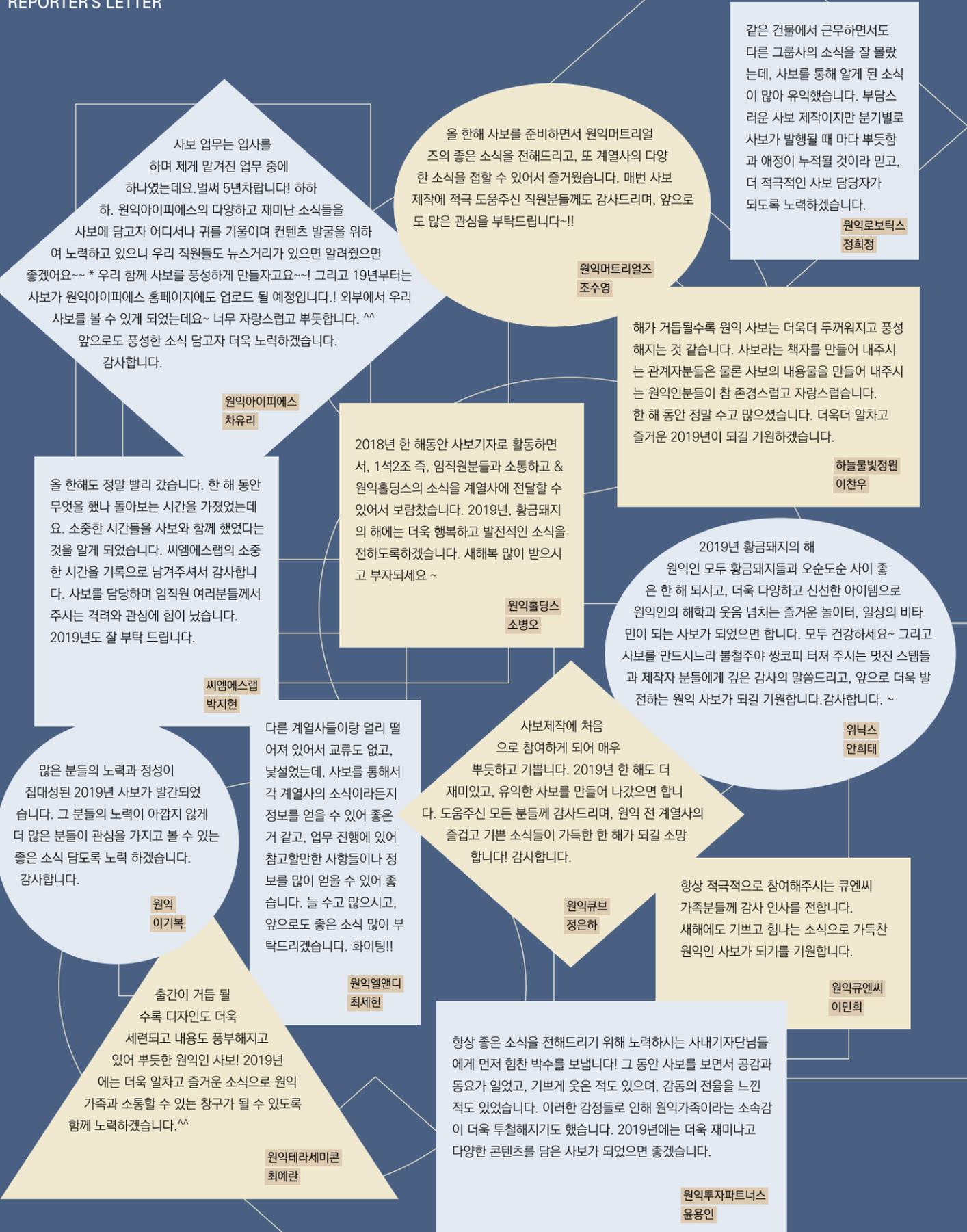
그 후 뮤지컬 관람 장소인 LG아트센터로 이동하여 뮤지컬 ‘마틸다’를 관람하였습니다.

마틸다의 줄거리는 마틸다는 독서를 좋아하고 초능력을 가진 천재 소녀지만 부모는 마틸다를 괴상한 아이라며 학대 방임하고, 학교에서는 어린이를 혐오하는 교장선생님 미스 트런치볼이 모든 아이들을 구더기라 칭하며 괴롭힙니다. 공포에 떠는 친구들과 자신을 이해해주는 허니 선생님을 위해 자신의 숨겨진 능력과 천재적인 발상으로 트런치볼 선생님을 쫓아냅니다.

이 뮤지컬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로 실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공연을 이끌어 나갑니다. 댄스와 퍼포먼스 등으로 무대를 꽉 채우고 청소년 양상블들이 아우러져 당차게 연기하는 모습이 대견하여 관객석에서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작은 몸집으로 옹기 않은 어른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마틸다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여운이 남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원익투자파트너스의 가족 행사를 통해 즐거운 연말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 덕분에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따라 자른 후 메시지 카드로 사용해 보세요.

'잘 사용했어요.' 사진을 사보톱으로 보내주시면 따뜻한 라테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editor 정-

##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사보 곳곳에 원익인을 응원하는 캐릭터가 숨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선물이 찾아갑니다.



찾아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57호에서 위 5개의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사보 참여자 전원에게  
선물 드립니다.



2019. 2. 2일까지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사보와 한몫이 되라

사보를 보셨다는 인증샷과 코멘트를 남겨 주시면 선정을 통해 선물을 드리오리다. 혼자도 좋고, 가족도 좋고, 명뭉이도 함께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보내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푸치노 기프티콘



## 리더를 찾아라

우리 회사의 리더를 찾습니다. '우리 00님이야 말로 리더지!' 추천해 주세요. 추천만 하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분, 선정 되신 분  
스타벅스상품권 각 2만원

BOSS vs LEADER 코너에서  
콩트로 각색하여 드립니다.



## 우리들의 덕후

매니아, 콜렉터, 애호가, 취미, 특기 등 그 속에서 찾은 행복을 전해주세요. '카툰/ 소설연재' 에 취미를 갖고계신분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원익덕후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 터치미

봄호 미션 #책가방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진/코멘트를 보내주세요.

스타벅스상품권 1만원

t h a n k s f o r y o u

### Reader's letter

안녕하세요, 원익홀딩스 조성훈입니다. 이번 사보 내용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조성훈

캐릭터찾으면서 사보 다읽었네요. 재밌었습니다.

선물 기대하겠습니다.ㅎㅎ

-원익아이피에스 00

5page



36page



5page



56page



59page



### 56호 참여자

보스vs리더

명단공개

원익월드

특별한덕후님

더웨이

밥한번먹어요

생일축하

주52시

맛있는시간

### 숨은캐릭터를 찾아라

이보름 (원익머트리얼즈)

김혜경 (원익큐브)

임예솔 (원익홀딩스)

### 정정합니다

김태운 상무님(원익아이피에스)의 품질보증 25년을 응원합니다.

김강민 사원님(원익머트리얼즈)의 감사왕 1등을 축하드립니다.

### 애정합니다

박영우 (씨엠에스랩)

###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권<11명>

김계현 (원익테라세미콘)

최성준

권혁기

이재규

김영현

김지나

최성원

고경현 (원익머트리얼즈)

장성민 (원익테라세미콘)

유수양 (씨엠에스랩)

이재경 (원익테라세미콘)

### 우설화 (한우갈비)

허광욱 (원익머트리얼즈) 레터링 케이 5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홍봉기 (원익테라세미콘)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원익머트리얼즈 도미노피자, 치킨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매<8명>

손단비 (나노윈) 최설경 (원익)

조성훈 (원익홀딩스)

김태령 (원익홀딩스)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매<2명>

### 스타벅스 카라멜마키아또 1매<1명>

## 신청 받습니다 ~ 추천해 주세요.

원익인을 위한 선물이 그대 곁에 있습니다.

이번 호를 읽고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원익인의 주인공입니다.



보내실 곳 -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보내실 때 - 코너제목/ 이름/ 부서/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코너 추천·사연은 기한 없이 보내주세요.

## 도시를 찾습니다

궁금해 궁금해~ 이 나라! 소개되었으면 하는 나라 or 도시 보내주시면 사보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매 기프티콘

WONIK WORLD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 회사 주변 맛집

회사 주변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계열사별 교류가 활발하여 방문할 때 유용한 꿀팁! 홀로 먹어도 외롭지 않아, 거래처와의 만남도 곳 플레이스.

스타벅스 카푸치노 기프티콘



## 생일 축하해요

2~3월 생일을 맞으신 분 신청해 주세요. 찾아가 축하해 드립니다.

서프라이즈~ 축하드려요

